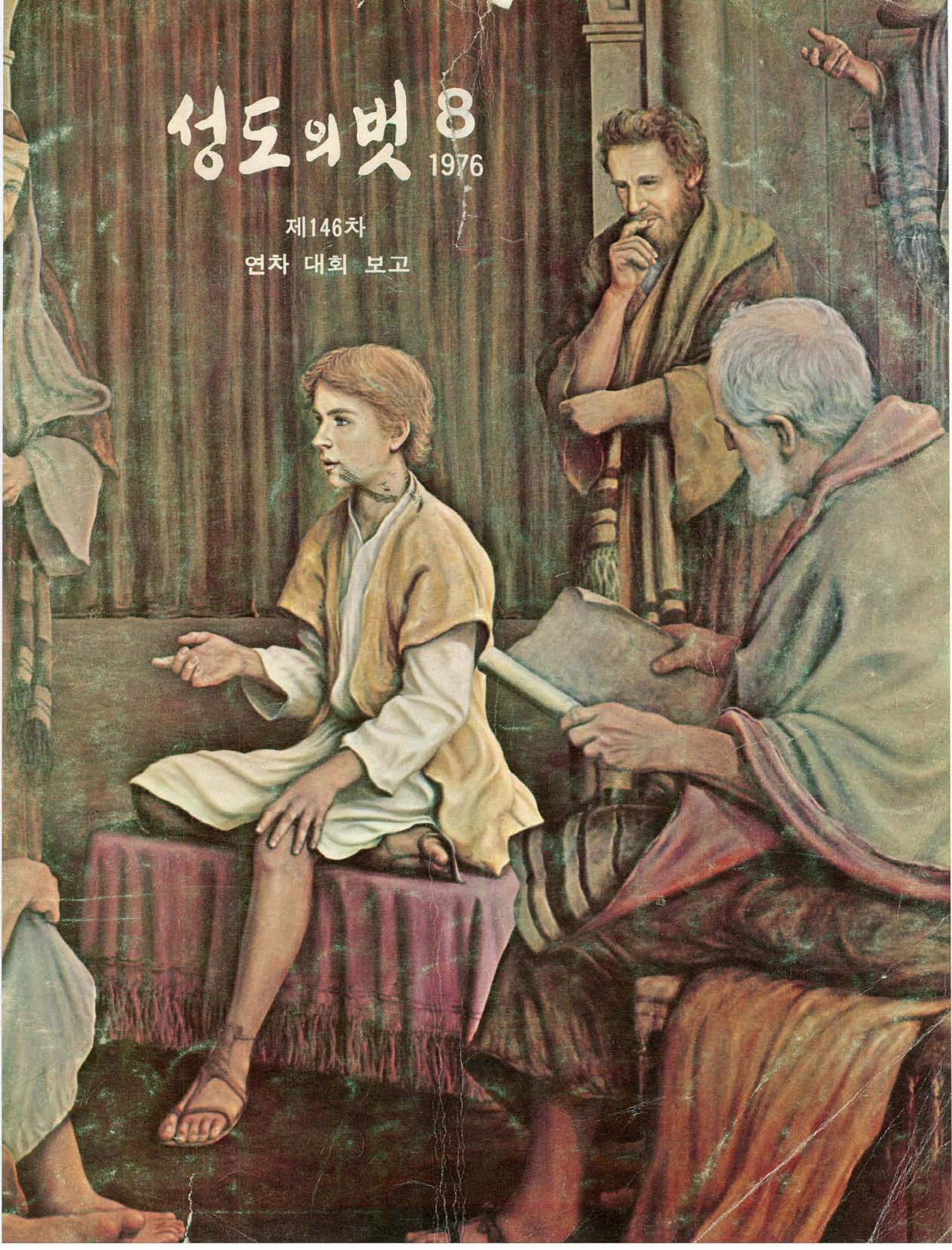


성도의 빛 8

1976

제146차

연차 대회 보고



성도의 빛

1976년 8 월호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 일

발행일 : 1976년 8 월 1 일

매월 1 일 발행

제12권 제 8 호

종근 133호

발행인 겸 편집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 화 :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수

표지 설명 : 그랜트 롬니 클로우스 형제
의 그림을 촬영한 사진. 현재 템플스케
어 방문자 센터 안에 벽화로 걸려 있음.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
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
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
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
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
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
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46 연차 대회 보고	1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2
절망의 새벽, 환희의 아침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9
레이맨인들은 반드시 위업과 권세를 지닌 백성으로 번성할 것입니다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 12
엘리아의 메시지	마크 이 피터슨 장로 14
1975년도 통계 보고	17
하나님의 아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18
세미한 소리	에스 델워스 영 장로 20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	존 에이치 반덴버그 장로 22
지혜의 말씀	디어도어 엠 버튼 장로 24
영적인 악어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26
신권—권능과 권세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29
“재물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프랭클린 디 리차즈 장로 32
신교 사업의 기회	칼로스 이 애시 장로 34
순종과 봉사를 배움	엘 러셀 벨라드 이세 장로 35
부름을 받아들임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36
지붕 위에서 외치라	제이콥 디오거 장로 37
여러분은 신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39
소년에게는 보다 가까이 지내는 영웅도 필요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43
이 땅의 하나님을 섬기면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46
가족간의 대화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50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조셉 비 워스틴 장로 53
네 가지 일	로버트 엘 심슨 장로 55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작품이다”	고든 비 힐클리 장로 58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엘 톰 페리 장로 61
살아계신 예언자	로렌 시 던 장로 63
예수는 누구인가?	엘드리드 지 스미스 장로 65
관계	더블류 그랜트 벵거터 장로 67
선택할 권리	헨리 더 테일러 장로 69
“무화와 나무에 표적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버나드 피 브루뱅크 장로 71
부활절 명상	델버트 에이 스테이플리 장로 73
인생 행로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76
경전의 가치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79
물론경	제임스 에이 컬리모어 장로 81
개인의 간증	조셉 앤더슨 장로 84
국민의 가치	찰즈 에이 디데이 장로 86
요셉 스미스—회복을 가능케한 위대한 예언자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 88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있습니까?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 92
신전 건립에 따르는 축복	애드니 와이 고마즈 장로 94
여러분은 회원 선교사입니까?	진 알 쿡 장로 96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98
영원한 부름 구함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100
복지 사업에 대한 교회와 가족의 책임	빅터 엘 브라운 감독 104
교회의 직업 알선 제도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107
식량 비축	본 제이 패더스토운 감독 110
말일성도 여성에게 자급 자족을 가르침	마바라 비 스미스 112
교회 복지 사업의 기본 원리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114
가족 예비 프로그램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117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판리 역원	120
표준 경전의 일부로 채택되어 값진 진주에 첨가된 시현에 관한 계시	122
여호수아와 태양이 정지한 전쟁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 표 3
어린이 페이지(책의 중앙에 있음) 나는 결심했다	I
조금만 천천히	II
대회를 맞으며	IV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46차 연차 대회 보고

1976년 4월 3, 4, 6일에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태버나클에서 개최된 연차 대회 말씀 및 순서

주님은 경전의 말씀에 “주의 뜻과, 주의 생각과,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성 68:4 참조)

1976년 4월 연차 대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두 가지 시현을 값진 진주에 포함시켜 공식적으로 교회의 표준 경전의 일부가 되게 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의 조치를 지지하고 승인하는 특별한 기회를 가졌다.

두 가지 시현은 1836년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받은 해의 왕국에 관한 시현과 1918년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받은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이다. 예언자 요셉 스미

스가 받은 시현은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들의 구원에 관한 것이며,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받은 시현은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때까지 영의 세계를 방문하신 것에 관한 것으로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총관리 역원들은 오늘날 이 두 가지 시현을 중요시하여 매우 강조하고 있는 데 이는 회원들로 하여금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요셉 스미스 2서:38) (시현에 관한 기사를 모두 알려면 124-126페이지를 참조한다.) 하는 일에 더욱 열성을 다해 참여시키기 위해서이다.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대관장

단 제1보좌인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은 두 가지 시현을 값진 진주의 일부로 포함시키게 한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의 조치에 대한 승인 지지를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에게 물었다. 태너 부대관장은 칠십년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새로 부름받은 네 명의 명단도 발표했다. 그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칼로스 이 애시 장로, 유타주, 프로보, 엠 러셀 벨라드 이세 장로, 현재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장,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아이다호주, 아이다호 폴스, 제이콥 디오거, 네델란드, 나이메이전, 이로써 총관리 역원 수는 모두 54명으로 늘어났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대관장 스펜서 더블류 킴블

다니엘의 예언대로 오늘날 전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우리는 솔트레이크시티의 템플 스퀘어에 자리잡고 있는 이 유서깊은 태버나클에 모여 세계의 중요 문제는 물론 교회 회원과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 3개월은 우리에게 가장 흥미있는 사건이 일어난 달이었습니다.

2월과 3월 중 며칠 동안 우리는 남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나라와 섬들을 두루 여행하였습니다. 몇 분의 총관리 역원을 포함해서 많은 교회 대표들이 남반구를 방문하여 급속도로 발전하고 개발 도상에 있는 남태평양의 지역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남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는 10여만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시티로 와서 연차 대회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 각 지역에서 지역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세 개의 대도시,

사모아, 통가, 피지, 타히티에서 성도들을 위해 대회를 가졌으며, 각 지역의 성도들은 대회에서 총관리 역원을 만나 보며,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역원 지지 행사를 갖고, 교회 총관리 역원들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열렬한 환영과 훌륭한 대접을 받고, 남태평양 지역에 거주하는 훌륭한 성도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마음 속에 간직하여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교회가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면 흥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66개국에 교회 회원이 살고 있으며, 이들 국가 중 대부분의 나라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의 수는 23,000명이나 되고 그들 중 각국의 성도로서 선교사로 복음을 전파하는 형제와 자매는 2,000명이나 됩니다.

1938년 내가 스테이크 부장을 역임하던 때 나의 관할 스테이크는 전세계에서 124번째로 조직된 스테이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750개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교 사업을 마쳤을 때 불과 20여개의 선교부가 있었지만 지금은 134개의 선교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광대한 세계의 많은 곳을 남미, 동양, 남태평양, 남아프리카, 유럽, 기타 지역의 성도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매년 수만 명이 자신의 영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으며, 교회 회원 수는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총관리 역원들은 항상 전세계의 각

지역을 여행하면서 교회의 새로운 회원에게 필요한 훈련과 가르침을 새로운 지역의 성도들에게 마련해 주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신전 사업이 크게 증대되었고, 16개의 신전에서는 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상파울루, 일본의 동경,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건립된다는 새로운 신전에 대한 소식이 이미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신전 사업을 계속 행하기 위하여 신전이 건립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들이 유실수를 재배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며, 보다 살기 좋은 환경으로 가꾸도록 지시한 우리의 권고에 잘 따라 이를 실천하고 있음을 매우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는 뒤뜰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어져 있고, 그곳에서 옥수수, 당근, 토마토, 양파, 호박 등을 재배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화원을 개조하여 채소밭으로 이용하거나 공터로 그냥 두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가내 경작에 관해 칭찬하고 싶은 일의 하나는 이웃끼리 서로 농작물을 교환하고, 우정 증진이 활발해지며 이웃간의 인정이 돈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 정원이 있고, 시골의 가정마다 적소 한 마리, 몇 마리의 병아리, 유실수 몇 그루, 정원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면 각 가정에서는 소유자로부터 나오는 산출물로 거의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은 물론 자녀들을 위해 노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지 사업을 행하려 하며, 복지 사업 농장이나 공장에서 생산에 관한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몇 시간을 바쳐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노동을 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한 그들이 가정과 논밭에서 행하여야 할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보잘 것 없는 집일지라도 집안을 말끔하고 깨끗이 청소하는 일을 그들에게 시켜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정원을 보살피는 책임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장시간 동안 텔레비전을 시청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 훨씬 유익한 일입니다.

어린이들은 한가한 시간을 너무 많이 갖게 되면 실증을 느끼고는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락에 필요한 값비싼 물건을 자꾸만 원하게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논밭에서의 책임을 분담하여 일하는 노동의 존엄성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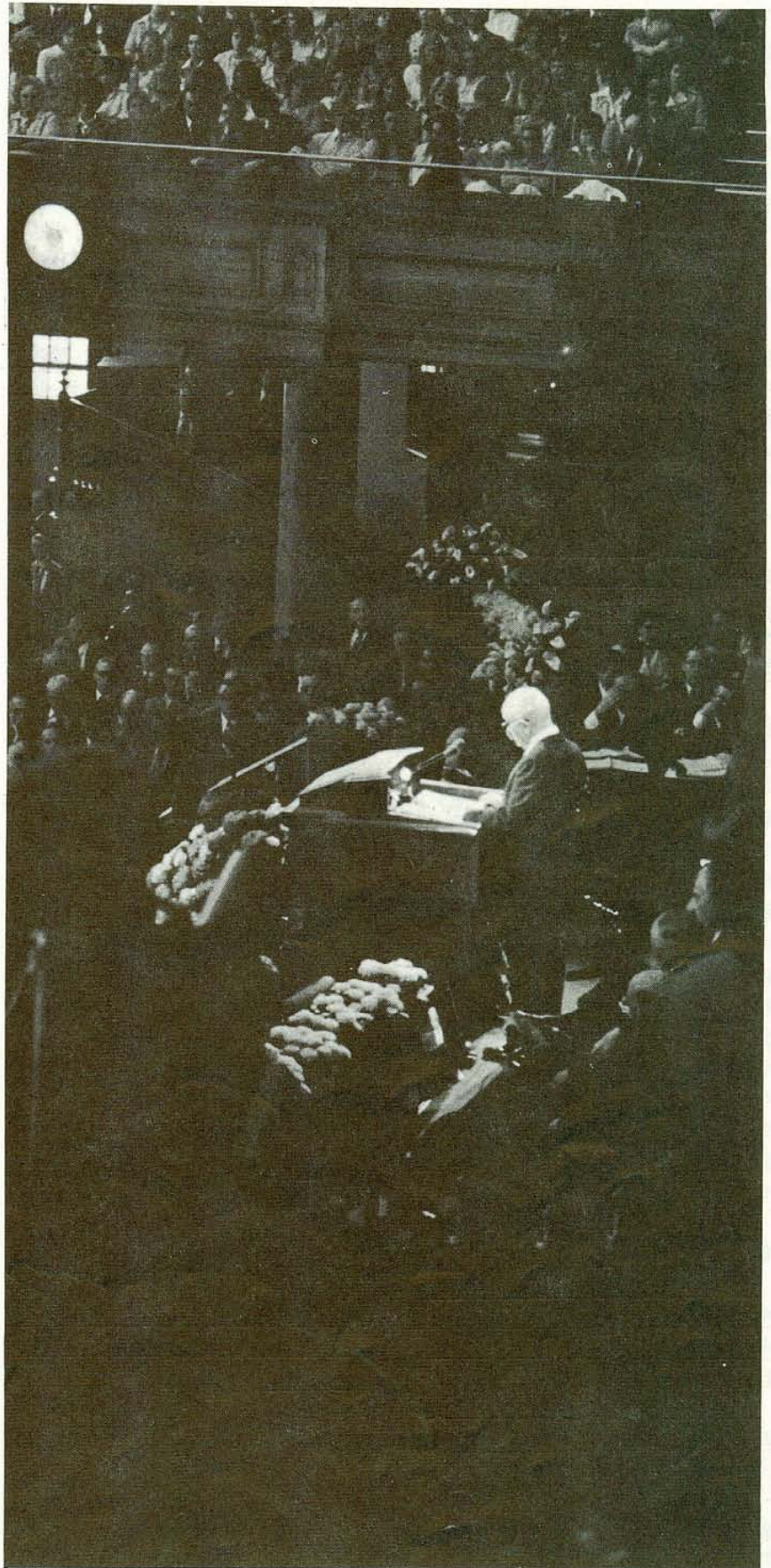
“나는 자신이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운 돼지 고기와 버터를 바른 빵 등을 주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곡식을 경작하고, 과실을 얻게 하고, 주거지를 마련하게 하며, 상자를 만들 몇 개의 판자를 구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추수를 하여 곡식을 거둘 때, 우리는 1년치, 2년치, 5년치 또는 7년치 식량을 비축할 때까지, 성도들이 빵을 만들 수 있게 충분한 밀을 비축하며 안전한 처소를 찾기 위해 이곳으로 오게 될 자들이 밀을 충분히 저장할 때까지 우리는 밀을 비축하고 절약하여야 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은 계속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어떠한 물건일지라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유있게 행동하시고 침착하십시오. 무엇이든 주워 모으되, 절대 물건을 낭비하지는 마십시오...

“분별있게 행동하시고 모든 것을 절약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남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주어 그들을 돕는 데 그것을 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빵을 넉넉하게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빵 껍질과 부스러기를 내버리게 하여도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수백만 부셀의 밀과 옥수수를 재산으로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집의 여종이 한톨의 밀을 쏘아서 불에 태워 버리게 할 만큼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톨의 밀이라도 그것이 식용으로 쓰이도록 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여 밀이 재배된 목적을 성취하게 하십시오. 그 사실을 명심하여 어떤 것일지라도 절대 낭비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잘 간수하십시오.



연단에서 말씀하시는 킴블 대관장님

“이 도시에는 2명, 3명, 4명 또는 5명의 식구가 있는 가정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식탁에 떨어진 음식, 어린이들이 낭비하는 음식, 불태워 버리고 집 밖으로 끌어 내어 버리는 음식 찌꺼기 등을 많이 모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이러한 것으로 돼지를 사육하여 일년 치나 적어도 당장에 먹어야 할 분량의 돼지 고기를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은 방문하여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필요한 교과서를 구입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헌 옷들을 매년 버리고 있고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이 낭비하고 있음을 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절약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돈 벌이를 합니다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이롭게 돈을 절약하고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 주시기 위해 마련해 놓으신 권세와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중한 성격, 검약한 정신, 판단력을 주시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곡식을 비축하고, 가축을 보존하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며, 집과 토지를 유지하고 그러한 것들을 증대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더우기 개인으로서 자신을 위해 전체로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계속해서 능력과 영향력을 기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메저렛 출판사, 1966년, 291-92페이지)

브리감 영 대판장은 빛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빛을 갇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빛을 갇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빛을 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즉시 모든 일은 행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빛을 갇으십시오.”(설교집, 303페이지)

우리는 빛 청산을 하라는 것에 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는 소비와 월부 구입을 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내년

에 지불하기로 하고 미리 물건을 사들이도록 권장받고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9편 35절에 보면, 1830년에 주님은 마틴 해리스에게 다음 계시를 주셨습니다. “인쇄업자에게 진빛을 청산하여 속박에서 벗어나라.”

“빛을 지게 되는 자로서 다시 그 빛을 갇으려는 계획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규칙이 잘 제정되어 있는 사회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빛을 갇을 재물이 있는데도 정직하게 빛을 갇지 않으려 하는 자는 말일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월수에게서 빛을 얻고 다시 갇지 않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이며, 이같은 행동은 개인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친구로부터, 특히 가난한 자로부터 빛을 얻은 자로서 빛을 갇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성도들과 우정을 나눌 수 없는 자들입니다.”(설교집, 303-4페이지)

이혼 승인에 관한 공문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이혼의 원인은 남편의 재정적인 무책임과 남편과 아내의 서투른 금전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신청자는 아내가 남편의 불성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에게 절대 불성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들들 그들은 어려운 재정 문제를 갖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족한 수입을 고려하여 알뜰하고 규모있게 가계를 꾸려 나갔던들 여전히 아무런 파탄도 없이 서로 행복하게 생활하였을 부부였습니다.

지난 대회에서 우리는 가계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가계를 규모있게 계획하면 많은 가정 불화와 오해가 없어질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 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눅 6:46)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총관리 직원들이 대회마다 똑같은 주제로 말씀하시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수 세기에 걸쳐 성역을 베풀어 온 예언자들의 말씀이 대단히 명확하게 표현

되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엘마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죄와 악은 영원토록 증오를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려 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가르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앨 37:32-33)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씨를 예찬합니다. 우리는 백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모든 악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앨 37:33) 가르치려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선행을 그치지 않게”하도록 가르칩니다. (앨 37:34)

예언자들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똑같은 문제에 당면하고 있으므로 한결같이 같은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항구에 들어 오는 각 선박을 인도하기 위해 각기 다른 신호를 보내는 등대가 있다면 그 등대야말로 보잘 것 없는 등대인 것이며, 안전한 등산로를 알고 있는 등산 인도자가 등산객들이 되돌아 오지 못하는 예기치 않은 위험한 길로 그들을 인도함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다면 그야말로 서투른 등산 인도자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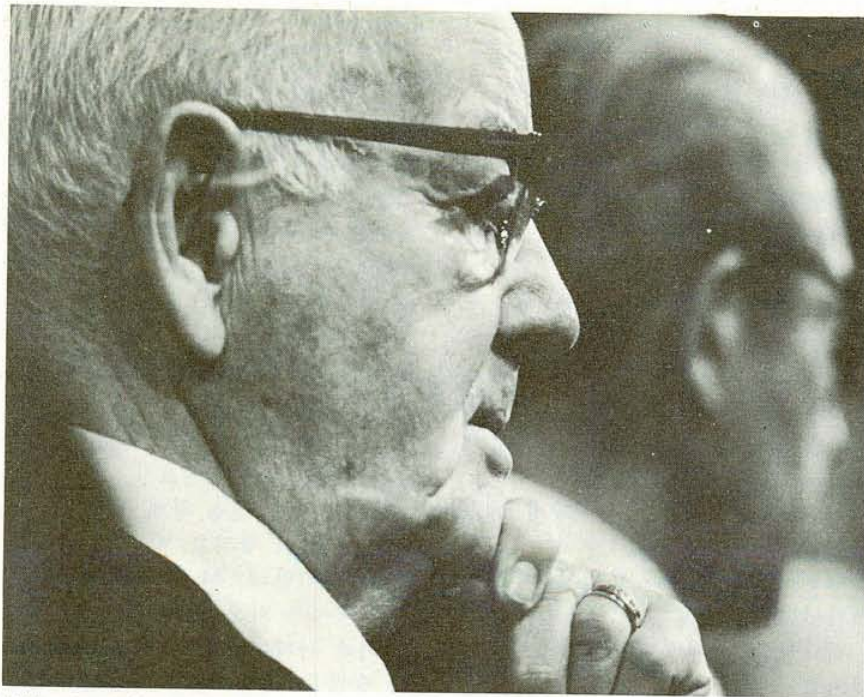
오늘 나는 전세계의 모든 백성에게 구원과 승영에 관한 교리가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공부하도록 권고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나는 오늘 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마음과 참 뜻을 갖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문자 그대로 오늘날 지상에 회복된 하나님의 왕국임을 선언합니다.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는 그의 부름을 받아 성스럽게 지지받고 임명 받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종들 중 지극히 낮은 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 아름다운 산꼭대기에서 나의 음성을 높여 일반적으로 “몰몬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롬 1:16 참조)을 가진 교회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진실로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스스로 회복된 복음을 공부하기로 결심한



김בל 대관장님의 옆 모습

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같은 결심은 여러분에게 계시로 밝혀진 복음의 진리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갖게 해 줄 것이며, 영성을 기르고 사랑과 평화를 심어 발전시키는 방법을 수없이 제시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보다 잘 아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질문 곧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왜 지상에 살고 있으며, 또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속하게 하는 합당한 칙례는 영원한 왕국에서의 승영에 이르는 관문을 열어 줍니다. 그러나 승영은 회개와 의로운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웃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세계는 물론 지상의 모든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인은 서로 한 형제라는 사실을 선언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으며, 그리하여 그의 성스러운 희생이 만인을 위한 속죄 값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어 오늘날에도 살아 계시며,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지상에

있는 그의 왕국의 사업을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하여 공부하여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서 성역을 베풀었던 자들의 뒤를 계승하였다고 주장하는 종교도 아닐 뿐 아니라 신교의 하나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지상에 다시 회복된 그리스도의 왕국에는 그리스도의 초대 교회와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예언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이”(신앙개조, 제6조)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회복된 교회에 관해 공부하시면서 교회에는 회복된 성신권의 권세와 권능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 성스러운 권능에 의해 구원을 위한 복음의 의식이 집행되고, 현세와 영원을 위하여 결봉됩니다. 나는 이 사실을 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른바 물론 교회가 강한 영향력을 미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교회요, 참으로 생활의 모든 분야 즉 생의 모든 면에 관한 삶의 방법을 가르치는 교회임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선교에 역점을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현재 23,000여 선교사가 전세계의 각처에서 아낌없이 그들의 시간과 돈과 재능을 바쳐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전세계의 모든 백성들 곧 천주교와 신교를 믿는 기독교 국가들의 백성은 물론 힌두교, 불교, 모슬렘교, 유대교를 믿는 국가의 국민들과 시온 주의자와 유교 신자 등 모든 민족과 모든 종파의 신자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백성들이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주시도록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듣게 될 메시지 중에서 현세는 물론 내세까지 여러분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그토록 크게 미치는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참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받게 될 보상은 아주 값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너희 왕국을 받은 나의 교회의 백성들아,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여러 하늘과 그 모든 천군을 만드시고 살아 움직이며 실재하는 만물을 지으신 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거듭 말하거니와 죽음이 너희를 몰아치지 않게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생각지도 않는 사이에 시간이 흘러 여름이 가고 추수가 끝나도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리니,

“아버지와 너희 사이의 변호인으로 아버지께 호소하는 이의 말을 들으라.

“이같이 나는 나의 영원한 성약을 세상에 보내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고 나의 백성과 이를 구하는 이방인을 위한 기가 되게 하고 또 나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내 앞에서는 사자가 되게 하였느니라.”

“그런고로 너희는 이 빛으로 오라. 옛날 사람과 더불어 한 것처럼 나아오는 자와 더불어 이치를 논하겠고, 너희에게 확고한 논거를 제시하리라.”

(교성 45 : 1-3, 9, 10)

이 교회는 회복된 교회이며,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는 이 왕국을 건설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초기 즉 역사가 시작된 무렵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역사상 이 중요한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600년이나 700년 전이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다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내 보일 적절한 시기라고 여기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갔습니다. 포로들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표준을 지켰으며, 왕과 그의 백성들과 술을 마시기를 거절했습니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심배나 나은줄을 아니라”(단 1 : 20)

느부갓네살왕은 꿈을 꾸고는 박수와 술객과 술사에게 명하여 꿈을 상기시키고 해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즉 그들이 꿈과 그 해석을 왕이 알도록 해주지 못하면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는 자 중에서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왕에게 확신시키려고 한동안 간청을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은 이러한 간청을 듣고 진노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죽이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영감을 받은 다니엘은 왕에게 간청하기를 기한을 정해 주면,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하여 드리겠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의 다니엘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단 2 : 19)

다니엘은 영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바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

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단 2 : 20—23)

밝혀진 미래의 일을 알게 된 다니엘은 점장과와 박사를 살려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인도되어 왕에게서 다음 질문을 받았습니다.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단 2 : 26)

다니엘은 대답하여 이르기를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단 2 : 28)

다니엘은 왕에게 왕의 꿈이 세계의 역사를 묘사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꿈에는 큰 신상 하나가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열마는 철이요, 열마는 진흙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꿈을 하였습니다. (단 2 : 32-33 참조)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매”(단 2 : 34)

그때에 신상의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곳이 없었”습니다. 부셔진 신상의 물질은 바람에 불려 없어졌으며,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단 2 : 35)

그 꿈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왕은 열왕의 왕으로 상징되었으며, 정금으로 된 신상의 머리는 그의 강대한 세계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국이 세워져 세계를 지배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꿈의 해석에는 이외의 다른 왕국의 지배에 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대와 바사를 통치하던 고레스왕은 회람에 의해 또는 빌립과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마케도나 왕국에 의해 대치되리라 하였으며, 회람과 마케도나 왕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 무너지리라 하였고, 다시 로마 제국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 의해 멸망되리라 하였는데

이들 유럽의 여러 나라는 신상의 발가락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세계사가 묘사된 중요한 계시를 하였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 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단 2 : 4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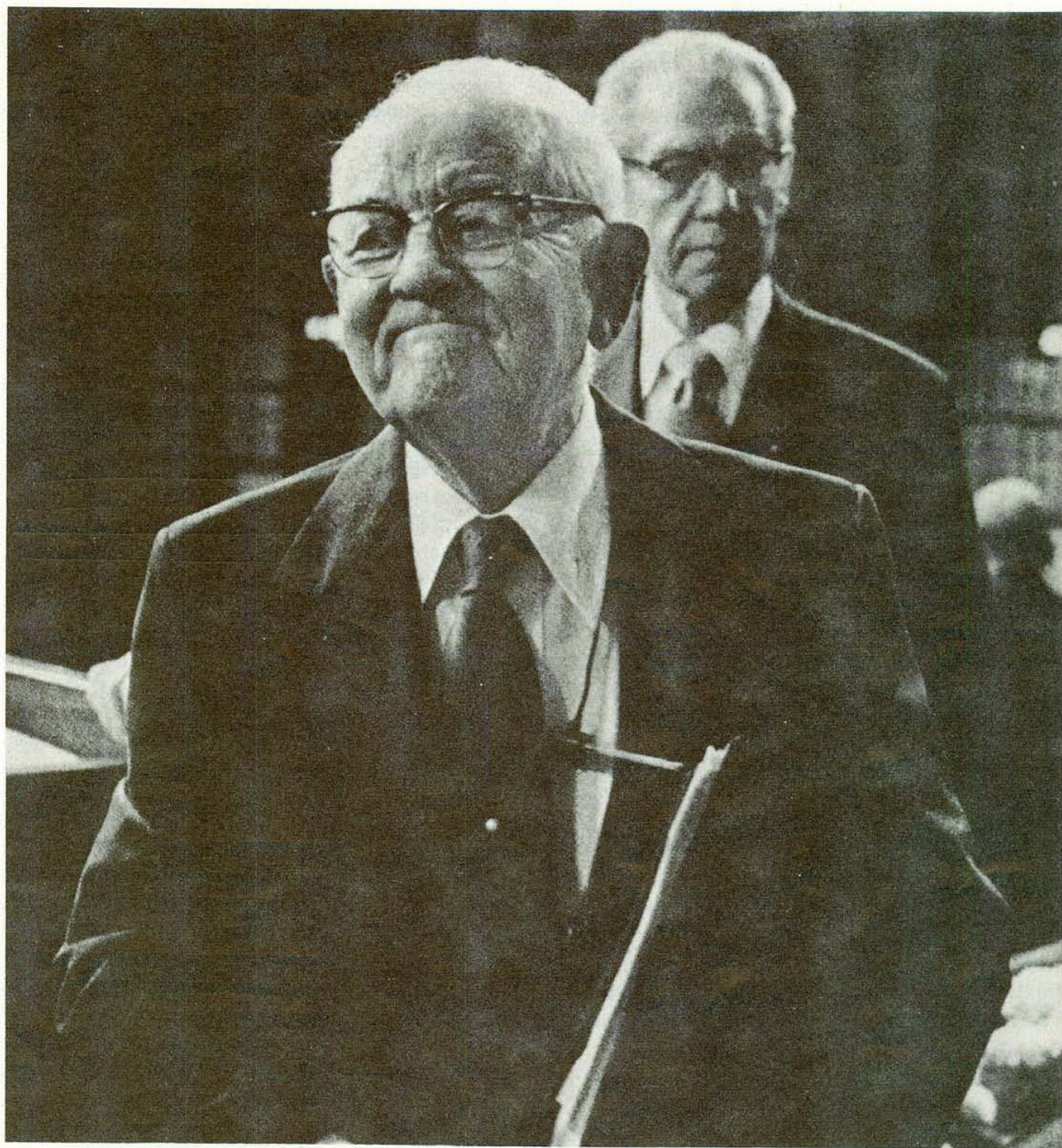
이 계시는 바로 하나의 강대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되어 결국에는 수많은 작은 왕국이 생겨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곧 세계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열왕의 시대에는 인간에게 권세가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 가지도 아니할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 세우리라고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많은 계시가 있는 후 1830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대치되지도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우시리라고 하신 바로 그 왕국이고,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여져서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리라던 바로 그 돌로 상징되었던 교회입니다.

역사가 펼쳐지면서 세상에는 여러 나라가 세워져 한동안 세상을 지배해가는 멸망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초에 드디어 그날이 이르렀습니다. 미대륙이라는 신세계가 발견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한 국가로서의 독립이 쟁취되었고, 헌법이 승인되었으며, 국민들은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진리가 확립되어 널리 전파되게 할 만큼 계몽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왕이나 많은 통치자도 이같은 역사를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젊고, 순결하고 합당한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었



앞쪽 김대중 장관님, 뒷쪽 태너 부대관장님

입니다.

이같이 세계사를 미리 제시로 나타내 보인 것은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을 기대하게 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서 이 경륜의 시대를 기대하게 한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평범하고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일어났습니다. 영감받은 14세의 소년은 다만 경전을 통해서 미래의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나무로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께 기도를 드려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복음과 더불어 모든 영원한 권세가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던 사탄이 자기의 능력으

로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하여 소년을 멸하여 버리고 복음의 회복의 가능성을 없애려고 시도하였는데도 이 순결하고 탐구심이 많은 소년에게 장엄하고 위대한 시현이 열렸습니다. 소년이 온 힘을 기울이고, 주님의 힘이 미친 결과 어두움은 사라졌습니다. 사탄은 굴복하였고, 마침내 소년의 머리 위에 빛 기둥이 내려 오는 시현이 나타났습

니다. 시현 속의 빛 기둥은 햇빛보다 더 밝았으며, 점점 소년의 머리 위로 내려 왔던 것입니다. 소년 요셉은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빛 기둥이 나타나자마자 나는 나를 결박했던 힘으로부터 풀려났음을 깨달았으며, 그 빛이 내 위에 머무렀을 때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 2서 : 17)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식적으로 그의 아들을 소개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되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질문을 여쭙어 그 답을 들었고, 영원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소년 요셉은 자기가 할당하고, 주님 앞에서 흠없이 생활한다면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의 회복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흠없고 순결한 소년 요셉이 성장하여 성인이 됨에 따라 잇달아 하늘 사자들의 성역이 베풀어졌습니다. 위임에 관한 일이 행하여졌고, 권능이 부여되었고, 지침이 주어졌으며 하늘로부터 계속 계시가 내려졌습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충만한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곧 다른 하늘 사자들이 방문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왕국과 신권과 영원한 축복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젊은 요셉에게 나타나 그들이 지상에서 가졌던 권세와 권능을 회복하여 주었습니다.

헤롯에 의해 교수형을 받아 죽었으나 지금은 부활하여 있는 침례 요한은 지상에 다시 와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안수하여 그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했습니다.(교성 13편 참조)

고대의 위대한 지도자요, 해의 왕국에 들어 갈 자인 모세는 지상에 또 다시 와 이스라엘 백성을 집합시키는 열쇠를 회복하여 주었습니다.(교성 110

: 11 참조)

죽은 자를 위한 영원한 사업을 경고한 예언자 엘리야도 역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은 자들에게 복음의 회복의 효력이 미치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요한 신전 사업이 행하여지도록 길을 예비하려고 지상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교성 110 : 13 참조)

교회 조직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제 외에는 이 교회 안에서 아무도 계명과 계시를 받도록 임명되지 아니하리라. 이는 저가 모세처럼 계명과 계시를 받음이니라.”(교성 28 : 2)

모로나이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미대륙에 살았던 리하이의 백성들과 땅 속에서 드러나 번역될 물문경에 관하여 설명했습니다. 이 책은 미대륙을 방문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고,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또 한 이 물문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같은 성취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규칙에 규칙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교성 98 : 12) 나타내졌고, 진리는 회복되었으며, 권세와 권능이 부여되었고 또한 2,500년 전 다니엘이 보았던 하나님의 왕국을 조직하는 데 필요한 빛과 사람들이 점점 충분히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교회는 회원 수가 6명뿐인 작은 교회여서, 실로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여 모든 다른 나라를 부수뜨리고 굴러 온 세계를 가득 채우리라던 작은 돌에 비길 만한 것이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작은 왕국의 앞날에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언자와 성도들이 살해되었고, 핍박과 주방의 소동이 일어났으며, 이로써 급속도로 발전하던 작은 교회는 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서부로 향한 대이동이 계시로 진행되어 서부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환란을 당했습니다. 유혈을 감수해야 했으며, 굶주림으로 생명을 잃어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작은 돌은 온 땅을 가득 채우기 위해 지금도 굴러 가고 있습니다.

23,000명의 젊은 선교사는 각 나라에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복음은 온 세계에 가득해지도록 지상의 각 나라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나라와 언어가 다른 수많은 백성들이 현재 각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은 늘어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다니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설”(단 2 : 44) 것임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간증을 드리는 바입니다.

많은 계시를 통해 교회 회원들은 복음의 의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생활함으로써 그들의 목표인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뽐내거나 세상적인 교만한 태도를 갖지 아니하고 참마음과 사랑으로 이 진리를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사랑의 선물은 값없이 얻을 수 있는 복음이요, 진리의 복음이요, 구원과 승영의 복음입니다.

나는 이 복음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복음임을 압니다. 나는 이 복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작은 돌로 상징된 것임을 압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시고 명하신 대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지상의 마지막 때인 그의 임종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열한 사도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 : 15 참조) 즉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이 진실로 아담의 때로부터 시작하여 다니엘의 시대로, 요셉의 시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전해 내려 온 것임을 압니다. 나는 이 복음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복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값없이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복음의 교훈에 따라 충실히 생활하면 영생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절망의 새벽 환희의 아침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주님은 슬픈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둠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시어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진리를 주셨습니다.



소장되어 있는 절작 하나는 나의 관심
은 물론 내 마음마저 사로잡았습니다.
화가인 프랭크 브래리는 바람이 휘몰
아 치는 바다를 향하여 서 있는 초라
한 오두막집을 그려 놓았었습니다. 한
노파의 옆에는 슬픔에 싸인 젊은 여인
이 선원인 남편을 잃고 애통하며 꿇어
앉아 있었었습니다. 창틀에 있는 다 타버
린 양초의 흔적은 그 여인의 헛된 밤
새움을 말해 주는 듯했습니다. 폭풍이
불던 밤이 지나간 후 남아 있는 것이
라고는 거대한 먹구름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여인의 고독과 절망을 절실
히 느꼈습니다. 화가는 비극의 이야기
를 묘사한 그의 작품에 머리에서 떠나
지 않고 생생히 떠오르는 제목을 붙여
두었습니다. 그 작품에는 절망의 새벽
이라고 써어 있었었습니다.

그 젊은 미망인이 얼마나 애티게 위
로를 받고 싶어했겠습니까! 참으로 그
여인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진
혼가”에 나오는 다음 구절이 현실이거
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겠습니까!

“선원은 바다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사냥군은 산에서 집으로 돌아온다.”

사랑하던 사람을 잃어 버린 그 여
인은 물론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새
벽은 절망을 안겨 주는 때입니다. 죽
음을 종말로 생각하고, 불사불멸을 한
날 꿈으로만 여기는 자들의 경험이 바
로 그렇습니다.

유명한 과학자인 쿼리 부인은 파리
의 노상에서 생긴 사고로 사망한 그녀
의 남편 피에르 쿼리의 장례식이 집행
된 날 밤에 귀가하여 그녀의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흙으로 덮고, 그 위
에 꽃다발을 놓았다. 모든 것은 끝났
다. 남편은 땅속에 묻혀 마지막 잠을
자고 있다. 그것은 모든 것, 참으로
모든 것의 종말이다.”(빈센트 위언 역,
쿼리 부인: 이브 쿼리의 자서전, 뉴욕
가든 시티: 가든 시티 출판사, 1943년
249페이지)

무신론자인 버트랜드 러셀은 그의
유서에 “어떠한 정열, 영웅적인 자질,
고결한 사상과 감정도 인간의 생명을
무덤을 넘어서까지 보존시켜 주지 못
한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독일의 철학자요 염세주의자인 쇼펜하
우어(1788—1860)는 그보다 더 혹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사불멸을 바
라는 것은 이른바 ‘삶’이라 여기는 영
속적인 영원을 바라는 것이다”라고 썼
습니다.

실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
구나 만인이 공동으로 품고 있는 의문
을 자문해 봅니다. 이 의문은 존경
받을 만하고 온전하며 의로운 읊이
수세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
시 살리이까”(욥 14: 14)라고 질문함
으로써 가장 잘 표현되었습니다. 읊은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아 자신의 질문
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써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히 돌에 새겨졌
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
이다.”(욥 19: 2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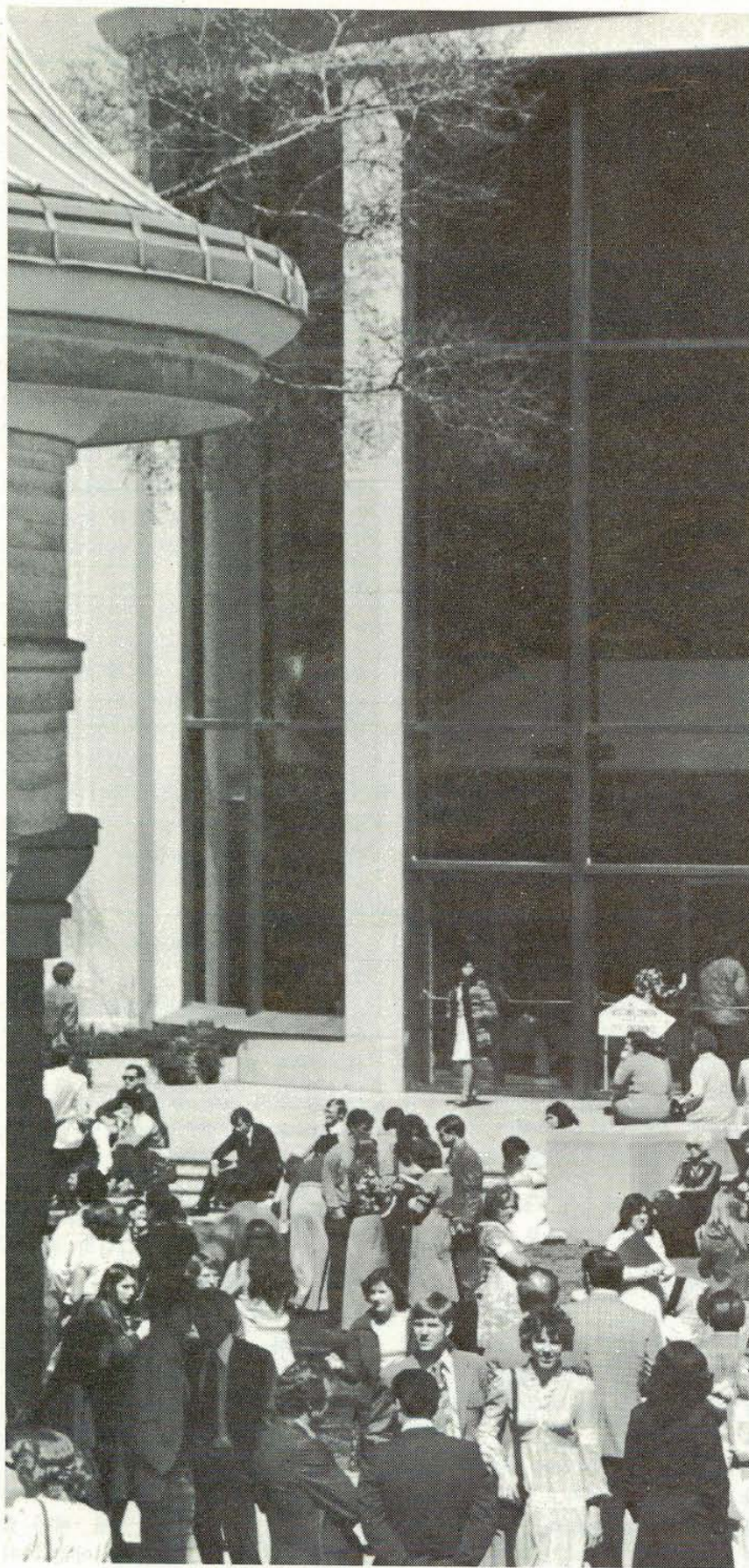
그리 많이 나와 있지 않으나 경전의
말씀은 고린도 성도에게 보낸 사도 바
울의 편지에 나오는 “아담 안에서 모
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 22)는 말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히 나타내 줍니다.

종종 죽음은 침입자처럼 불시에 찾
아 옵니다. 그것은 인생의 축제가 한
창 진행되는 황금기에 나타나 생의 밝
은 빛과 즐거움을 앗아가 버리는 적입
니다. 죽음은 노인들에게는 비틀거리
며 걷는 노년기에 찾아 오기도 합니
다. 죽음이 부르는 소리는 생의 여행
을 절반쯤 한 사람들이 들을 때가 있
으며, 때로는 죽음이 작은 어린 아이
들의 웃음 소리를 그치게 합니다. 이

하
나님의 예언자인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의 말씀 순서 다음
에 이 연단에 서게 된 것을 참으로 영
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나는 대관
장님의 선조의 땅인 영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런던은 역사로 가득 차 있는
도시입니다. 트라팔가 광장, 버킹검
궁전, 영국 국회 의사당의 시계탑, 웨
스트민스터 사원 또는 테임즈강에 관
해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이 있겠습
니까? 또한 이러한 명소만큼 유명하
지는 않으나 귀중한 값어치를 지니고
있는 매우 웅장한 미술관이 여러 개나
이 문화의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흐린 겨울날 오후에 나는 유명
한 영국 국립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나는 게인즈버러(1727—1788)의 풍경
화, 렘브란트(1606—1669)의 초상화,
존 콘스터블(1776—1837)의 폭풍우를
물고 오는 구름을 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3화랑의 조용한 구석에



모임이 끝난 후 휴식 중인 성도들. 왼쪽 건물 태버나클, 오른쪽 방문자 센터

따금 죽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찾아 와 우리에게 좌절감과 회의를 안겨 주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심한 고통을 겪는 질병에 걸려 있을 때에는, 죽음은 마치 자비의 천사처럼 찾아 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죽음이란 인간의 행복을 앗아가는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과부의 비참한 상태는 경전에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사르밈의 과부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녀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가진 식량은 다 떨어졌습니다. 굶주림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예언자인 엘리야가 나타나 그녀의 신앙 때문에 그녀에게 하늘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인의 과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어 버리고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그녀는 한결같은 신앙과 열심히 드린 간절한 기도로 하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녀에게 되돌아 와서 그녀의 귀한 아들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큰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생을 겪고 있는 과부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까?

이 태버나클에서 가까운 곳에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잘 생긴 아들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자매는 각기 사랑하는 남편과 더불어 편안히 건강을 누리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냉혹한 죽음의 귀신이 그들의 가정을 엄습했습니다. 둘 다 처음에는 아들 하나를 잃어 버렸고 그 다음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이 방문하였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위로를 받았지만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상한 마음은 그대로 계속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온둔할 장소를 찾으려 노력하였고, 마침내 은둔처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세계와 단절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외로이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그대로 지냈습니다. 그때 말일의 하나님의 예언자가 그들을 찾아 왔습니다. 예언자는 두 자매를 잘 알고 있었으며, 주

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그들의 비참한 불행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롤드 비 리 대판장은 바쁜 일이 쌓여 있는 사무실을 떠나 외로운 과부들이 거주하고 있는 옥상 주택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과 인류를 위해 봉사하도록 그들에게 부름을 주었습니다. 두 자매는 각기 눈을 밖으로 돌려 다른 사람들의 생애를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했습니다. 괴로움 대신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과부들을 잊지 않으셨으며, 예언자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어둠은 밝혀진 진리의 빛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 11 : 25-26)

우리를 안심시켜 주는 이 말씀 곧 죽음을 넘어서도 계속되는 삶에 대한 성스러운 확신은 구세주께서 약속해 주신 평안이라 함이 좋을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하지도 말라”(요 14 : 27)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 : 2-3)

어둠과 공포로 싸인 갈보리 언덕에서 어린 양의 음성이 다음과 같이 들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 : 46) 어둠은 벌써 어두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되돌아 가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이 지상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 가는 자들도 축복받은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서는 그에게 의지하는 그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에 찾아 온 밤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빛보다 더 좋고, 이미 알고 있는 길보다 더 안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미니 루이스 해스킨즈 “하나님은 알고 계심”에서 인용함.)

순교자 스테판은 부활의 진실성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행 7 : 56)고 외쳤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여 승영에 이르신 그리스도에 관한 시현을 보았습니다. 후에 바울이라고 불리운 그는 진리의 수호자로서, 또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두려움을 모르는 선교사로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간증을 드렸습니다. 그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전 15 : 3-8)

이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담대하게 이와 똑같은 간증을 드렸습니다. 예언자와 시드니 리그돈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또 이 어린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 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성 76 : 22-24)

이 지식이야말로 힘을 복돋아 주는 것이며, 이 진리는 위안을 안겨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리는 슬픔에 잠겨 기가 죽어 있는 자들을 어둠에서 이끌어 내어 빛으로 인도해 주는 확신에 찬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연로자나 지식인이나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몇년 전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발행되고 있는 여러 신문에 나와 친밀하게 지내던 어느 친구의 부인에 관한 사망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친구의 부인은 그녀의 생애에서 가장 좋은 때에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나는 시체 안치소를 방문하여 모여 든 많은 조객들과 함께 허탈함에 잠겨 있는 친구와 어머니를 여원 자녀들을 위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막내인 켈리가 나를 알아보고는 내 손을 잡더니 “이리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자기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시체가 있는 관까지 안내하여 준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아요. 아저씨도 울지 않으실 거예요. 엄마는 여러 번 죽음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삶에 대해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곤 했어요. 저는 엄마와 아빠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함께 만나게 될 거예요.” 이때 내 마음 속에는 시편에 나오는 “어린 아이 ...임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어...”(시 8 : 2)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눈물이 글썽해진 눈으로 나의 어린 친구요 신앙심 깊은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를 보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쥐고 그녀에게는 절망의 새벽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굳건한 간증으로 견디고, 무덤을 지나서도 삶이 계속되고 있는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 그녀의 친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온 세상에 다음과 같이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찌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 30 : 5)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은 “부활의 첫 열매”(고전 15 : 20)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망의 새벽을 환희의 아침으로 바뀌게 하는 밝은 빛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레이맨인들은 반드시 위엄과 권세를 지닌 백성으로 번성할 것입니다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장로
십이사도 보조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에서의 현저한 교회 발전은 예언의 성취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연차 대회의 개최사를 하신 예언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서 나는 수년에 걸쳐 여러 예언자들이 주신 영감의 말씀과 지시로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이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의 예언이 수록된 책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하고 충만한 복음을 통하여 “말일성도들이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의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레이맨인이 포함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 2 : 357)

회복된 교회의 십이사도 평의회가 1845년에 발표한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남미와 북미의 레이맨인들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선조와 충만한 복음에 관하여 알게 될 것이며, 복음을 받아들이어 이스라엘의 집의 의로운 가지가 될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십이사도 평의회 선언문, 뉴욕, “예언자”, 1845년 4월 6일, 3페이지)

브리감 영 대관장은 레이맨인들의 개심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마치 불꽃처럼, 거대한 격류처럼 또한 천사들의 대행진처럼 일어남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예기하십시오.” (청녀 일지, 1890년 5월, 263페이지)

존 테일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방인의 나라에서 집합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처럼 리하이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신권 조직이 똑같이 소개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에이 캐링턴에게 보낸 편지, 리버풀, 1882년 10월 18일)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미래를 내다보시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은 반드시 발전하고 번창할 것입니다. 레이맨인들은 산위의 장미처럼 번성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관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며, 그들은 곧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부여되는 날이 이를 것이요, 그 날에는 한 백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설교집, 15 : 282)

오늘날 우리는 살아 계신 예언자인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레이맨인들은 반드시 위엄과 권세를 지닌 백성으로 번성할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47년 10월, 22페이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은 1947년 10월 3일에 대관장님이 하셨는데 그 당시 중앙 아메리카에는 회원 수가 채 100명도 되지 않았고, 멕시코의 넓은 땅에는 5,000명 미만의 회원들이 있었으며, 이들 중 절반은 물론 이주민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레이맨인들은 반드시 위엄과 권세를 지닌 백성으로 번성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대관장님이 이 예언을 하셨을 때 불과 100명도 없었던 중앙 아메리카에는 오늘 현재 4만여 회원이 불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멕시코에는 채 5천 명이 되지 않았으나 이미 추수가 끝난 무르익은 밭에는 15만여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1947년도의 총 회원수는 오늘날 2개월 동안 입교하는 개종자의 수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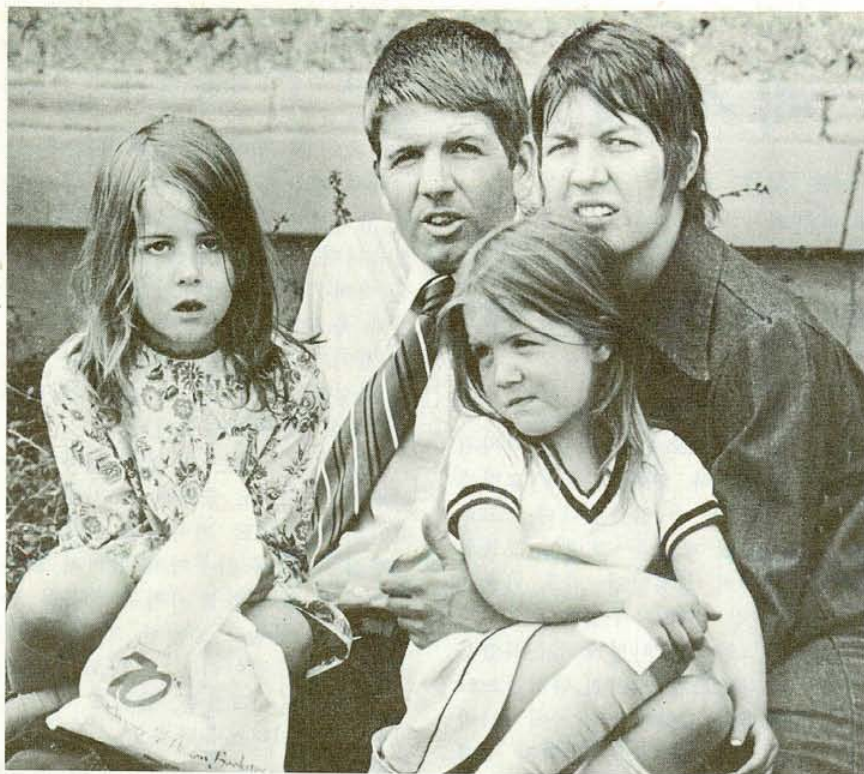
킴블 대관장님은 계속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경제적 안정, 문화, 교양, 교육 등의 혜택을 받게 되고, 또한 그들이 농장을 경영하고 사업을 행하며 산업을 운영하고, 전문 직업에 종사하고 교편을 잡게 되는 날이 꼭 오리라는 것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같은 책, 같은 페이지)

1947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성도로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를 한 손의 다섯 손가락으로 헤아리고도 남을 정도였으며, 자동차를 소유한 자나 현대 문명의 이기를 갖춘 가정의 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그들이 농장을 경영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스테이크 부장은 닭 40만 수를 기르는 농장을 현재 일곱 개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또 “그들이 사업을 행하며 산업을 운영하고, 전문 직업에 종사하고 교편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소개하여 드리는 드리는 목록에는 멕시코시티에 있는 스테이크



연차 대회에 참석한 말일성도 가족

부장단, 고등 평의원, 그리고 감독의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가, 변호사, 기사(농경학, 생화학 기계학, 항공학, 석유, 지질학, 인문, 전기학 등 제분야의 기사), 내과 의사, 외과 의사, 소아과 의사, 치과 의사, 간호원, 경영 책임자, 재단사, 목수, 건축 청부업자, 교사, 육영 사업가, 자동차 공학, 기계 수리공, 철공, 보험 중매인, 농부 이외에 평범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을 다 채우면 거의 한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최대 제련소의 하나의 발생지는 고대 톨텍 민족의 조각이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현재 산과 계곡을 지나 수백 마일이나 떨어지게 될 송유로의 복개공사가 착공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시에 편의를 제공해 주기에 충분한 발전소가 고대의 문명의 폐허 옆에 하늘을 찌를 듯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 고대 문명은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평화의 정상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단결하여 시온의 스테이크와 와드

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책, 같은 페이지) 어떤 때는 하루에 15개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습니다. 또한 스테이크로 조직되기 위해 마무리 작업과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에서 오신 형제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제님들은 31개의 스테이크와 171개의 와드 및 지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이외에 9개의 선교부, 38개의 지방부 그리고 215개의 지부를 포함시킨다면 멕시코와 중앙 아메리카에만 무려 456개나 되는 교회의 단위 조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님의 포도원의 일부로서 현재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습니다. 약 20여만이나 되는 영들이 육신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지금도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산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나는 태평양의 해안에 서서 한동안 파도와 조수가 밀려 와 어제 조수가 밀려 나간 후 아직 아무의 발

길도 닿지 않은 곳까지 물결이 펼쳐지면서 모래 사장에 이르는 것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점점 더 높게 모래 사장에 흔적을 남기며 밀려 오는 큰 조수의 위력을 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거리와 세월 때문에 무더어진 기억력을 갖고, 오랜 과거 이래 아무의 발길도 닿지 않은 고지에 도달하려 하고 동경하며 또한 그곳에 설 수 있도록 합당하게 되려고 하며, 그러나 지금은 파도와 조수처럼 끊임없이 내면의 힘에 의해 동기를 받는 약속을 받아들이고, 칭찬할 만한 봉사를 통하여 과거의 고지 즉 기억력에 의한 성취를 제외하고서는 성취되지 않은 목표로 거슬러 올라 가서 당연히 높이 들리우게 될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을 다시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은 킴볼 대관장님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대관장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아셨을까요? 누가 그분에게 미래의 일을 꿰뚫어 내다 보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또한 그분이 두려움 없이 말씀하시도록 한 것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성만으로는 예언자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에 관한 이러한 예언자의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드린 것은 킴볼 대관장님이 예언자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예언은 내면의 힘에서 나온 외적 증거도, 성스러운 능력에 대한 증언도 아니며,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권세에 대한 간증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영감은 우리 시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말라기, 이외에 예언자들도 성스러운 경전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언자는 예언을 하십니다.

나는 고대의 선달과 긴 의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고대의 예언자들과 다를 바 없고 현재와 미래를 내다 보는 긴 안목과 선견지명과 권세를 가진 주님의 예언자가 지상에 계시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 빛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간증을 드립니다. 아멘.

*

엘리아의 메시지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친족 특히 우리의 가족을 구원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말 일성도들은 세상에 알릴 성스러운 메시지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일에 하늘에서 오시어 다시 말씀하셨고, 그의 뜻에 관한 많은 새로운 계시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도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십니까? 말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2천년 전에 살았던 백성들보다 하나님께 덜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일까요? (교성 1:35 참조)

베드로와 바울의 시대에서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똑같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뿐입니다. 구세주도 역시 한 분뿐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곧고 좁은 길을 하나만 가르쳐 주셨으나 “찾는 이가 적음”(마 7:14)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원래의 기독교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서 결국 수많은 교리와 종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나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관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들의 분열에 대하여 꾸짖었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힐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뇨”(고전 1:13)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자라 하는”(고전 1:12)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에 의해 개입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던 성도들이 분열하였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의 시대상의 하나였으며, 그것은 바울의 시대에 기독교의 분열이 시작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경전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전을 통하여 고대의 사도들에게 기독교의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였던 기독교의 단합이 파괴되어 기독교가 원래의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와 완전히 배도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미리 알려졌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열된 기독교를 내버려 두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그를 순종할진대 그들을 구원할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배도가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아셨던 주님은 말일에 원래의 진리가 회복되도록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 회복에 대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재림에 관해 설교하였을 때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

여 말씀하신 바 만유가 회복되도록 광범위하게 전개될 복음의 회복이 있는 후에야 주님이 재림하시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행 3:21 참조)

그러나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경전은 우리에게 이에 대해 말해 주니까? 물론 경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공중에 날아가는” 한 천사에 의해 복음이 지상에 다시 회복되고, 이 진리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제 14:6) 전파되리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전에는 두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새롭고도 중대한 계시대로 올 것이라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전에는 그의 이름까지 밝혀져 있는데, 이 두 번째 하늘 사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고대의 예언자 엘리아일 것이라는 사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천사가 이미 와서 150년 전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복음을 회복하여 주셨음을 간증드립니다. 말일성도들은 회복된 복음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인이며, 현재 자유 세계의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천사는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 천사가 복음을 회복해 주었다면, 두 번째 천사가 온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엘리아는 말일에 다시 지상에 파송되어야만 했을까요?

예언자 말라기는 엘리아가 다음과 같이 지상에 오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진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 4:5-6)

바로 이 성구가 성경학자들을 심히 당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짐작해서 말하고 억측하는 사람들은 그들 중에 많으나 그 성구의 참된 의미를 실제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성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엘리아가 지상에 다시 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족 관계와 관련이 있었

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성구의 중요한 의미는 첫번째 천사가 복음을 회복하여 준 후에야 비로소 밝혀졌던 것입니다. 실은 엘리야가 온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준 것은 바로 회복된 복음이었었습니다.

이 성구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질 진대 아담의 시대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죽은 자는 물론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는 모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산 자와 죽은 자의 하나님이지요, 진실로 죽은 자들이 모두 그에게는 살았노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눅 20 : 38 참조)

그러나 그는 단 하나의 복음을 갖고 계십니다. 산 자는 물론 죽은 자가 그에게는 똑같으므로 산 자와 죽은 자는 모두 똑같은 복음의 원리에 따라 구원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의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교성 1 : 35 참조)

구원은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죄를 버리는 회개, 권능을 가진 자에 의해 집행되는 죄 사유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도 이러한 원리에 따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원할진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그의 시체가 무덤에 놓여 있는 동안 그의 영이 영체로 살아 움직이며 주의를 기울이는 죽은 자들의 세계를 방문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사람은 제각기 그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영은 귀를 기울이고 배울 수 있었으며,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복음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그의 복음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벤전 3장 참조)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벤전 4 : 6)

영들이 듣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믿고 회개할 수 없었다면 예수님은 신앙과 회개를 가르치셨겠습니까? 구세주께서는 실용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침례와 이외의 구원의 의식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초대 교회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산 자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따라서 침례 의식이 죽은 자들에게도 베풀어지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 주었습니다. (고전 15 : 29 참조)

그러나 누가 어떤 권능으로 이를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죽은 자를 확인함으로써 누구를 위하여 이 사업을 행하였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에 엘리야는 말라기의 예언대로 지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가 왔으며 진실로 오늘부터 꼭 140년 전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신전에 나타났음을 간증드립니다.

죽은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이러한 일이 성취되게 돕도록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산자인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엘리야는 지상에 와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오심은 우리의 마

조셉 비 워스린 장로(왼쪽)와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오른쪽)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심



음을 이미 죽은 우리의 선조에게 돌리게 합니다.

현재 죽은 자들은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지상의 우리에게 의해 대리 의식이 집행되어야 하며 또한 그들의 마음을 반드시 우리에게로 돌이켜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이 사업을 행하여 주리라는 희망을 품고 지금 살고 있는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의 사명은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모든 산 자는 자신의 죽은 선조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이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은 그들의 구원에 크게 좌우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조 없이 완전해질 수 없고, 그들도 우리 없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히 11:40 참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모든 남녀가 영원한 결혼을 해야 하며, 모든 자녀는 성신권의 권능으로써 자신의 부모에게 인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제보 자료를 찾을 수 있는 한 이 과정은 과거까지 소급하여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죽은 자를 위해 집행할 수 있는 침례 이외의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완전히 복음에 따라 순종하려면 우리는 제각기 자신의 죽은 선조를 찾고 그들을 위해 구원의 의식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신전에 감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전에 가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우리는 자주 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의 죽은 선조에 관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아서 현재 그들을 위해 기록을 찾고 있다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와 주도록 합시다.

조셉 필딩 스미스 대판장은 이 주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일이 무엇이든,

우리의 직책이 무엇이든 또는 이외에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실히 봉사하고 있든 이 책임은 이같은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같이 죽은 자를 위한 신전 사업을 행할 막중한 책임을 면제받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평범한 장로는 물론 사도들도 이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책이나 높은 지위, 또는 교회와 선교 지역과 시온의 스테이크에서 헌신해 온 오랜 봉사 또는 어디에서 어떻게 그러한 봉사를 하였든, 이같은 지위나 오랜 봉사는 개인에게 자신의 죽은 자의 구원을 등한시할 권리를 부여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일조를 내고, 정규 집회에 참석하고, 이외에 다른 임무를 수행하며, 가난한 자를 부양하기 위해 양식을 나누어 주고, 1년이나 2년 또는 그 이상 세상에 나아가 전도하면 그후에 행하여야 할 자신의 임무가 면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우리는 다른 일도 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그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다른 선행을 하였을지라도 보다 큰 축복과 중요한 계명을 조율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자를 찾음, 유타 제보 협회, 1928년 35-36페이지)

우리는 특히 우리 자신의 혈통에 속한 친족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특정한 선조와 그들의 가족을 확인하기 위해 제보 탐구를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제보 탐구를 통하여 확인된 우리의 특정한 죽은 선조들에게 필요한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신전으로 가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제각기 우리의 선조에게 신권의 권능 선에 따라 인봉되어야 하고, 그들도 제각기 우리에게 인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제각기 우리의 선조를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혈통에 따라 각 세대의 사람들을 함께 결봉시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각 가정마다 제보 프로그램을 체계있게 잘 진행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보다 이전에 살았던 자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신전에서 집행되는 이같은 의식 없이 우리는 물론 우리의 죽은 선조도 영원히 진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56페이지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선조 개개인을 위하여 침례에서 성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식이 집행되도록 해야 하고... 또한 신권의 모든 열쇠와 권세를 받아야만"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63페이지) 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게 될 것은 바로 엘리야의 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죽은 자를 구속하도록 해 주고, 우리들을 우리의 선조들과 결봉시키도록 해 주며... 우리의 죽은 자들을 인봉하여 첫째 부활에 나오게 해 줍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37-38페이지)

그는 "성도들이 어떻게 시온산의 구원자가 됩니까?"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신전을 건립하고, 침례받을 짓고, 신전에 가서 그들의 죽은 조상을 대신하여 모든 의식을 받음으로써..."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30페이지) 그들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회복을 완전히 믿는다면 또한 엘리야의 사명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지상에 다시 와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그의 성역의 열쇠를 맡겼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엘리야의 방문 결과로서 현재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은 부모에게 돌이켜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중대한 사업이 지금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자신의 죽은 조상에 대한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 일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행하여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 일을 우선 순위의 첫째로 두고 행하기를 겸손히 기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1975년도 통계 보고

교회 회원이 참고하도록 마련된 통계 보고 :

대관장단은 1975년 말 현재, 교회 회원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계 보고를 발표하였다.

교회 단위 조직

1975년도 말 현재 시온의	
스테이크의 수	737
와드의 수	5,095
스테이크 산하 독립	
지부의 수	1,295
연말 현재 스테이크	
산하의 와드 및	
지부의 총수	6,390
연말 현재 선교부	
산하의 지부의 수	1,761
연말 현재 복음	
선교부의 수	134

1975년 12월 31일 현재
교회 회원

스테이크	3,126,469
선교부	445,733
총 회원	3,572,202

1975년도 동안의 교회의 성장

스테이크 및 선교부	
에서 축복받은 어	
린이	79,723
스테이크 및 선교부	
에서 침례받은 기	
록상의 어린이	50,263
스테이크 및 선교부	
에서 침례받은 개종자	95,412

사회적 통계(선교부 및 스테이크에서 온 1975년 자료에 근거를 둠)

1천명을 단위로 한	
출생률	27.79
1천명을 단위로 한	
결혼률	13.75
1천명을 단위로 한	
사망률	4.36

신권

1975년 12월 31일 현재, 아론 신권 소유	
자	
집사	140,832
교사	106,934

제사	178,241
총 아론 신권 소유자	426,007

1975년 12월 31일 현재,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장로	308,863
칠십인	25,734
대제사	113,189
총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447,786

총 아론 신권 및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873,793
(1975년도 동안 32,051명이 증가됨)

교회 조직(등록)

상호부조회	954,957
주일학교	3,243,531
아론 신권회	257,082
청녀회	223,440
초등학교	484,261

복지 계획

연간 도움을 받은 자	112,715
유급 직장 취업자	20,078
복지 계획에 바친	
노동일 수(대략)	330,000
복지 계획에 바친	
장비의 노동일 수	10,045

계보 협회

1975년도에 신전 의식을

받은 이를	3,394,762
세계 37개국으로부터 한 해 동안 들어	
온 계보 보고는 30미터 짜리 마이크로필	
름으로 876,532통에 달하며, 이를 책으로	
만들면 300페이지 짜리 서적 4,219,504권	
에 달한다.	

신전

16개 신전에서 1975년도에 집행된 엔다	
우먼트의 수	
생존자를 위한 의식	47,142
죽은 자를 위한 의식	3,027,956
총 엔다우먼트 수	3,075,098

교회 학교 제도

신학 연구원을 포함한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의 1975년도	
등록생 수	324,670

친구의 방문을 받고 즐거워하는 십이사도 보조 에드니 와이 고마쯔 장로



하나님의 아들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알도록 돕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김 블 대관장님으로부터 성임되고 성별된 지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저는 버지니아주, 노포크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여행하였습니다. 저의 영혼은 아직도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년 지역 대회를 갖는 방으로 들어 갔을 때, 그들은 “늘 함께 합소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부름 소식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참으로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격한 감정을 가까스로 억제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언제나 나의 주여 함께 하옵소서 오 주께 나가오니 복 주옵소서”(찬송가 53장)

저에게 구세주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여러분이 방금 저를 지지해 주신 이 새로운 부름과 책임의 막중한 짐에 저는 짓눌리고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은 세상의 특별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 성스러운 책임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는 매일 주님을 좀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제게 가까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게서 배우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영의 부드러운 길을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리라.

“...회개와 구세주를 믿는 신앙과 침례에 의한 죄 사함과 불 곧 성전에 의한 죄 사함을 선포하라.”(교성 19 : 23, 31)

구세주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허리를 동여매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며 나의 양을 먹이라.”(교성 112 : 14)

구세주의 다음과 같은 말씀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의미를 제게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 : 3)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은 제가 바라는 바일 뿐만 아니라 저의 성스러운 임무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되고 유일한 교회가 지상에 회복된 이후 시간은 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같으며,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성구를 들어보십시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곁에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교성 88 : 63)

우리의 목표도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이 말일에 내가 세상에 보낸 충만한 나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보낸 성약을 전파하라.”(교성 39 : 11)

“내가 거듭 너희에게 이르노니 귀를 기울여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줄 율법을 순종하라.”(교성 42 : 2)

제가 김블 대관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권고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수년간 것처럼 권고를 받았읍니다. 일백 사십 육년 전,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을 때, 대관장단은 새로이 부름을 받은 십이사도의 한 사람인 팔리 피 프랫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이 종에게 하늘로부터의 미소를 내리소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소서... 그의 예지를 높여 주옵시고, 의의 사신으로서 그가 부름받은 사도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각력과 이해력을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대관장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은 전심 전력을 다 기울여야 할 대의를 위한 전쟁에 응모하였읍니다... 형제님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훌륭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는 많은 시련과 수고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형제님은 끊임없이 수고해야 하고, 시련은 참으로 클 것입니다. 형제님은 위대한 사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고하여야 합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업입니다. 이 땅은 그의 땅이요, 이 사업은 그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며... 복돋아 주실 것입니다...”

“오만을 주의하십시오. 악을 조심하십시오. 악에는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 없이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조심하십시오... 전도 사업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영혼이 형제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대관장단은 계속해서 팔리 피 프랫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은 세상 만방에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바다의 섬까지 전파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면 목숨이라도 희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

야 합니다...

“복음은 구르고 굴러 온 세계를 가득 채워야 합니다...”

“형제님에게는 지금까지 가져 보지 못했던 많은 지혜와 지식과 예지의 샘이 필요할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화려한 의식이나 행렬이 없이 형제님께 이를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

“형제님은 가장 간결하고 가장 순수하게 복음을 전파하셔야 합니다.”(팔리 피 프랫의 자서전, 데저렛 출판사, 1961년 119—126페이지)

그당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영감을 받아 형제들에게 주었던 이 지시와 권고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권고요 지시라는 사실을 저는 영의 권세로써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영광스럽게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열한 분은 모두,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제단 앞에 바쳤을 뿐 아니라, 의와 헌신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따르고 그분들의 모범을 본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모두 사랑합니다. 저는 대관장단과 모든 총관리 역원을 사랑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의 화평을 느끼게 됩니다.

역대 대관장님 가운데,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그리스도의 열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사명에 대한 눈과 귀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단지 ‘나는...를 믿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믿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는 반드시 알아야 하며, 스스로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진리를 안 지식처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고, 지금은 전능하신 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를 놓도록 권능을 위임받은 자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또 그것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지를 보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는 것은 교리요 진리입니다.”(복

음 교리 178페이지)

구세주께서 지상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십이사도에게 계시의 영이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계시의 영은 필요합니다. 구세주의 성역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정점이라고 간주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열 두 제자에게 질문한 두 가지의 중대한 질문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먼저 주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3)고 물으셨습니다. 사도들은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야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인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의 추측만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예수에게서 예레미야의 온유함을 발견하여, 예레미야가 다시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예언자라고 말했습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쳤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요 1:5 참조) 구세주께서 사도들에게 두 번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 16:15)라고 질문하셨을 때 주세주의 실망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세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어야 했으며, 그들은 세상의 마음을 돌이켜야 했습니다. 대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대표하여 대답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수제자로부터 이같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사도들은 나사렛 예수에게서 약속된 세상의 메시야인 다윗의 아들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보다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

16:17—19)

베드로의 이와 같은 확신은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간증이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에게 축복이, 따른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굴하지 않고 굳게 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매고 풀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여되었으며, 신권의 열쇠를 의롭게 행사할 때 하늘에 상달되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열 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강조하신 신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도마는 직접 눈으로 증거를 보고자 원했습니다. 그때 구세주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 20:29)

저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이 복음은 말일에 회복되었고,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과거에도 늘 알고 있었지만, 이제 더 큰 확신을 얻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늘 변함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인간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는 마리아에게서 태어 난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그의 이름으로만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압니다. 저는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 계시며, 그를 통하여만 구속 사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합당할 때,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려가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모두 보다 확실한 지식과 신념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계시로써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킴볼 대관장님은 지상에서 왕국의 열쇠를 의롭게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며,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대변자임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왕의 왕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구세주의 재림을 알고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간증의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세미한 소리

에스 딜워스 영 장로

칠십인 제일 평의회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우선 의롭고 합당해야 합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 부름받은 4명의 회원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분들께 우리의 사랑과 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분들의 사업에 최대한으로 협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걸음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왕상 19: 11-13)

엘리야는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알자, 자신의 곤란한 처지와 왜 동굴에 몸을 숨기고 있는지를 대답하였습

니다. 엘리야는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해야 할 바를 지시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천 7백년이 지난 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발견했던 것과 같이, 주님의 음성은 바람 속에 있지 아니하고, 천둥 속에도 있지 아니하며, 번개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엘리야에게 들렸던 것과 같이 “세미한 소리”로 들립니다.

주님이 그의 택하신 예언자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을 열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실 수도 있으며, 방금 언급한 것 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려 하고, 일상 생활에서의 지침을 구하려 하며, 심한 병에 있는 아내나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회원들에게 주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은 “세미한 소리”로 온다고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첫째, 주님은 주의 영, 곧 성신으로 말씀하십니다. 1829년 주님은 자신의 말씀에 관하여 십이사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성으로 너희에게 이 말을 하노니, 이 말이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어짐이라.”(교성 18: 35)

1832년, 주님은 장로들에게 “나는 내 영의 음성으로 말한”(교성 75: 1)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써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의롭고 합당한 자에게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님의 음성은 받는 자의 마음속으로 들어 옵니다. 주님께 간구하던 예언자 이노스는 그때의 경험을 다

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으로 울부짖고 있을 때에, 보라 주의 음성이 내 마음에 다시 임하시어 이르시기를...”(이노 10) 주님께서 이노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그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세째, 올리버 카우드리가 번역을 하고자 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승락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다. 보라,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신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주님은 이것이 참된 권세임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이것이 계시의 영이니, 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녀를 인도하여 마른 땅을 밟으며 홍해를 건너게 한 그 영이니라”(교성 8: 2-3)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심장이 고동치는 가슴이 아니라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시도해 보았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 같은 느낌이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 옳지 아니한 일을 잊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지 아니하면 너는 거룩한 것을 기록할 수 없느니라”(교성 9: 8-9)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느낌이 계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네째, 니파이는 자기를 죽이려는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훈계하였습니다.

“참으로 너희는 악을 행함에는 재빠르나,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는 더디하다. 너희는 천사를 보았고 천사가 너희에게 말을 하였으며, 너희는 시시로 천사의 음성을 들었느니라. 천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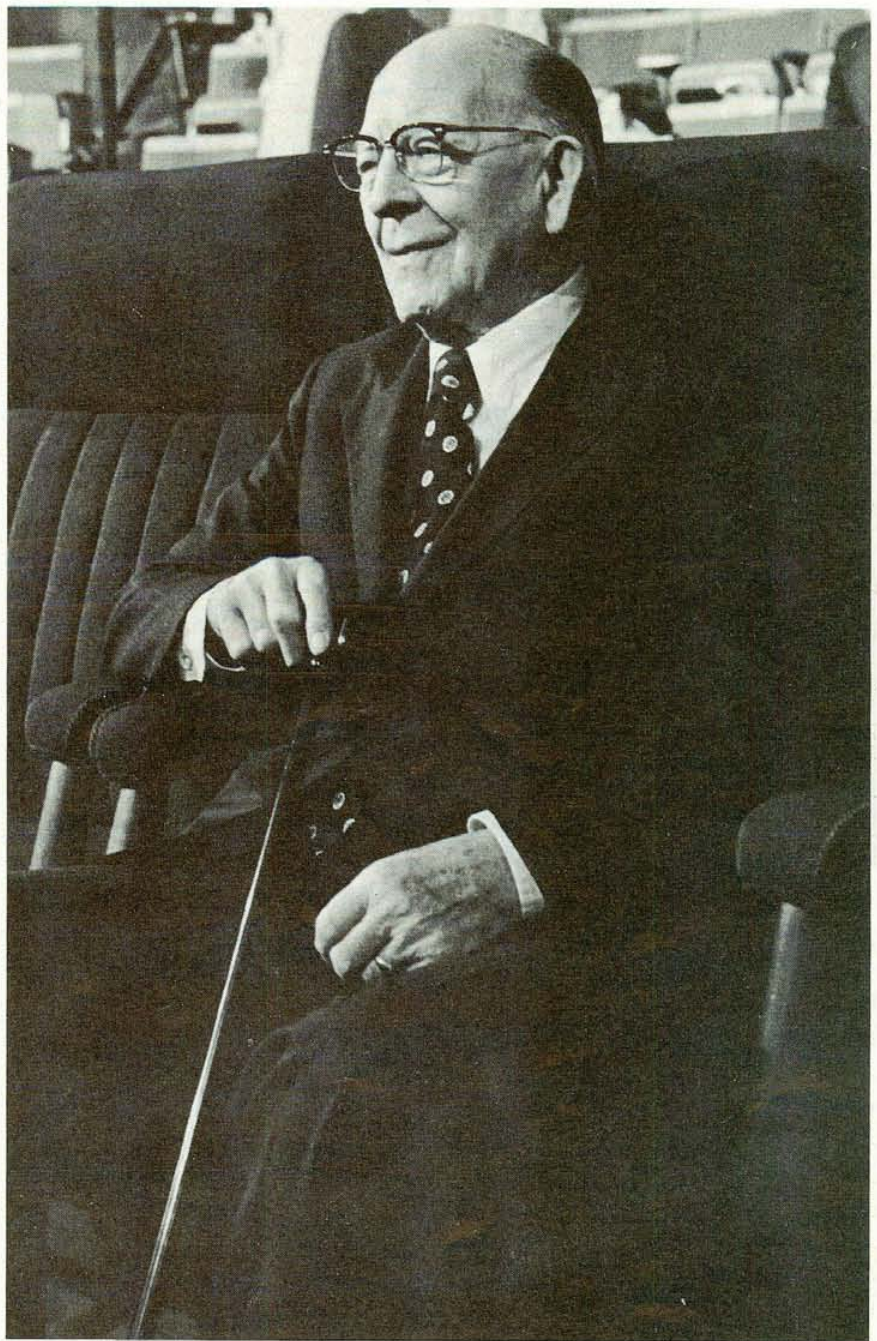
*여자 주: 영이 문헌에서는 “fee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너희에게 작고 조용한 소리로 말하였으나 너희 마음이 무디어 듣지* 못하는 지라. 저가 천둥같은 소리로 말하며 마치 땅이 갈라질 듯 진동하였느니라”(니일 17:45)

주님의 계시를 받고자 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지혜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정신에 주님의 음성이 들어 가게 되고, 가슴에 자리잡고 있는 느낌을 통하여 마음속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느낌이란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뜨겁다”는 표현이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은 항상 화평의 느낌을 가져다 주며, 그것이 옳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일단 한번 이러한 뜨거운 느낌, 이러한 화평을 느낀 사람은 결코 잘못된 길을 걸거나 지침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는 이 계시가 회복된 원리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면 옳은 것이며,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살아계신 예언자에게 주어진 말씀과 모순되는 계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원리는 일상 생활에서 겪게 되는 많은 좌절감을 막아 줍니다.

언제 이 원리를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을 제치있게 판단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 소년이 밖에서 놀다가 함께 놀던 친구와 싸우고는 집에 들어 와서 엄마에게 다시는 그 아이와는 놀지 않겠으며, 다시는 그 아이를 집에 들어오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읍니다. 어머니는—현명한 어머니는—하던 일을 즉시 멈추고 말했읍니다. “애야, 방에 들어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려 보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용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고, 기도하자고 말했읍니다. 어머니가 먼저 기도를 드렸고, 다음에 어머니는 아들을 도와 주면서 기도하게 하였읍니다. 방을 나오면서 아들은 엄마를 쳐다 보면서 말했읍니다. “그 애랑 다시 놀래요. 집에도 오라고 할까요요.”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년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시초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 성장하는 동안



십이사도 평의회의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기 위하여 영의 지시를 구하여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부모는 언제부터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가정의 밤에서 가르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그 순간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올바른 경우 주님의 음성이 생각에 들어 오고 가슴에 뜨거운 느낌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화평이 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계시를 받았으며, 그를 이은 모든 교회의 대관장님들도 그와 같이 계시를 받았읍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교회는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까지 주님의 뜻에 준하여 존속되어 오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생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은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가장 귀한 보배

존 에이치 반덴버그 장로

십이사도 보조

우리는 모두 자신을 분석하고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며 칠전, 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기념물을 정리하다가 기념 동전을 뒤고는 흐뭇한 경험을 회상해 본 것이 기억납니다.

연전, 교회 건축 위원회의 일원으로 덴버에 초대받았다가 솔트레이크로 다시 돌아오는 항공기에서 저는 우리 요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만나게 된 어느 신사 한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좌석을 같이 하고는 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신사에게 현재 직업이 무엇이라고 묻자 그는 건축가이며, 현재는 텍사스주의 대도시 중의 하나에 큰 교회를 건축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교회 회원들로부터 건축 기금을 모으는 데 겪었던 애로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교회의 건축 위원회에서는 각 교인을 직접 찾아 가서 권유하기도 했고, 오찬회, 바자회, 오락 등 모든 수단을 다 써 보았으나 어떠한 것도 성공적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들은 특별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경전에 기록된 주님의 방법대로 하자고 제안하자 홀륭

한 방안의 계획이 되었다고 그 신사는 말했습니다. 제안된 성구는 말라기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건축 위원회에서는 50센트짜리 크기의 동전을 만들어 황금빛으로 메끼를 입힌 다음, 동전의 한쪽 면에는 “십분의 일은 주님의 것”이라고 새기고 다른 면에는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바치라 그리하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리라”고 새겨서 교회 회원에게 이 성구의 메시지를 전하자는 명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모든 교인에게 이 동전을 나누어 주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잔돈을 꺼내기 위하여 동전을 찾을 때마다 반짝이는 황금빛 동전은 그들에게 의무를 기억하게 해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사가 말하는 동안 저는 “참된 원리를 발견하고 적용할 때 올바른 결과가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이번에는 그 신사가 우리에게 현재 무슨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들도 교회 건축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건축 일이지요.”

“교회를 뿔이나 세우셨나요?” 신사가 물었습니다.

“현재까지 수백 개 되죠.”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사의 얼굴에 놀라움의 기색이 떠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지으셨군요! 도대체 어떻게 그 비용을 충당합니까? 어디서 기금을 마련하나요?”

“교회 회원들에게서죠. 또 우연의

일치입니다만, 선생께서 발견하신 십일조의 비결을 우리 교회에서는 회복된 초기부터 교회의 교리로 행하고 있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십일조, 금식 헌금, 건축 헌금, 예산, 신전 기금, 복지 예산, 선교사 기금 등을 바칠 뿐만 아니라 교회 행정적인 운영에서와 기타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꺼이 시간을 바치는 말일성도의 위대한 헌신에 대한 것으로 번져 갔습니다. 우리는 활발한 선교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젊은 청년들의 선교 사업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사는 무척이나 관심이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는 의자 깊숙히 앉아서 깊이 생각하는 태도로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뭔가를 당신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와 같은 헌신을 하게 하는 다른 점이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하여 요셉 스미스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839년 12월, 그는 성도들에 대한 구제책을 얻기 위하여 워싱턴 디 시에 있었습니다. 그는 형하이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가 미합중국 대통령과 만나서 보고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대담하면서, 대통령은 우리에게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질문했습니다. 요셉 형제는 침례의 유형이 다르고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가 다르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성신의 은사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교회 역사 4:42) 이 은사는 교회 회원으로 확인될 때 각 회원에게 부여되는 은사입니다.

성신의 권능에 대하여 구세주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번역사가 대회 말씀을 즉석에서 번역하고 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 16 : 7-8, 12-13)

성신을 통하여 회원들은 진리를 알게 되고 간증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신의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회원들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대의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일은 무엇이든지 기쁘게 수행합니다. 그밖에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가치는 다음의 단순한 비유에서 그려졌듯이 지불되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마 13 : 45-46)

요셉 스미스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추구하고 있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닐 때에는 심신이 나약해지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때에는 단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나 가정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끝나면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결코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신앙을 심어 줄 충분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합니다.”(신앙강화 6 : 4, 5, 7)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교회의 성

장과 활력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이 지상에서 점점 증가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성약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충만함이 만방에 선포되는 것을 봅니다. (교성 1 : 21 참조) 이것은 1838-39년 겨울 리버티 감옥 속에서 극심한 고난을 겪으며 받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계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암흑의 세계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흐르는 물을 흐리게 할 수 있으며 어떠한 힘이 여러 하늘의 운행을 막을 수 있으랴. 어느 사람이 연약한 팔을 펴서 하나님이 명하신 수로를 따라 흐르는 미조리 강의 흐름을 막아 이를 되돌려 보낼 수 있으랴. 만일 그같이 할 수 있을진대 전능하신 이께서 말일성도의 머리 위에 하늘에서 지식을 쏟아 부으심을 막을 수 있으리라.”(교성 121 : 3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 : 3)

복음 계획의 온전한 목적은 인류에게 복음의 원리대로 행하도록 지시하는 데 있으며,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고, 곤경에 처했을 때 해답을 주는 데 있습니다. 곤경에 대하여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당신 자신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귀한 보배도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하여 결정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당신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당신의 가치를 발견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면 당신의 생은 질서의 미에 서게

될 것입니다...이러한 과정이 지혜를 얻는 과정이며, 지혜는 서서히 익는 열매입니다. 아마 당신은 아직 현명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당신 자신을 분석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인생의 결 모습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당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직까지 고대의 자칭 현인이라고 한 사람들의 말을 당신의 행동 규범으로 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모두 당신을 거역하고 반복하려는 것만 같아 낙심하고 상심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과 기분일 뿐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올바른 현상이 될 것이며, 기분은 지나갈 것입니다. (리차드 와이트먼)

충만한 복음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물론경의 예언자 베나민 왕은 하나님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지식이 너희를 일깨워 너희가... 타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하였거늘

“...내가 이른대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구원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며 그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셨음을 믿으라. 그가 천지간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세를 가지셨음을 믿으며,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만사를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라.

“또한 너희 죄를 회개하여 죄를 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믿으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진실로 너희가 이 모두를 믿을진대 이를 행하라.”(모 4 : 5, 8-10)

이 성구를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줄고 끝은 길(마 7-14 참조)로써 적용할 때, “자신이 가장 귀한 보배”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참된 교회에 가입하여 성신의 권능으로 이를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지혜의 말씀

디어도어 엠 버튼 장로

십이사도 보조

건강에 관한 지침은 계시로 주어졌으며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맥스웰 형제께서 하신 간증에 참으로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아름다운 테저렛”이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것은 지혜의 말씀 찬송이라고 불리었으며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하나로 열심히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가사의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는 오래도록 살며
아름답고 강건하리라
차와 커피 담배를 멀리하고
술을 금하며 고기도 조금씩 먹으리니
위대하고 선하고 현명하기를
구함이라.

테저렛 주일학교 찬송가 114페이지
“아름다운 테저렛”

나는 가정과 교회에서 지혜의 말씀을 지킬 것을 교육받아 왔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운 것입니다. 즉 몸에 해로운 것을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대회 때마다 지혜의

말씀에 관해 언급하지 않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교리와 성약 89편에 있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1833년 2월 27일에 주신 계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그 실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나친 알콜 사용에 따르는 해악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어 왔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은 얼마나 해로운 것이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담배, 차, 커피 및 지나치게 고기를 많이 먹는 것에 수반되는 위험을 그 당시에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마약에 대해 많은 소동이 있었으며 거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특히 젊은이가 마약이나 습관성 약품으로 그들의 신체와 정신을 해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약 사용은 아직도 우리가 크게 염려하고 있지만 이 무서운 결과에 대한 계몽 때문에 적어도 심대 후반기나 청년들 사이에는 이것의 사용이 다소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약품 사용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알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지혜를 얻지도 못한 청소년이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아직도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한 청소년은 허영과 미숙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정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빚어내면서 시험적으로 마약을 써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돌보고 깨닫기도 전에 이러한 해로운 습관의 노예가 됩니다. 그들은 그 습관을 버릴 수도 없고 계속 지닐 수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처참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발견할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것입니다.

약품 사용이 파괴적이고 해로운 것과 마찬가지로 술과 담배의 사용도 결

국에는 같은 결과를 가져 옵니다. 술과 담배는 오늘날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이것들이 참으로 마약이며 또 그렇게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약에 따르는 문제는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현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나 늙은이 모두가 자신의 신체에 큰 이변이 생기기까지 그 해로운 결과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배로 인해 암, 기종 및 심장병이 발생했을 때 아무리 뒤우치고 후회를 해도 이미 신체에 입혀진 상해로부터 구제되지는 않습니다. 알콜 중독자가 건강, 직업, 가족, 명성을 잃었을 때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을 뒤우쳐도 그것은 파멸된 인생에 조그만 위안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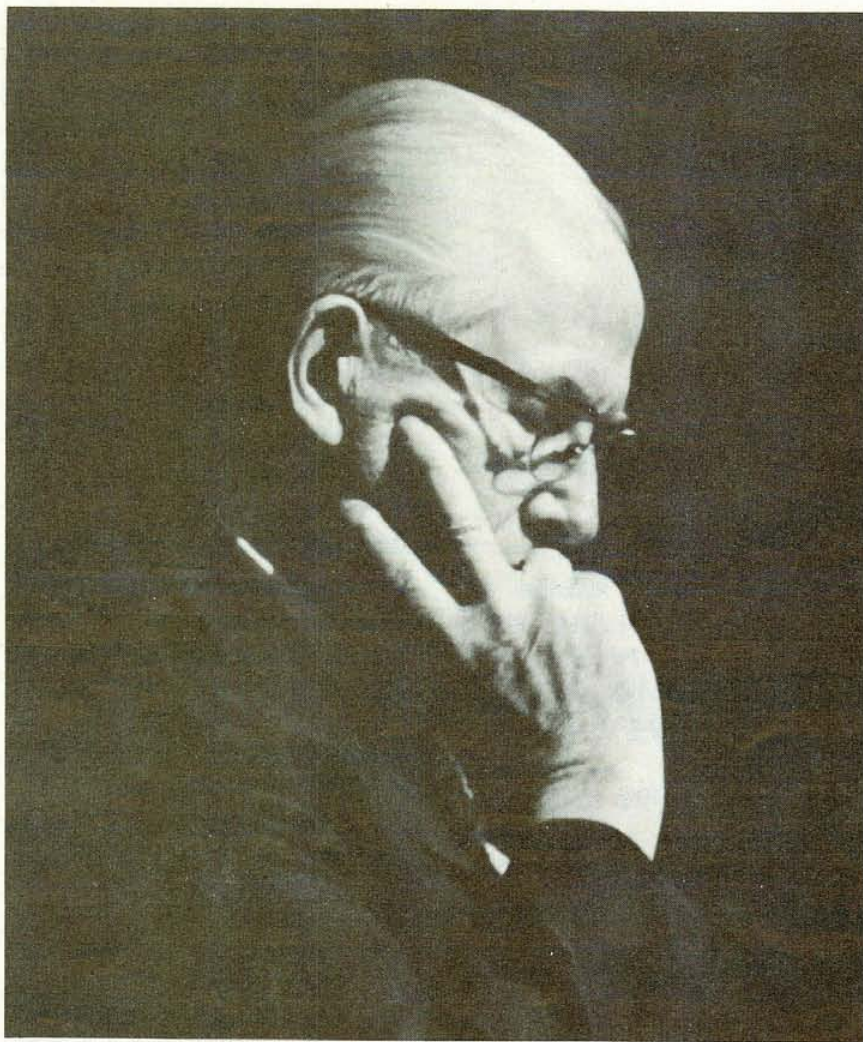
내 친구 중에 어떤이는 나에게 왜 과학자로서 그러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크게 반대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전 화학 교수로서 과학적인 배경으로 권위있게 말할 수 있지 않소.”라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과학적인 근거를 사람들은 믿을 겁니다.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유능한 과학자로서 할 수 있는 훌륭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 대해 내가 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는 잘 훈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과학자가 수백 명이나 있으며 그들은 지혜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계시가 과학적으로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보여 주는 데 나만큼의 자격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관해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대한 과학적인 확신은 청소년이 담배, 마리화나, 술 및 어떤 종류의 마약이든 그 사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담배갑과 담배 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경고 : 공중 위생국 장관은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고 판정했음.

이러한 경고도 사람에게 담배를 금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미국 내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죽는 수는 50,000명이나 되며 부상을 당하는 수는 800,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그들을 전투에 참가시키거나 다른 사고로 인해 그



에즈라 태프트 벤슨, 십이사도 평의회 회장

러한 피해자를 냈다면 비난의 물결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술이 취해 운전 중을 하다가 생기는 계속되는 사고,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이의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의 말씀도 사람들에게 술과 담배를 단념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술,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가는 과학적인 증거와 경험으로 잘 알려지고 있으나 그것을 사용하는 수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혜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는 때는 자신이 과학자이기 때문이라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러한 부름에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특별한 관리 책임이 주어집니다. 총관리 역원으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세주며 구속주라는 사실에 대해 확고하고도 개인적인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창조주시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는 우리의 육체에 어느 것이 이롭고 어느 것이 해로운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콜성 음료, 담배, 흥차 및 커피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우리는 비참하고 슬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모든 가르침이 그분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과학자로서 보다는 주님의 종으로서 세상 사람과 교회 회원에게 특히 그러한 위험에 대해 경고를 외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으로써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보게 될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지혜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드립니다. 나는 담배, 흥차, 커피, 알콜성 음료의 사용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체와 정신까지도 파괴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는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의미하셨는지는 모릅니다만 그것을 가치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릇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 행하며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

“나 주는 저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곧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 같이 저들을 지나치며 살해하지 아니하리라.”(교성 89: 18—21)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골수를 얻으리라”는 말을 읽었을 때 나는 앞으로의 전쟁에서 사용될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오는 공해의 결과로 전세계에 만연하게 될 질병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금지된 것들과 뼈에 영향을 섭취하는 것을 방해하고 뼈가 병들게 하는 이 방사 물질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지키면 멸망의 천사가 우리를 살해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술, 흥차,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권고하셨으며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습관을 조장하고 신체에 해로운 물질을 사용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생활에서 나를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물을 신중함과 감사함으로 사용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의깊게 들으실 것을 권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영적인 악어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위험은 젊은 사람의 생활 어느 구석에나 있다—그러나 그를 경고하고 돕는 지침도 있다.



나는 오늘 교회의 청소년, 아론 신권 및 청년과 합창단에 계신 훌륭한 젊은이들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배워지지 않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나는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동물과 새에 관해 무척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어렸을 때 다른 아이들은 카우보이 놀이를 하고 싶어했지만 나는 아프리카의 야생 동물을 사랑하는 놀이를 하며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새와 동물에 관한 책을 읽고 많은 것을 알아 냈습니다. 열 살 가량 되었을 때 나는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을 거의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아프리카 사슴을 분간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늘 아프리카에 가서 그 동물들을 보고 싶어했는데 드디어 그 기회가 왔습니다. 패커 자매와 나는 하워드

배저 장로와 그 부인을 대동하여 남아프리카 선교부를 돌아보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7일 동안에 그 방대한 대륙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는 여덟 개의 새 예배당을 헌납하는 힘든 일정이었습니다.

배저 장로는 9월 10일 특별한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우연히도 나의 생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메지아에 있었으며 나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요하네스버그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곳에 착륙하였습니다.

배저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얼마 안가면 열조수 보호림이 있습니다. 차는 내가 빌렸으니 내일 형제님의 생일에는 아프리카의 동물 구경이나 잡시다.”

그 아프리카의 열조수 보호림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동물은 밖에서 자유롭게 노는데 사람은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즉 그 공원 방문객은 저녁에 등록이 되면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아침이 되기까지 갇혀있게 되며 차를 타고 다닐 때도 결코 밖으로 나가서는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오후였습니다. 어떤 착오로 방문객을 위한 숙소가 모자랐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 숙소가 다 차 있었습니다. 그곳의 총 책임자가 오더니 그곳에서 약 8마일 가량 떨어진 지역에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밤을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늦었기 때문에 그 보호구역에서 떠났을 때는 이미 캄캄해진 뒤였습니다. 우리가 셋길을 찾아 좁은길을 얼마 가지 아니하여 엔진이 멎었습니다. 전지를 찾아내어 나는 엔진에 무엇이 잘못되었나를 알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지로 진창길 바닥을 비추었을 때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사자의 발자국이었습니다.

나는 얼른 차 안으로 되돌아 왔으며 우리는 차안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한두 시간 후에 보호구역에서 늦게 떠난 어떤 유조차 운전수를 만나 구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책임자를 깨워 적당한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우리를 다시 먼저의 구역으로 데려 왔습니다. 우리에게 자동차도 없었으며 또 그곳에는 전화도 없었기 때문에 그날 늦게까지 별 수 없이 그 보호 구역 내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하루는 그렇게 끝나 버렸으며 나에게 있어서는 생애의 꿈이 깨어진 것입니다.

나는 어느 젊은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는 내가 아프리카의 새를 많이 알고 있는 데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는 우리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구역에서 약 2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웅덩이에 전망대를 새로 짓고 있는데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안전하기는 합니다.”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모셔다 드리지요. 그리고 오후엔 선생님들 차가 이곳에 오거든 그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아마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시는 것보다 어찌면 더 많은 동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그 전망대까지 데려 가는 길에 그는 사자를 보여 주기 위해 차를 냅탈 숲으로 돌려 물었습니다. 그 앞에서 열 일곱 마리의 사자가 배를 깔고 자고 있었으며 그는 그 가운데로 차를 몰아 갔습니다.

우리는 웅덩이에 차를 세워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 계절이 몹시 가문 때여서 그곳에는 물은 그리 많지 않고, 수렁이 되어 있었습니다. 코끼리의 발자국으로 인해 우묵해진 곳에 고인 물을 다른 동물들이 마셨습니다.

영양은 특히 조심성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진창 웅덩이에 왔다가는 재빨리 돌아서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나는 그곳에 사자가 없는데도 그렇게 도망가는 것을 보고 왜 물을 마시지 않느냐고 안내원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악어 때문이죠.”

나는 그가 농담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다시 진지한 태도로 물었습니다. “왜 도망을 간다고 했지요?” 그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악어 때문이라니까요.”

“악어라니요, 도대체 악어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안 보이지 않아요?”

나는 그가 그곳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런 농담을 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에 대해 그리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게다가 코끼리 발자국에 악어가 숨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는 내가 그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사실을 알려 주려고 했음인지 차를 몰고 다른 진창 웅덩이가 내려다 보이는 쪽 위로 올라 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를 직접 보십시오”

나는 물이 조금 고여있는 진창과 조금 떨어진 곳에 조심스레 서 있는 동물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눈에 뜨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창 속에 숨어 목이 바깥 마른 동물이 무심코 물을 마시러 오기를 기다리는 악어였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그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의 말을 믿으려 한다고 생각하자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공원 전역에는 강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든 악어가 있습니다. 물이 있으면서 악어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아마 확실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안내원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친절했습니다. “악어 때문이죠”라는 그의 말에 거만한 태도를 보인 나는 “가서 스스로 알아 보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악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나가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할 만큼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그러한 전방진 생각으로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참고 기다렸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안내원과 이야기를 할 때 나의 경우보다는

현명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똑똑한 체하는 생각은 나에게 실제로 가치가 없었으며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 주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 이외에는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도 부끄러움을 느껴야겠습니다.

인생에서 여러분보다 앞서 가는 사람들은 물 웅덩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악어를 주의하라고 경고의 음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음성은 다만 여러분을 물어 뜯어 갈갈이 찢는 커다랗고 회색 빛깔을 한 악어가 아니라 아프리카에 사는 잘 위장되어 있는 악어보다 더 위험하고 더 유혹적이고 더 잘 보이지 않는 마음 속에 도사리는 악어에 대한 것입니다.

이 마음 속에 도사리는 악어는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거나 불구로 만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지닌 마음의 평화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의 평화까지 파멸시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경고의 대상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애에 그러한 영적인 악어가 없이 물만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또 한번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나는 다른 공원의 안내원과 이런 이야기

좀더 자세히 볼



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코끼리의 발자국 아래 사람을 물 수 있을 만큼 큰 악어가 숨을 수 있다는 것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비참한 일이 생긴 장소를 보여 주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어느 청년이 그 호텔에서 한동안 일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운동화도 적시지 않을 얇은 불용당이를 건너 무엇을 확인해 보기 위해 보호 구역 울타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안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채 두 발자국도 들여놓기 전에 악어가 나와 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우린 그를 전혀 구조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도를 받거나 안내를 받기 싫어하는 경우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어떤 것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의 현 상태가 안내원의 주의를 따라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악어에게 잡혀 먹었다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끔찍한 일은 아닙니다. 피물같은 악어에게 먹힌다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도덕적이며 영적인 타락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서 권고의 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생활 가운데서 그러한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안내자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안내자로 지명을 받았으며 여러분도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안내자라는 말을 그리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부모, 감독, 지도자, 고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명받은 임무는 여러분이 마음 속에 도사리는 악어로부터 해를 입지 않고 이 생을 지나가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훈련과 활동은 그 근본 목적이 여러분, 즉 청소년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자유롭고 독립되어 있으며 안전한가를 보살피려는 데 있습니다.

젊었을 때 부모와 교사와 지도자의 권고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훌륭한 안내자인 성령의 속삭임을 따르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계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위험을 알아 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안내자가 나를 경고해 준 것과 같이 여러분도 몰래 숨어있는 마음 속에 도사리는 악어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이 마음 속에 도사리는 신호를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면 여러분은 생활 가운데 있는 이러한 악어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높은 곳에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감은 여러분의 모든 활동, 교회 활동 뿐만이 아니라 학교 일, 데이트를 하는 일까지 주어집니다.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에 응답을 받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어떤 일에 대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그 응답을 받기까지 오래도록 인내를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기도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이내 응답되기도 하며 어떤 충동적인 느낌은 전혀 기도를 하지 않을 때에도 옵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 안내자를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의 간증은 커 갈 것이며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예상치 않았던 곳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은 그 길을 여행하리라는 것을 아는 누군가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젊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은 여러분의 안내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르고 그것을 기꺼이 하려 하면 여러분은 경건하고 민감하고 영적인 속삭임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의로운 것을 행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젊은 친구 여러분, 나는 종종 생각은 하면서 별로 이야기는 하지 않는 다른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고 다만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은 내가 아직 여러분 만큼 되기도 전에 있었던 일이며 그것은 그 안내자를 따를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결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며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되기 위해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로부터 결코 취해 가지지 않을 어떤 것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유의지였습니다. 나는 주님이 외의 어느 누구에게 나의 자유의지를 맡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분이 내게서 결코 취해 가지지 않을 그것, 곧 나의 자유의지를 그분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모든 것을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큰 시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가장 값진 것을 모두 잃어버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시절의 나는, 자유의지를 주님의 뜻에 따라 행사하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강화시키는 것임을 알 만큼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일로 다음과 같은 성구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1-32)

그후로부터 나는 마음 속에 도사리는 악어에 대해 그리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들이 숨어 있는 곳에 대한 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두 번 물린 적도 있으며 영적인 응급 치료를 필요로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구출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물린 사람을 위한 영적인 응급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와드의 감독은 이 응급 치료를 담당한 의사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그 일은 나에게 안내자를 따르라고 하는 데 또 하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그를 따릅니다. 경험을 통해서 나는 그 안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살아 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그가 살과 뼈의 몸을 갖고 계시며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분은 또 우리 모두가 그의 면전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다음은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이 신권 모임에서 광고하신 말씀 내용이다.

우리는, 스테이크의 지도력을 증강하기 위해 십이사도 지역 대표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것을 광고드립니다. 그들은 지역의 지도자를 부르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신권 사업, 교회 프로그램 및 지도력의 기술 등에서 스테이크 부장단을 훈련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들은 금후로 종관리 역원 지역 책임자를 통하여 대관장단과 십이사도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이 책임에 관해 지역 대표에게 주는 자세한 유의 사항 및 지시 사항은 월요일에 개최되는 훈련 모임에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 대표 및 종관리 역원의 서한을 통해 스테이크 지도자에게 전달됩니다.

신권 - 권능과 권세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관리 감독단 제 2보좌

사람이 의롭게 생활하면 신권의 권능은 가족을 축복할 수 있는 신권의 권세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 이 신권 모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 모임이야말로 이 경륜의 시대에 있어 가장 위대한 신권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시지와 우리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 대한 관심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할 까를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이 저희와 함께 임하시기를 간구했고 또 지금도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말씀드릴 것들이 참

되다는 것을 간증드리며 영이 그렇게 준비하도록 저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활짝 열려져서 제 말씀을 잘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과 그에 따른 행복은 신권의 원리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서 생겨납니다. 저는 우리 신권 소유자가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 할 주님의 경고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으로 가득찬 우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잘못 활용할 때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의 계시를 여러 번 읽어 왔습니다만 우리의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그것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라,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택함을 받지 못함은 무슨 연고뇨?”

“이는 저희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고 또 인간의 영예를 갈구함이며 이 한 가지 교훈을 배우지 아니하였음이니,

“곧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

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 (교경 121 : 34—36)

저는 이 글로 보아 신권의 권능과 신권의 권세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권의 권능과 권세는 반드시 동의어는 아닙니다. 신권을 소유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능의 효율성은, 즉 그 권능으로 생겨나는 권세는 우리의 생활 태도에 달려 있으며 우리의 의로움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권을 소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잊어 버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사 정원회 회장, 장로 정원회 회장, 감독이나 그의 보좌가 효율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중요한 신권 의식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가족과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 신권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권을 이와 같이 활용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지닌 신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받은 참된 권능으로 어지러운 가정에 평화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권은 어린 자녀를 축복하고 위로해 주며 눈물로 젖은 눈에 잠을 가져다 주는 권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밤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권능이 되며 지친 부인의 불안한 신경을 안정시키는 권능이 될 수 있으며 혼란과 방황에서 헤매는 십대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권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신권은 딸이 최초로 데이트를 하기 전에 혹은 그녀가 신전 결혼을 하기 전에 그녀를 축복해 주거나 아들이 선교 지역이나 공부를 위해 집을 떠나기 전에 그를 축복해 주는 권능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우리의 신권은 소년들이 모여서 상스러운 이야기를 나누려는 악한 생각을 그치게 하는 권능입니다. 그것은 또 아픈 자를 고치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는 권능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권이 갖고 있는 중요한 목적의 일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 그 권능을 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능을 가장 숭고한 목적 즉 가족을 결속시키고 영원까지 지속되는 신권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발전시키고 위에서 언급한 일들을 하기 위해 그 권세를 활용하는 사람은 가족이 갖고 있는 의로운 욕망이 그의 것과 꼭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신중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그가 신권 지도자에게 주의를 기울이듯 가정에서도 식구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작은 아이의 말이라 하더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가족의 복지를 자신의 안락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다스릴 줄 알게 됩니다. 그는 발끈 성을 내고 그것을 자기의 기질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극복할 것입니다.

그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집안에서 결코 노한 음성을 내지 않을 것이

며 노하여서 벌을 주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신권의 권세를 활용하는 사람은 그의 중요한 속성의 하나로써 생각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주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창조물, 즉 신권 소유자에게 맡겨진 딸에게 존중, 공경 그리고 위엄을 나타내어 보일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권고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권위를 갖고 주의하고 현명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교리와 성약에서 그에 대한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슬픈 경험을 통하여 이 사실을 배웠나니, 곧 거의 모든 사람은 사소한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생각하자 마자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천성과 기질이 있다.

“이러므로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교성 121:39-40)

저는 또한 자매들의 생활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신권의 권세에 대해 몇 가

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 에이 윗소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권은 정신적인 능력을 근거로 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다... 여자는 이와 동등한 은사를 갖고 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보다도 현명한 권능은 태초에 영이 난대로 있었던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존 에이 윗소, 신권과 교회 행정, 메저렛 출판사, 1954년 90페이지)

남자가 여자보다 우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몇 가지 일로 보아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교회 조직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우세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권이란 그것을 소유한 형제의 곁에 헌신적이고 행복한 부인이 있을 때에만 그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성스러운 권능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행복”이란 부인을 설명하는 말임을 알아두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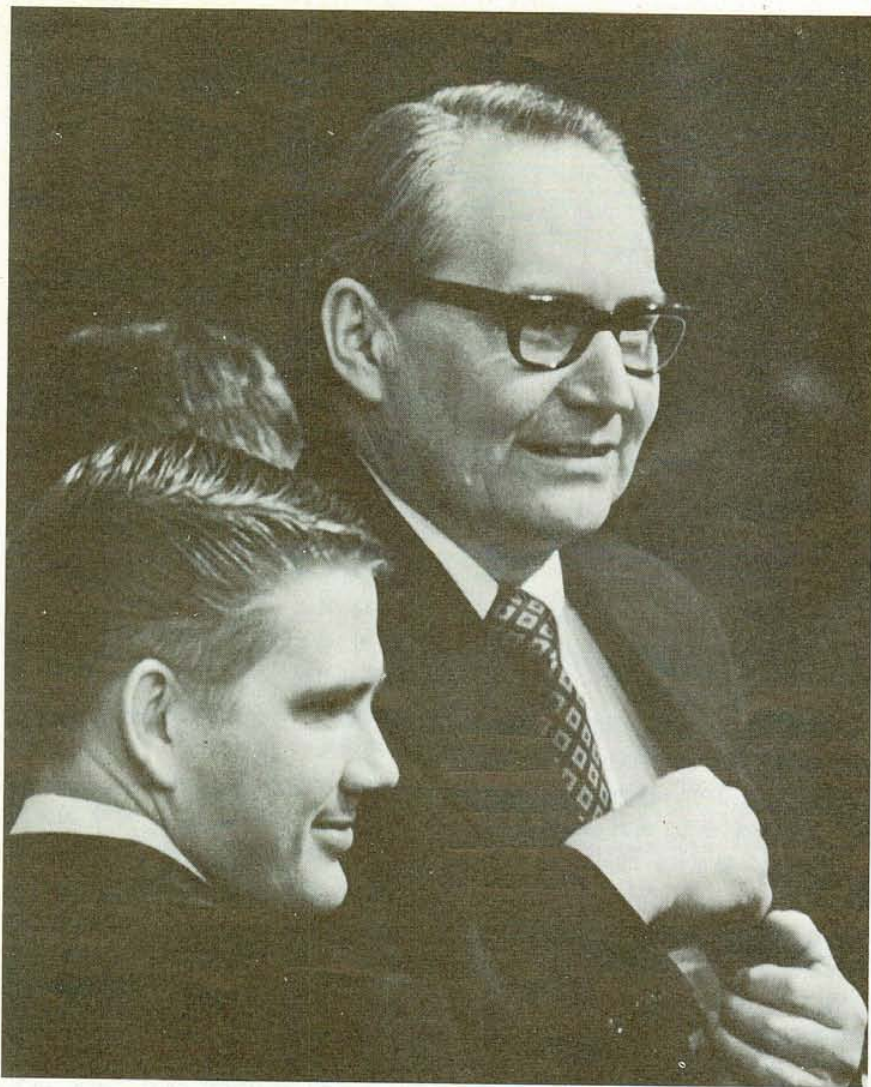
지상에서의 업적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홀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가정을 잘 운영해 나가는 데 유용한 생각과 지혜는 부인과 의 거리낌없는 대화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가족 관계를 강화하는 데 절대로 필요한 영과 정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그 가정에서의 관리 신권의 권능에 의해 양육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인이 갖고 있는 훌륭한 자질을 기뻐해야 하며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언젠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둘만의 어떤 문제에서 아내가 나보다 나은 성품과 특성을 갖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브리감 영 대학교, 12 스테이크 합동 노년의 밤, 1976년 1월 4일)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신권을 가진 형제들을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은 다시 신권을 소유할 형제들을 훈련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지닌 능력의 정도를 잘 나타내는 좋은 예로 힐라멘의 2000명의 아들의 경우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기록은 엘마서에 있습니다.

“보라 이같은 맹세를 맺은 젊은 청년이 이천 명이라. 저들이 나라를 지키

브라질 상파울로의 우울터 스파트 부장은 텍사스의 버치 라센 형제와 만나 우정을 나누고 있다.





엘 톰 페리 장로와 그의 친지

고자 손에 무기를 들었으니,

“저들은 모두 젊어 뛰어나게 용맹스럽고 기운차며 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상 진실하며 무엇을 하든지 말은 바에 충실하였고,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배운 자들이라, 모두 진실하고 신중한 사람들이었더라

“나의 아들들은 싸워 본 경험이 없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 목숨보다는 부모들의 자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였더라. 참으로 저들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것을 모친에게서 배운 자였더라,

“저들이 모친에게서 들어 배운 말을 내게 되풀이하며 말하기를 모친들께서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 하였더라.”(앨 53 : 18,

20—21, 56 : 47—48)

이 2000명의 젊은이가 모두 용감하고 활발하였다는 것을 기록한 기록자는 그들이 어머니에 의해서 그러한 훈련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려 했던 것이며 그 기록을 우연히 쓰게 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에게 힘을 주는 열쇠요 비결이 어머니라는 사실은 나에게 미래의 아론 신권 소유자가 힐라만의 2000의 아들처럼 축복을 받는 세대가 되도록 하려면 신권 지도자가 합당한 신권 원리로 자매들을 훈련시키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신권을 소유한 어린 소년들의 인격과 영적인 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바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일은 앞

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권 교육과 소녀의 영적인 발전을 위해 바치는 노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훌륭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소녀가 영원한 반려자가 지녀야 할 태도와 신권의 특성을 모른다면 그 결과로 올바르게 못한 결혼을 하여 그 가정에서 대이나는 자녀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신권을 지닌 형제가 올바른 태도를 지니고 소녀를 훈련시키는 일에 큰 힘을 바친다면 이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결론을 짓기 위해 교리와 성약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과,

“친절과 깨끗한 지식으로 할 것이니, 이것들은 위선이나 간교함이 없어 사람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꾸짖을 것이나 후에는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저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저로 네 성실함이 죽음의 사슬보다 더 강한 줄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나 신앙의 권속에게 향한 너의 사랑을 가슴에 가득하게 하라. 쉬지 말고 덕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네 영육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치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네 게로 흘러 들어가리라.”(교성 121 : 41—46)

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형제들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대한 통로라고 생각하는 가족은 참으로 축복받은 가족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재물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프랭크린 디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보조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의 지혜를 배우도록 도우면 그들의 간증은 강화되고 그들의 생활에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위에 그의 영을 풍성히 내려 주시는 매우 흥미롭고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재물과 쾌락과 풍요를 추구하는 방임과 시련과 불행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중의 하나는 충분한 지혜와 이해력과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으며 물질과 쾌락을 추구하는 소용돌이 속에 말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청년 2명과 장년 한 분이 나를 방문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물질면에서는 성공했는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내게 물

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물을 구할 것이 아니요, 다만 지혜를 구하여야 하느니라. 보라,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너희에게 알려지리니, 그리하면 부한 자가 되리라. 보라, 영생을 가진 자 그가 곧 부자니라.”(교경 6:7)

나는 그들이 인생에서 중요시하는 것을 바꿔야 하고 물질과 쾌락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이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418,000여명이나 되는 모든 수련 장로들이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수련 장로들도 인생의 목표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물질과 쾌락 대신에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멜기세덱 신권 정원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교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972년 수련 장로 프로그램이 발표된 이래 수천 명의 수련 장로들이 장로로 성임되었으며, 정원을 통해 활동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의 비율도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헌신적인 신권 지도자 여러분에게 우리의 많은 문제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교회 회원의 발전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멜기세덱 신권과의 관리 책임자로서

나는 이제 우리에게 절음의 폭을 넓히라고 권고하신 킴볼 대관장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나는 우리가 절음의 폭을 넓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개개인을 대상으로 일하는 것보다 수련 장로나 그 밖의 사람들의 그룹을 대상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비활동 형제들이 보통 갖고 있는 한 가지 문제는 교회의 교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리를 안다면 대부분은 활동 회원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실의 하나는 비활동 수련 장로의 상당수가 비회원 자매와 결혼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장로 정원회 회장이 해야 할 일은 워드 선교 책임자에게 요청하여 스테이크 선교사나 복음 선교사로 하여금 비활동 남편이 참석한 자리에서 비회원 아내를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 복음 교사도 이 가정과 우정 증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보다 많은 인원을 가르치고 활동 촉진을 시키는 데는 그룹을 지어 가르치고 우정 증진을 하는 것, 말하자면 그룹 복음 토론회 모임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또한 연령, 교육 수준, 관심사 등이 비슷한 여러 명의 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가르칠 때 보다 좋은 성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그룹을 형성하는 데는 대개 많은 노력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의 지식을 얻고 지혜를 구하려면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는 이러한 선교 활동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전세의 상태와 현세의 목적과 내세에 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전에 약속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밝혀집니다.

수련 장로들에게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크게 강조해야 할 일입니다. 장로 정원회에서 신전에 가서 엔다우먼트를 받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그룹을 가르침으로써 많은 경우 훌륭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수련 장로들 중에는 고령자도 많으므로 어떤 장로 정원회에서는 대체사들로 하여금 이들의 활동 촉진을 담당

케 함으로써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나는 운동회, 무도회, 기타 여러 오락 활동 등 훌륭한 활동 촉진 프로그램에 그룹으로 참여하는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련 장로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여 우정 증진을 시키는 활동의 일환으로 임무를 주는 것이 처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을 교회 활동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나는 어느 곳에서 수련 장로와 새 개종자들이 매일 교회의 기를 올리고 내리거나 찬송가를 손질하거나 장로 정원회의 보조 서기로 일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느끼고 값진 경험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수련 장로와 새 개종자들이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물질 대신에 지혜를 구할 때 주님이 솔로몬 왕에게 하신 것과 같이 지혜와 물질을 아울러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흥미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그 물질을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사용할 좋은 기회와 큰 책임을 갖게 됩니다.

수련 장로 프로그램은 오늘날 신권 정원회가 당면한 일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밖의 일에 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매우 필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사랑과 단합을 강화하는 일이며, 가정의 밤 프로그램이 가정에서의 사랑과 단합을 위해 마련된 것임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가정 복음 교사로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들이 이 모범을 따르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의 밤을 갖는 여러분은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그리고 자녀간에 더욱 사랑이 커졌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영감을 받아 마련된 가정의 밤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일은 교회 내의 소수 집단 문제입니다. 다수 집단은 동일 구역에 살고 있는 소수 집단을 배척하지 말아야 하며, 그들이 교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게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충만한 우정으로 격려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조직도 또한 소수 집단을 격려하고 도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다수 집단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972년 10월 10일자 공문에서 대관장단은 이 문제에 관한 기본 원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멜기세덱 신권과는 또한 군인 관계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군대에는 의의 길을 따르는 훌륭한 교회 회원이 많이 있는데 이들은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동료에게 용기와 고결함의 모범을 보이며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미국 이외에 먼 외국에서도 가정 복음 교육이 충실히 수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복무 중인 충실한 회원들의 모범과 공헌에 큰 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신권 임무입니다. 주님은 신권 가정 복음 교사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각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소리를 내거나 은밀히 기도할 것과 가족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느니라...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 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하며”(교성 20 : 51, 53)

형제 여러분, 가정 복음 교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방문 받는 가족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족도 축복을 받고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교회 기능은 신권 상호 이해회인데 이것은 약 3년 전에 독신 성인의 필요 사항을 해결하고, 그들이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느끼도록 도우며, 교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조직된 것입니다.

장로 정원회는 독신 형제들의, 그리고 상호부조회는 독신 자매들의 우정 증진 및 활동을 위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보고에 따르면 독신 성인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의 밤을 가지며, 선교 활동을 하며, 그들의 생의 나날을 흥미 있고 유익한 활동을 하며 보내고, 병자와 많은 문제를 가진 자의 집을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전세계 여러 곳의 특별 이해반 및 청년반을 직접 방문해 보고, 그들

이 각각 활동을 통하여 인생의 목적을 더욱 잘 이해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큰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반 활동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그들의 필요 사항을 더 잘 이해한다면 더욱 큰 발전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청년반 프로그램에 관해 나의 소견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청년반 프로그램은 교회가 청년들을 위해서 마련한 가장 훌륭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왜냐구요? 이것은 종교, 사교, 교육, 오락, 기타 개개인의 요구 등 그들의 모든 필요 사항을 충족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특히 중요한 것은 청년반 프로그램은 생활을 변화시켜 줘요. 아무런 주의도 끌지 못하는 말없고 내성적인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책임을 맡게 되자 훌륭한 지도자로 발전하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정말 이것은 영감을 받아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신권을 소유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항상 우리의 신권을 존중하고 부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대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는 “현세의 부를 구할 것인가 아니면 지혜를 구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갈등을 느껴 나를 찾아 오셨던 세 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세상적인 부 대신에 지혜를 찾는다면 행복과 평안과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께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다는 간증을 드립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주님의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권세인 신권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스펜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님은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간증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를 지지하시고 복돋아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도 모든 면에서 대관장님을 지지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선교 사업의 기회

칼로스 이 애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나의 영육은 또한 주님께서… 맺으신 언약으로 하여 기뻐하며”
(니파이이서 11 : 5)



형제 여러분, 나는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 내가 여러분께 간증의 말씀을 드리는 동안 주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나는 이 부름을 받고 더욱 겸손함을 느꼈으며, 새로운 책임을 생각할 때에 나의 모든 결점과 약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이며,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였고, 오늘날 하나님 왕국의 일을 지시하는 살아 계신 예언자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 가족, 관리 감독단 그리고 그밖에 내가 이 책임을 맡도록 준비하는 데 도와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나의 간증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선교부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나는 선교 목사와 함께 복음을 토론했고, 선교 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는 그의 교회의 선교부를 관리하는 부름을 받았는데 경험이 없어 당황했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었던 내 사무실로 찾아와 기꺼이 그의 부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나 마지못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교회가 세계 제일의 선교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성공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가 찾는 대답이 조직이나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직에 관한 설명이 그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곰곰이 생각한 후에 나는 그에게 주님의 프로그램이 성공하는 데는 네 가지 기본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나는 우리가 살아 계신 예언자요 하나님의 대변자이며, 교회를 위한 영감과 계시를 받는 분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신권의 권세와 권능으로써 일하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권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권능을 스스로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며, 이렇게 함으로써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위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충만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패커 장로가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는 피아노의 건 하나만으로 연주하지 않고 모든 건반을 사용해서 연주합니다. 우리는 왜 이곳에 있으며, 무

엇을 준비해야 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째로, 우리는 모든 일을 각자의 간증의 힘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성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교사들은 대가를 얻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가르칩니다. 그들은 대학을 중단하거나 휴학을 하고, 개인적인 계획을 미루어 놓은 채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간증을 나누기 위해 봉사하려 나갑니다. 나는 그에게 그의 교회도 프로그램을 예언자의 인도를 받아 신권 지시에 따라 운영하고, 충만한 복음을 개인적인 간증의 힘으로 가르친다면 우리와 똑같은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에게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니파이의 말을 인용해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경전과 더불어 나의 심령이 기뻐워하며...”(니이 4 : 15) 나의 심령도 경전과 더불어 기뻐워 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매 나의 영육이 기뻐하노니...” 나의 영육도 또한 기뻐합니다. “나의 영육은 또한 주님께서 나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으로 하여 기뻐하며 진실로 나의 영육은 주의 자비하심을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우심을 기뻐하며 주의 권세를 기뻐하며, 자비로써 죽음에서 구원해 내시는 크고도 영원한 계획으로 하여 기뻐하고,” 나의 영육도 또한 이를 기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만인이 멸망당하리라 하는 것을 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여 전하매 나의 영육은 기쁘다.”(니이 11 : 4-6) 나는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나를 인내로 돌보아 주시고, 나의 모든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나는 예언자를 지지합니다. 나는 총관리 역원들을 지지합니다. 나는 그분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생각하고는 겸손함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순종과 봉사를 배움

엠 러셀 벨라드 이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새로 부름받은 총관리 역원의 간증



모임이 끝난 후 돌아오면서 나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관리 역원이 되면 굉장히 좋을 거야. 그 크고 붉은 의자에 앉을 수 있을테니까.” 형제 여러분, 나는 이제 이 크고 붉은 의자에 몇 분 동안 앉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소망은 순종과 봉사를 통해 배움으로써 이 의자에 편히 앉을 수 있게

합창단 지휘자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킴볼 대관장님과 두 분의 보좌, 그리고 모든 총관리 역원들을 합당히 대표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어떠한 부름을 주시든지 주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부름을 받아들이도록 도와 준 아내, 일곱 명의 자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과 총관리 역원을 온 마음을 다해 지지하며 충성을 약속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내게 평안과 축복을 주심으로써 내 임무를 수행하면서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전세계의 신권 소유자에게 동부 캐나다의 성도들과 모든 선교사들이 보내는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을 드립니다. 아멘.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애시 형제님이 내 대신에 나의 감정을 표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가슴이 두근거리는 사람이 혼자 아님을 알고 감사함을 느낍니다.

내가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간증을 드릴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중 수십년 전 아론 신권 소유자였던 시절에 이 태버나클에서 개최된 신권회에 내가 참석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그때 친구와 함께 신권회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우리가 참석할 수 없는 이곳에 와서 이 층계 옆에 앉았습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님은 우리들이 궁지에 몰려 이곳에서 빠져 나갈 수도 없음을 아시고 친절하게도 우리를 연단 옆 층계 위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관리 역원들이 앉은 크고 붉은 의자 옆에 앉아 신권회가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이 연단에 그렇게 가깝게 앉게 될 기회가 다시 있을지 믿어지지 않았습

부름을 받아 들임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이 되면서 드리는 네 가지 사항에 관한 말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는 이 기회를 맞아 가슴이 너무 벅차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김볼 대관장님께서 주신 나의 여생을 주님께 대한 봉사로 바치라는 부름을 공개적으로 주님과 그의 종들의 면전에서 받아 들이고자 합니다.

둘째, 나는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난 며칠간 온 정신을 기울여 깊이 생각하는 중 내가 이른 이른바 “성취”의 대다수가 내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였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전에 가서 죽은 자들을 위한 신전 사업을 할 책임을 지고 있음을, 즉 그들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내가 이에 관해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지만 조상들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조상들에게 달려 있다는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째, 나를 친절과 인내로써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때때로 나의 잘못을 지켜 보시고 단념하지 않으며 인내로써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책임이 주어지든지 나는 이들이 내게 친절과 인내로써 대해 주신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또한 아내와 자녀, 부모, 친구, 그리고 이웃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저희보다 더 훌륭한 이웃을 갖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갖지 못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형제들은 여성의 직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 올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신문사에 알려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나는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소, 그들은 필요한 모든 자료를 갖고 있다고 했소.” 아내는 말했습니다. “아마 잘못 알고 있을 거예요.”

솔트레이크시에 거주하는 캐리 토거슨 자매가 태버나를 바깥에서 대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정말 우리가 처치 뉴스를 펴 보았을 때 저희 가족에 관한 기사 중 두 아이의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신문에 이름이 나와 있는 토마스 다음으로 어린 제니 매리와 비키 앤이 있음을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나는 제니에게 신문 기사를 정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와 자녀에게 감사의 말을 이루 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하며, 지금까지 사랑해 온 것처럼 영원히 사랑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예수가 세상의 구세주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의미에서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는 섬 사람들과 특별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조용하고 마음씨 고운 섬사람들에게 나의 깊은 사랑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었으며, 내 생명을 구해 주었으며, 내게 희생과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으며, 비할 바 없는 신앙의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고, 김볼 대관장도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지붕 위에서 외치라

제이콥 디오거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구원의 때가 왔을 때는 준비의 시간이 이미 지난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돕도록 부름을 받고 그의 아들들인 수많은 합당하고 선택된 신권 소유자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이 기회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여러분에 관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 (요 15 : 16) 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여러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요, 나의 친구니라.” (교성 84 : 63)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받은 다음과 같은 계시 때문입니다. “...충실한 자는 어느 곳에서나 강하게 되리니, 나 주가 너와 함께 가리라.” (교성 66 : 8)

우리는 모두 전세계의 모든 나라에

서 이곳에 왔으며, 나 자신도 교회 회원이 4명 뿐인 홀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 대부분은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된 것에 관한 재미있는 개종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선교사를 처음 만난 이야기,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 갈 때 우리 모두가 거쳐야 하는 세 단계 즉 개종의 단계, 발전의 단계,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맡는 단계입니다. 모두 전세에서 내세까지 이르는 인간의 영원한 진보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과 간증을 나누고 또한 기쁨을 나누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홀랜드에 있는 나의 집 문을 처음 두드렸을 때부터, 우리가 살고있던 캐나다 토론토에서 내가 아내와 함께 침례를 받은 이래로, 내가 성 멜기세덱 신권의 권능으로 자녀들에게 베푸는 특권을 누린 이래로, 스위스 신전에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 의식을 갖고 자녀를 인봉한 이래 하나님 왕국에서의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광스럽게도 아들 미하엘이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모인 우리와 충실하고 헌신적인 수많은 교사들이 그에게 사랑과 인내로써 가르쳐 준 것 즉 구원의 계획에 관한 메시지를 그곳의 훌륭한 사람들에게 자세히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홀랜드를 떠나 그의 출생지인

자바로 갔을 때 우리는 그가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선교사로서의 신성한 부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교리와 성약 98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하느니라.” (교성 68 :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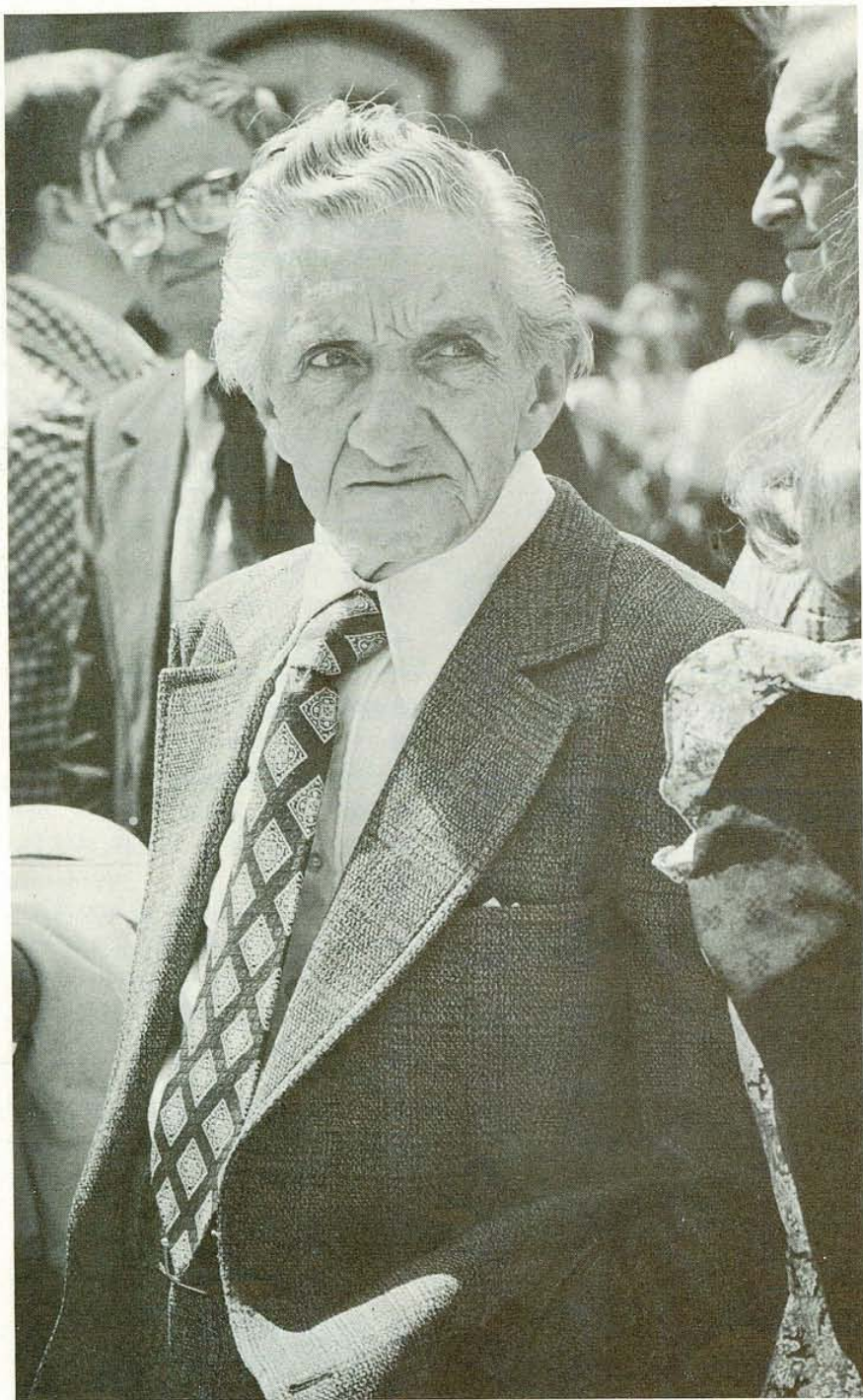
그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신 계시와 완전히 일치되는 곳에서 봉사하도록 영감에 의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 국민에게 나의 교회의 장로들을 보내며 바다의 여러 섬에 보내라. 외국으로 보내라...” (교성 133 : 8)

나는 수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아들이 전보다 더욱 우리와 가까이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큰 기쁨과 겸손한 마음으로 간증을 드립니다. 또한 그가 충실하고 근면하게 일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을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예언자가 명하신 대로 자녀를 선교사로 보낼 준비를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들은 알고 계십니다. “충실하며 올바르게 지혜로운 관리인은 누구든지 그 주의 기쁨에 참여하여 영생을 상속 받으리라.” (교성 51 : 19) “주의 기쁨에 참

유타주 바운티풀에서 온 맬러니 맨 폴





대회 방문자

여”한다는 약속은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충실하며 올바르게 지혜로운 관리인이라면 지금, 구세주이신 “주의 기쁨에 참여하며” 영생을 상속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세상을 떠난 후 어디로 갈 것이냐는 자신이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을 때가 이르면 준비할 시간은 이미 지나 버리기 때문

입니다.

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현재와 미래와 영원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인생의 방향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은 행복한 화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간증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오셨든지 지붕 위에서 다음과 같이 외치십시오.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 회복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높

은 곳에 올라 가기를 두려워하신다면 지붕에 올라 가지 마십시오. 땅 위에서 친구나 이웃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좋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왕국을 지상에 회복하셨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찾은 방향구와 함께 여러분은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방법에 관하여 교회 잡지들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이 보다 훌륭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세계의 충실한 말일성도의 축복이며, 그들의 생애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미국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음을 나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모두 복숭아와 크림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다.” 화란에는 복숭아가 많은 철이 있고, 크림은 일년 중 충분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의 일환으로서 우리를 지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형제님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며,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말일에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예언자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되시는 총관리 역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으로 부름받은 분들이며, 칠십인 제일 평의회 회원들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나는 그들의 모범, 우정,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여러분은 감동을 받고 생활의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와드나 지부로 돌아가시면 이전과는 다른 생활을 하게 될 것임을 나는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돌아간 후 보다 훌륭한 성품을 갖고, 보다 지혜로워지며, 다른 사람의 필요사항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을 보다 많이 갖게 됨으로써 보다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평화와 행복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원합니다. 아멘. *

여러분은 신권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남성다운 용기와 힘과 결심을 지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는 오늘 저녁 남성 합창단이 불러 준 훌륭한 아름다운 노래를 매우 기쁘게 들었으며, 그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훌륭한 간증의 말씀을 해 주신 여러 총관리 직원 특히 친신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새로 부름받아 성별되고 성임된 형제들의 간증의 말씀을 매우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이 신권회에서 많은 신권 소유자들 앞에 선다는 것은 큰 축복인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훌륭하고, 순결하며, 헌신적이고, 명예로우며, 믿음직스럽고 또한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로 위대한 권세를 지닌 사람들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아 성임되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에 의해 부여된 신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의에서는 아무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할 신권이나 권세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앞에 서서 이들 신권 소유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며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볼 때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신권에 부여된 큰 책임을 생각할 때 떨리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을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동안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겸손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힘, 교회의 발전 그리고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저녁 나는 신권의 중요성과 주님께서 신권 소유자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신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권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또 신권을 받는 시기와 그 신권 안에서 발전하는 것은 연령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론 신권이 회복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를 얼마나 중요시하셨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구세주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침례 요한이 아론 신권을 회복하기 위해 파송되었습니다. 그는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더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교성 13편)

우리는 위대한 의로운 사업이 아론 신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그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헤이크맨[초기 배도자]에게 세 번이나 올라가 경고하도록 강한 충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나는 그와 세 번째 만났습니다. 그의 집은 악령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악령으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나는 경고의 말을 마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는 나를 죽일 생각으로 나를 따라 나왔습니다. 나는 그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 다. 왜냐하면 이것이 시험을 통해 내게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나 있는 곳까지 왔을 때 갑자기 내 발 밑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마치 하늘의 벼락을 맞은 듯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어떠한 세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는 원리이므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제사의 직분을 갖고 있을 때 천사의 도움을 받았습니 다. 나는 시험과 제사를 받았습니 다. 나는 수천 마일을 여행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으나, 확인할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밀레니얼 스타, 1891년, 53 : 641—42)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름을 충실히 수행하기만 하면 제사 이전 장로이전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사는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칠십인, 혹은 장로의 직분을 지니고 있을 때보다 제사였을 때 더 큰 주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시험으로, 제사로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앞에 닥칠 일을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밀레니얼 스타, 1891년, 53 : 629)

물론 우리는 그가 제사로서 받았던 영광과 제사 뿐 아니라 우리도 모두 받

을 수 있는 영감과 계시가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유익과 인도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론 신권의 중요성은 주님께서 이 신권을 관리하는 회장단으로 아론 신권의 열쇠와 권능을 지닌 감독단을 지명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성찬을 준비하고 전달하는 아론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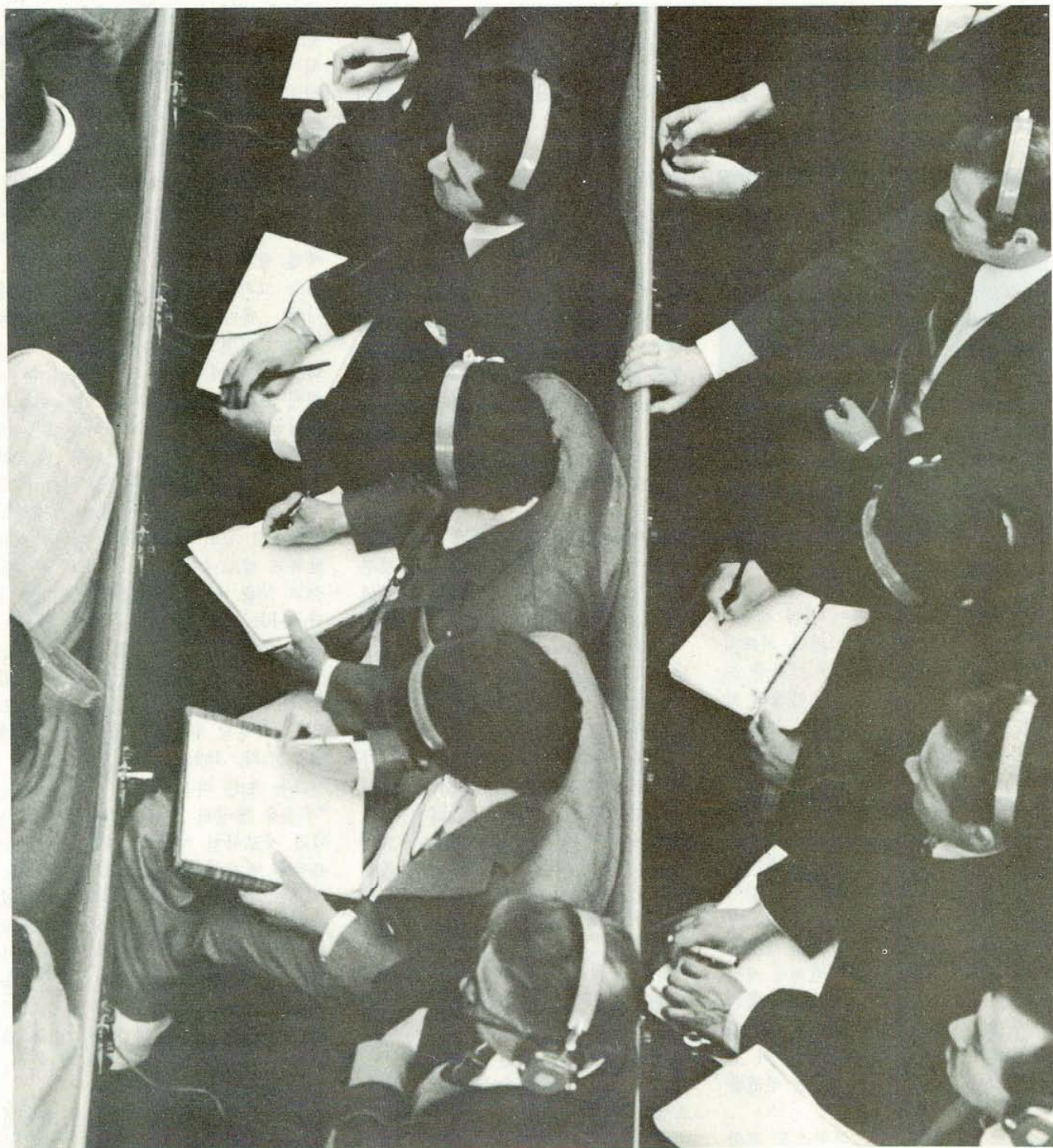
권 소유자들을 볼 때마다 이들이 성찬 집행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이 합당하고 경건하기를 바라시며, 그렇지 않을 때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때로는 교사와 함께 가정 복음 교육을 할 특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사를 동

반자로 삼아 가정 복음 교육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하고 차례로 토론을 인도했습니다.

하루는 나의 가정 복음 교육 동반자가 내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가정의 가장이 입원을 했으니 병원에 함께 가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축복을 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에서 온 성도들이 대회 말씀을 듣고 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권의 직분이 무엇인든 간에 항상 자신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지키며 주님의 영의 지시에 따르면 우리는 임무를 수행하며 큰 기쁨과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권을 받을 때 주님과 구속력이 있는 중요한 성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이 성약을 지킬 것을 바랍니다. 여기서 나는 신권 성약의 일부를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

“또 나는 너희에게 계명 하나를 주어 너희 스스로 조심하게 하노니, 곧 영생의 말씀을 명심하기에 부지런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가야 할 것임이라.”(교성 84 : 33—34, 43—44)

참으로 큰 축복이요, 약속이요, 책임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성약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두 단어는 “누구든지 충실하여...”입니다.

충실성과 관련하여 나는 지혜의 말씀, 순결, 정직,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 : 15)

오늘 저녁 여기서 내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리라고 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날 세상에 악이 만연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허술한 곳을 노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그와 그의 무리에 의해 금지된 일을 하도록 심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동료들의 인기를 얻고자 원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권을 소유하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도록, 세상적인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

리에게 명하신 일을 기꺼이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과학에 의해 홍차, 커피, 담배, 마약, 그리고 알코홀이 인체에 백해무익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혜의 말씀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지혜의 말씀을 알고 있으며 이를 지킬 때 교리와 성약 89편에 기록된 바와 같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경험담을 소개해 드리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데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캐나다의 에드몬트 지부 지부장이었을 때 나는 제사 그들을 담당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어느 공제 조합 회관의 지하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바닥과 벽이 매우 더러웠었습니다. 제사들 중 맥스라는 소년이 학교의 농구부원이었습니다. 농구부에 속해 있는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다른 소년들은 홍차와 커피를 마시고, 담배도 피우며 혹은 때때로 술을 마시는 데 아무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맥스는 물론 지혜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지혜의 말씀과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 생기는 해독에 관해 늘 이야기했으며, 또한 지혜의 말씀을 지키면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홍차와 커피, 술과 담배를 삼가면 더 훌륭한 농구 선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우수 선수 중의 한 명이었고, 동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모든 선수가 지혜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나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청년과 그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공제 조합 회관의 지하실에서 모임을 갖던 시절에 관해 이야기했고, 내가 그 당시 가르친 것 중 몇 가지를 잊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가족에게 그가 농구부에 영향을 준 것을 이야기하며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표준대로 생활하는 자를 존경하며, 그로 인해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맥스는 현재 휴스턴에 있는 큰 석유회사의 지질 조사부장입니다.

나는 존이라는 청년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동부의 장교 훈련 학교에 들어 갔습니다. 새로운 지휘관이 그 학교에 부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환영하는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회실의 탁자 위에는 술잔이 놓여 있었었습니다. 얼마 후 순서에 따라 전원이 일어나서 새로운 지휘관을 환영하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한 청년만이 우유 잔으로 축배를 들었습니다. 모든 장교들과 함께 일어나 일제히 축배를 드는 자리에서 우유 잔을 높이 들어 올린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요하는 것이 아닐까요?

좌우간 지휘관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지휘관은 곧장 그 청년에게 걸어가 물었습니다. “지휘관은 왜 우유잔으로 축배를 들었소?”

“네, 저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술을 입에 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술을 마시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휘관님도 제가 술을 마시지 않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휘관님을 위해 축배를 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늘 마시는 우유로 축배를 들어도 지휘관님이 좋아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지휘관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본부로 출두하시오.”

그 청년은 그날 밤 잠을 못 이루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그가 지휘관 막사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지휘관은 그를 그의 참모의 일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지휘관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을 주위에 두고 싶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 경험을 돌이켜 보전대 교회의 표준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발전이나 인정을 받는 데 지장이 있었던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어기는 한 아무도 자신이 신권을 존중하고, 부름을 성실히 수행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순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부도덕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으며, 때로는 신권 소유자들까지도 이에 물들고 있음을 생각할 때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님은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출 20 : 14)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고전 6 : 9)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헬라멘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이 시간까지도 살인과 음행과 간악한 짓을 행하여 영원한 멸망이 임할 시기를 자초하니, 진실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이 날이 속히 이르리라.”(히 8 : 26)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청소년과 젊은 남녀가 어울릴 때 그들이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합당하게 행동함으로써 죄에 이르게 하는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며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신권을 존중하여 부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순결의 법을 어기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일이며, 가장 해롭고 천박한 행위입니다. 이는 낙담과 양심의 가책을 안겨다 주고, 많은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즉 선교사 부름, 신전 방문, 신권 승진 그리고 교회 조직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는 것 등의 모든 축복은 주님께서 충실한 자를 위해 마련하신 것입니다.

나는 회원들이 자신을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지키고자 하는 소망과 결심과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겸손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저녁 여기 모이신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활하며, 유혹과 범법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결심을 하도록 간구합니다.

이제 나는 정직에 관해 몇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보다 더 훌륭한 성품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가서 고백하고 회개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그 때야만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일이지만

신전에 가거나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거짓말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주님은 부정한 것이 일체 주님의 신전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성 97 : 15 참조) 여러분이 신전 추천을 받기 위해 혹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 접전을 할 때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은 주님을 대표하는 분이고, 여러분의 대답과 약속은 주님에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며, 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신전에 갔다 온 후 몇 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그곳에서 행한 의식이 구속력이 있는 유효한 것일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던 나머지 비탄에 잠겨 교회 대관장님을 찾아 와 용서를 구하고 과거의 잘못을 깨끗이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순결하며 인자하고 유덕해야 하겠습니다. (신앙개조 제13조 참조)

수련 장로들은 주님께서 전적으로 신임할 만한 사람, 모든 면에서 정결하고 합당하여 선교사로서 주님을 대표할 만한 사람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합당하지 않으면 부름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말고, 회개하여 자신을 준비하십시오. 합당하지 않은 채가는 것보다는 1년이나 2년을 더 기다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준비할 수 있는 남성다운 용기와 힘과 결심을 지니십시오.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리차드 엘 이반스 장로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어떤 상황하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습니다. 즉 감옥이든가, 나쁜 친구라든가, 대우가 좋지 않은 회사라든가, 귀찮은 사람들,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환경 등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버리고 결코 도피할 수 없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아침에 깨면 우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곳에 여전히 자신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끈질긴 것은

(물론 죽은 후에도 그렇겠지만) 자신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그가 아무리 빠르게 멀리 달려도 자신에게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리차드 엘 이반스 인용집, 솔트레이크시티, 퍼블리셔스프레스, 1971년, 214페이지)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교성 58 : 42—43)

우리 신권 소유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군병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마와 모든 악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영생을 위한 의와 불의, 생과 사의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휘하는 장군입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우리의 사령관입니다. 신권은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어기거나 부도덕하거나 부정적하거나 신뢰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군대를 약화시켜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강해야 하며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려면 무단 이탈자가 없어야 합니다. 탈영자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고 헌신적이며 단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순결하고 순종심이 강하며 진실한 신앙심을 갖고 있는 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의 군대를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며,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이 교회는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요 왕국입니다. 우리는 예언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을 통하여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지도자를 따르고 신권을 존중하며 부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모든 면에서 자신의 합당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소년에게는 보다 가까이 지내는 영웅도 필요합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

소년에게는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이고 발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나는 수십 년간 대회에 참석할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참석한 수많은 청소년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아 왔습니다. 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두 명, 네 명, 여섯 명, 여덟 명 혹은 열 명씩 자녀를 데리고 함께 참석하여 기쁨을 맛보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보고 나는 여러분도 잘 아실 다음과 같은 시를 읽어드리고 싶은 충동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최고야

하루의 고된 일을 끝내고
피로한 얼굴로 집에 오실 때
얼마나 일을 잘 하셨나를 보여 줄
금과 명성을 가져 오시지는 못하나
받겨 주는 가족을 대할 때
아빠의 가슴 속에는 기쁨이 차네.

네 식구의 아빠,

수백만 명의 아빠 중의 한 분
매일 애쓰고 다니시며
인생의 온갖 고생과 환란을 겪으시
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을 위해
증오나 고통의 불평 한 마디 없네.

가난하고 겸손하신 아빠,
많은 사람 중의 단 한 분
하루 하루 일하느라 애쓰시며
수많은 일을 당해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묵묵히 어려움을 견디시네.

모든 것을 주시는 아빠,
어린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할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모든 일을
굳은 용기로 자녀들을 위해
행하시네. 아빠께 드릴 말씀은
이외에 또 없으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는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할아버지로서 신권 소유자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매와 어머니와 아내와 할머니를 잘 이해하도록 당부합니다. 신권 소유자가 가정을 관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관리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과 봉사와 친절함 태도로 모범을 보이며 관리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신권 소유자에게 권능을 주셨지만 스스로 의롭지 않으면 하늘의 권세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권의 권세가 한 가정에서 영향력을 미치려면 먼저 신권 소유자가 의

* 작자 미상. 시집, 알 브라이언트 편, 그랜드 래피즈, 존데반 출판사, 1968.

로와야 합니다. 우리가 아내와 어머니와 누이와 맺고 있는 관계는 신전의 제단에서나 가정에서나 똑같이 함께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관계임을 모든 신권 소유자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여 함께 봉사하는 아름다운 동반자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청소년들이 봉사의 정신을 기를 중요한 기회를 끊임 없이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너무 많이 맡았기 때문에 비활동 회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복음이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간증을 진실로 갖고 있는 청소년은 하나님 왕국에서 행할 의무를 버려 두고 떠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청지기의 직분을 갖고 있는 감독단은 정원회 활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청소년 모임이 잘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정원회 관리를 배울 때 정원회의 아론 신권 청소년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래의 아버지로서 준비하는 것이며,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의 장래의 지도자로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의 경험, 봉사 활동 경험, 연설 경험, 모임을 사회하는 경험, 여성과 건전한 교제를 갖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녁 이 모임에 참석한 수천 명의 형제들과 같이 특별한 일을 해야 할 귀한 젊은 세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경전을 공부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간을 내어 계획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가끔 우리는 준비성이 없는 아버지와 성인 지도자가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말일성도 청년들에게 세상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더 크게 신속히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훌륭하고 신속하게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점점 불어나고 있는 이혼자를 볼 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또한 “포기와 체념의 상태”에 빠져 있는 가족이나 부부를 볼 때에도 똑같이 염려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사려깊게 구애를 하는 사람들은 대개 결혼 생활

에서도 조심스럽고 사려깊게 행동합니다. 현재와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난 후 주님의 집에 들어 가는 사람들은 이혼을 하거나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일이 훨씬 드물 것입니다. 이는 인봉 의식의 영향 때문만이 아니라 결혼 전에 결혼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제하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랑의 유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모든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본이 되는 희생과 이타심의 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 아버지, 남편 그리고 아들 여러분께 가정에서나 정원회에서나 와드에서나 사회에서 의사 전달을 잘 하는 능력을 개발시키기를 권고합니다. 신권 소유자가 스스로 개인적인 향상을 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바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 없이 발전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성도로서의 우리의 충실한 생활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가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동안에 보이는 약점을 쉽게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침착하게 결단력을 갖고 개인적인 목표를 진지하게 설정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일정한 일을 성취함으로써 향상을 기하는 것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론 신권 청년들에게도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권 소유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않으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누룩입니다.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 여러분의 권세를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젊은 남녀가 단 한 번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보다 일찍이 이해하기 바랍니다. 나는 어릴 때 한 결심에 관해 전에 이 연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결심은 변경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내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어떤 일을 멀리하고 청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해야 할 어떤 일들 한 번 결정하고 난 후에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서는 안될까를 다시 생

각하고, 또 다시 결정할 필요가 없이 결정된 일을 해 나가갈 수 있습니다.

결단력과 용기가 없는 태도가 바로 악마가 노리는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형제 여러분, 아직도 결심하지 않았다면 결심할 결정을 내리십시오.

우리는 회원 혹은 비회원인 노동자 혹은 기술자들과의 우정 증진을 위해 좀더 힘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노동자나 기술자들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에 있는 전문가나 이른바 지식층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노동자라 불리우는 사람들을 위해 현재보다 더욱 많이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기술자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들 중에는 많은 수련 장로가 있으며, 우리는 그들의 힘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이들이 우리와 합세함으로써 그들의 가족도 개종할 것입니다.

회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많은 회원들이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으므로 신권 지도자는 왕국의 건설을 위해 바치는 희생이 십일조, 금식 헌금, 건축 기금, 와드 예산 등 기본적인 부담 이외에 불필요한 비용을 더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우리처럼 연로한 사람들, 말하자면 교회가 윈터 쿼터즈에서 발전하고 있을 때 성장한 사람들은 뒤에 오는 자들이 추수할 수 있도록 씨를 뿌리던 “윈터 쿼터즈”의 관습을 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을 위하여) 간증의 씨앗을 심고 그들이 세상 곳곳에 기근이 만연할 때 믿음의 빵을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개척자가 됩시다!

시민으로서 의무는 물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법률을 준수하고 지지하십시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권고대로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하십시오.

은연 중에도 교회와 정치를 관련시키지 마십시오. 주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교회의 입장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기 쉽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힘을 발전시키십시오. 그러면 가정에 행복이 올 것입니다. 의로움은 개인에게서 그룹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 탐구, 기도를 통해) 개심했다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개심했다면 산 자나 죽은 자를 위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비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의무를 상기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이키지 않으면 형제를 굳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그리고 딸

대회 방문자



어느 누구라도 경전과 현대 예언자의 말씀을 공부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서는 안됩니다. 아무도 기도와 침사 숙고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서는 안됩니다. 또한 아무도 교회에서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지나치게 바쁜 나머지 이웃을 위해 은밀히 봉사할 시간도 없어서는 안됩니다.

“소년들에게는 링컨이나 워싱턴 같은 영웅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소년들에게는 보다 가까이 지내는 영웅도 필요합니다. 그들은 끝없이 솟아나는 힘과 고결한 성품을 지닌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들은 그들과 길에서 만나고, 소풍을 가서 함께 야영도 하며, 매일 일상 생활을 통해 개인적으로 묻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윌터 맥 픽)

나는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이와 같이 가까이 지내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밤을 가질 때 이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은 와드 회원에게 이혼을 하도록 조언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을 화해시키고 그들의 개인적인 생활을 조정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의 청소년은 축복을 받기 위해 더 나이가 많아지거나 오랜 경험을 쌓아야 할 필요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 스미스는 14세에 시현을 보았고, 25세에 교회를 조직했고, 18세에 모로나이를 만났으며, 24세에 금판을 얻었고, 39세에 순교당했습니다.

토마스 비 마쉬 형제는 31세에, 데이비드 더블류 패튼 형제는 30세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모두 청년이었습니다.

1830년 4월 6일,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 브리감 영은 28세, 히버 시 킴블 28세, 올슨 하이드는 25세, 윌리엄 이 맥켈런은 24세, 팔리 피 프랫은 23세, 록 존슨은 22세, 윌리엄 스미스는 19세, 올슨 프랫은 18세, 존 에프 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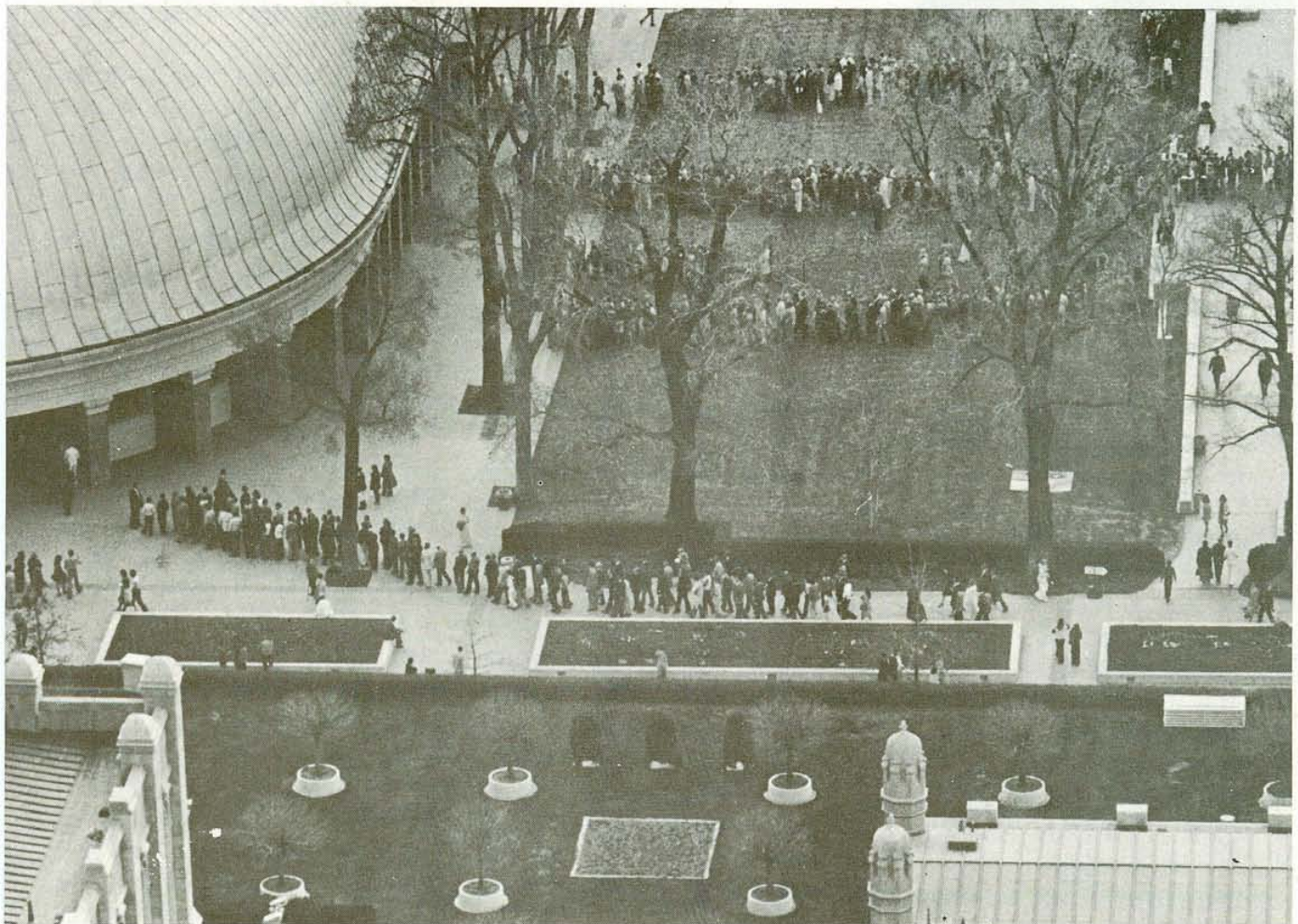
튼은 18세, 라이만 이 존슨은 18세였습니다. 그리고 1835년 십이사도 평의회가 조직되었을 때 이들 대부분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순교당시에도 이들은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이제라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수한 선교사가 될 수 있고, 강한 청년, 훌륭한 동반자, 행복하고 신뢰받는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매년 성장하여 주님의 영감을 받아 영광스러운 복음의 축복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나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대회장의 입장을 위해 줄 서 있는 성도들



이 땅의 하나님을 섬기면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 1 보좌

주님의 영원한 계획의 견지에서 본 미국의 운명



본 대회가 미합중국의 독립 2백주년
이 되는 해에 갖는 첫번째 대회
이므로 나는 이를 복음은 물론 생명과
구원의 위대한 계획과 관련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건
국,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현대적 발
명, 전세계에 미치는 뉴스 미디어 등
에 관한 많은 일에 관해 읽고 들었으
며, 국가간의 상호 관계를 잘 알고 있
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각자 출생하여
살고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보금자
리가 있는 조국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시인 월터 스
콧 경(1771—1832)의 시가 생각납니
다. 그의 시, “마지막 음유 시인의 노
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나의 조국이라고

자신에게 말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
외국을 방황하다.

발길을 돌이켜
조국을 향할 때에도
가슴에 뜨거움을 느끼지 않았던
그 사람

이제 지친 영혼으로 되돌아 와서는
거기서 안도의 숨을 쉬고 있네.

지난 몇 주간 나는 킴벌 대관장님 일
행과 함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그밖의 남태평양의 아름다운
섬들에서 열린 바 있는 지역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뉴질랜드는 주님이 특히 사랑하시는
훌륭한 나라라고 말했으며, 마지막 대
회를 가진 타히티를 떠나기 전날 밤
총관리 역원 한 분은 “내일이면 우리
엔 동산에서 쫓겨나겠군요”라고 말
했습니다.

나라마다 주님의 커다란 축복을 받
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그 아름다
움과 백성과, 관습과 전통이 독특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서반구, 특히 미
합중국에 관해서만 말씀드리고 주님의
영원한 계획의 견지에서 미국은 어떠
한 운명을 지니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
고자 합니다. 미대륙의 발견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미 천국
회의에서 예임되었던 것입니다. 옛 선
지자는 이를 시현으로 보았습니다. 아
굽이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할 때 이
를 미리 알았습니다. “...샘결의 무성
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창 49
: 22, 26)

모세도 요셉 지파에게 약속을 했습
니다. 그는 요셉 지파의 땅 즉 미대륙
은 하늘과 땅의 일을 위해 귀하게 될
것이며, 요셉은 “열방을 받아 땅 끝까
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신 33 : 13—17
참조)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성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물몬경을 보면 미대륙에 처음
온 야벳인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세우는 동안인 언어
의 혼란기에 왔습니다.

노아가 지시를 받았던 것처럼 이들
도 배를 만들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그들은 배를
떠우고 “...모두를 주 저희 하나님께 말
기고 저들의 배에 올라 바다로 나아”갔
습니다.(이더 6 : 4)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
습니다. “...저들은 약속의 땅 해안에
발을 딛으면서 바로 땅 위에 었드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낮추
고 주가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신 풍성한 자비에 감사하며 주 앞에
기쁨의 눈물을 금치 못하였으며,”(이
더 6 : 12)

그리고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600
여년 전에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회개
하라고 외치던 예언자 리하이는 주님
으로부터 가족을 이끌고 광야로 떠나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사
악함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는 비웃음과 조
롱을 받았으며, 백성들은 그를 죽이려
고 했습니다.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그는 가족과 그밖의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광야에 얼마 동안 머무른
후에 그는 배를 만들어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날을
항해한 후에 우리 일행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나니, 육지로 올라가 천막을
치고 그 곳을 약속의 땅이라 이름하였
고.”(니일 18 : 23)

광야에 있는 동안 리하이의 아들 니
파이는 약속의 땅 곧 미대륙의 운명에
관해 일어날 일을 시현으로 보게 되었
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사람이 이방인들 가
운데 섰는데 큰 물로 인하여 나의 형
제들의 자손에게서 떨어져 나와 섰더
라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임하심에 저 큰 물을 가로질러 약속의

땅에 있는 내 형제들의 자손들에게로 나아가니라.”(니일 13:12)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대양을 건너 미대륙을 제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펴는 데 도움을 준 크리스토퍼 컬럼버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컬럼버스 자신도 스페인 왕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고, 저를 바다로 내보내 일을 성취하겠다는 불같은 욕망을 주셨습니다. 제 모험에 관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성신이 내게 영감을 주었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마크 이 피터슨, 더 그레이트 프로그, 데저렛 출판사, 1975년, 26페이지)

항해를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도 육지가 보이지 않자 선원들은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컬럼버스는 돌아가기를 원하는 핀타호와 니냐호의 선장에게 48시간 이내에 육지가 나타날 기미가 없으면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표현대로 그는 자기 선실로 들어가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음날인 10월 12일 그들은 육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니파이는 종교적 박해를 피하여 청교도들이 미대륙으로 올 것을 시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미대륙으로 올 것과 전쟁과 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니파이의 말과 같이 그들은 주님 앞에 점손했으며 “하나님의 권세는 이런 이방인들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들을 대적하여 싸우려 물려든 우리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느니라.”

“나 니파이가 보니, 속박에서 놓여 나온 이방인들이 모든 다른 나라의 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 나니라.”(니일 13:18-19)

그리하여 식민지였던 미대륙에는 독립을 얻어 합중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 땅을 마련하고 이 땅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께서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른바 새로운 땅에 정부를 수립하고, 헌법을 제정하는 위대한 일을 맡아 하셨던 훌륭한 분들을 찬양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일도 역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의 법률과 헌법에 따라 당국에 간절히 청원하라. 이 법률과 헌법은 내가 허락하여 저들로 제정하게 한 것이요, 공정하며 신성한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의 권리와 안전을 수호해야 할 것인즉,

“이로써 내가 준 도덕적 양심에 따라 모든 사람이 저마다 미래에 관한 교리와 원리에 일맞은 행위를 하게 하며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도 서로 속박함은 옳지 아니하니,

“실로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세운 현명한 자의 손을 빌어 이 나라의 헌법을 제정하게 하였으며 피를 흘림으로써 나라를 구축하였느니라.”(교성 101:77-80)

세상의 어떤 헌법도 미국의 헌법처럼 오래도록 유지된 것은 없습니다. 이 과거의 기록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기적으로 여겨졌고 또한 지금도 하나의 기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워싱턴도 매디슨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인도와 영감을 받아 제정된 헌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제임스 매디슨은 이같이 영감을 받아 헌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능자가 이 새로 수립되는 국가를 축복했으며, 보호하고 인도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마크 이 피터슨, 더 그레이트 프로그, 95페이지)

우리는 미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헌법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합중국의 헌법은 영광스러운 표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기초로 삼아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것발입니다.”(마크 이 피터슨, 더 그레이트 프로그, 75페이지)

이 헌법은 무엇보다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여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많은 위대한 개혁자들은 성서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본 가르침을 다시 주장하기 위해 힘을 기울인다



존 에이치 반텐버그 장로, 십이사도 보조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의식을 집행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교회를 다시 세울 권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보존했어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미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침례 교회를 창시한 로저 윌리엄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상에 그리스도 자신이 세우신 참다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교회 의식을 집행할 권능을 가진 자도 없다.”(리그랜드 리차즈, 기이한 업적, 데저렛 출판사, 1973년, 29페이지)

우리는 종교의 자유 및 이곳에서 일어난 개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마련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회복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1820년대에 미합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주님께서 선택하셨으며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고대 미대륙의 백성과 이들을 위해 행하여진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참된 기록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권과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시 조직할 권능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과거의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 스미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상에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원리와 의식과 조직을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초대 교회로

부터 배도가 있었다는 것에 관하여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습니다. 복음의 회복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돌아가심과 부활이 있는 후에 인류 역사에 나타난 가장 커다란 사건입니다.

고대 미대륙의 주민들도 구세계의 주민들처럼 주님의 오심과 그의 사명, 돌아가심과 부활을 알리는 똑같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관해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미대륙의 주민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신약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 10 : 16)

물론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이들 “다른 양”을 방문했고,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손 발의 못자국을 보고 알아 보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다른 양”이었음을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바로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그 양이라.”(니삼 15 : 21) 주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고 성찬을 제정하여 주시고 제자들을 성임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는 권능을 주셨고, 병자를 고치셨으며, 어린이를 축복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심을 우리가 보매 이같이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의 눈이나 귀로는 보고 들은 일이 없으며,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우리에게 차고 넘치던 기쁨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느니라.”(니삼 17 : 16-17)

그러면, 미국의 장래는 어떠할까요? 자유, 주님의 참되고 영원한 복음이 회복된 땅을 주신 일, 가장 중요한 사건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마련해 주신 준비와 인도 등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야벳인이 미대륙에 처음 왔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라 이 땅은 복된



캄보디아인인 반타 혹은 자매와 그의 조카 딸

땅이라 이 땅을 어느 백성이 차지하게 되든지 이 땅의 하나님 곧 그 나타나심이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진대, 속박에서 자유로워질 것이요, 종된 것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요,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자유롭게 되리라.”(이더 2 : 12)

오래 전에 존 로드 박사는 그의 저서 역사의 햇불에서 미대륙의 발전과 미국의 영향력에 관해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세제는 많은 강대한 제국이 있었으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고대 세계의 흔적이 어디 있는가? 부와 권력의 중심지였던 니느웨, 바벨론, 테베, 두로, 카르타고의 흔적은 어디에 남아 있는가? 법률과 문학과 복원된 조각을 제외하면 로마의 위대함은 어디에 남아 있는가? ...시대를 가리지 않고 단순한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있다. 즉 산업, 부, 부패, 몰락 멸망의 이야기이다. 고대 국가의 멸망

을 방지할 만큼 강한 보수적 권력이 있었던가?

“한없는 물질적인 면에서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발전 뒤에 부패와 멸망을 맛보는 것이 미국의 운명이라면 컬럼버스는 인간이 물질적 실험을 할 장소를 넓혔을 뿐이다. 뉴욕이 제2의 카르타고가 되고, 보스턴이 제2의 아테네가 되고, 필라델피아가 제2의 안디옥이 되고, 워싱턴이 제2의 로마가 된다면 옛일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은 옛일을 되풀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발전하여 부강하게 될 더 높은 차원의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닐까? 더 높고 숭고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미국이 선언하고 이루어야 할 더 커다란 사명이 있다면 새로운 힘을 한데 합쳐야 하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미국의 참다운 영광은 고대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야 한다.



올겐 연주자인 알렉산더 슈라이너 형제

이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고대 국가에는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모두 미국의 장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과거의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언자 리하이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오실 자를 위해 성별된 땅이라. 주께서 내리신 계명대로 주를 섬길진대 자유의 땅이 될 것임에 아무도 속박되지 아니하리라. 만일 속박된다고 하면 이는 저들의 완악함이니, 완악한 것이 일때 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나, 의인은 영원토록 축복을 받으리라.”(나이 1:7)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할 때 조지 워싱턴이 한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비옥한 땅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언제나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고, 당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훌륭한 산업과, 건전한 배움과, 그리고 품위있는 예절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폭력과 다툼과 혼란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자만과 교만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구해 주옵소서.

“자유를 지켜 주시고, 각처에서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로 단합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정부를 세운 저희에게 지혜를 축복해 주셔서, 안으로는 평화와 정의가 있게 하시고, 당신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땅위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당신의 이름을 받들어 찬양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번영할 때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을 당할 때 당신을 믿음으로써 이겨 나아갈 수 있

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우리는 백성들이 선량하고 충성스러우며,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왕, 대통령, 통치자, 장관에게 순종함을 믿으며 또한 법률을 존중하고 지키며 지지함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2조)

선량하고 정직하며 명예롭고 현명한 의원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의 60년 전인 1917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앤소니 더블류 아이빈스 장로가 종교적인 자유와 헌법에 관해 말씀하신 후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자유는 종교적인 것이든 법률적인 것이든 주님께서 부여하신 것으로써 결코 없애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강을 타고 땅 끝까지 퍼져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고,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온 천하의 아버지이시며, 인간은 모두 형제라는 것이 인정되며, 세상의 나라들은 평강의 왕으로 다스리실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대회 보고, 1917년 4월, 54, 55페이지)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며, 주님께서는 예언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시든 복음의 율법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많은 의를 이루시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활동적인 회원이라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아직 회원이 아닌 분이 계시다면 충만한 복음이 모든 의식을 집행할 권능과 함께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부하여 알고 간증을 얻으시기를 권고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대로 생활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국의 운명이 이루어질 것이며, 세상은 형제애로써 평화와 단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원합니다. 아멘. *

가족간의 대화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가족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는 각기 반성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몇 주 전 난처한 입장에 처한 어느 아버지가 내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원만하게 대화를 하는데 왜 아들과는 대화를 할 수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할 수 없다니 무슨 말씀이지요?”

“제가 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마다 그 놈은 딴청을 피우거든요.”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후에도 자주 이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가족간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대화에 관한 기본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가족간의 대화는 희생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을 주고, 함께 나누며, 이해하려면 시간, 금전, 재능, 인내 등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빈번히 대화의 시간에 이야기하거나 지시하거나 간청하거나 위협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가족간의 대화 중에 강요나 명령이나 당황시키는 인동을 결코 해서는 안됩니다.

가족간의 대화가 효과적인 것이 되려면 감정과 지식을 서로 나누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가족이 시간을 내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때 대화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가족의 토론에서 견해 차이가 있을 때는 이를 무시하지 말고 잘 검토하여 조용히 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견해나 의견이 화목하고 지속적인 관계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대화를 위해서는 예의와 존경을 보이며 경청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훌륭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사랑과 신뢰와 관심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이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망을 느껴 대화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여 대화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불쾌감을 주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논을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존즈 스티븐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머리가 어떤 것을 들을 때 비로소 마음도 듣게 되며, 마음이 어떤 일을 오늘 알면 머리는 그것을 내일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의 대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

기 위한 7가지의 기본적인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기꺼이 희생하려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기꺼이 시간을 내는 가족의 일원이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대화를 원하는 필요사항보다 가족의 필요사항을 먼저 생각하는 능력과 자기 수련을 쌓으십시오. 즉 나누어 주는 시간, 가르치는 시간을 기꺼이 마련하십시오. 자신의 선입관에 집착하지 않고 가족의 선입관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십시오. 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는 날은 슬픔을 느낍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데 자신만은 주시지 않아.”

다른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상황에 있을 때 즉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혹은 데이트, 상심, 성공, 실망을 했을 때라든가, 비밀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에 반응을 보이려면 회생을 해야 합니다. 가족간의 대화를 위한 굳건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기꺼이 희생해야 합니다. 가족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는 각기 반성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2. 대화의 장소를 잘 마련하려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하는 장소의 위치, 배경, 환경 등이 편하고, 은밀하며, 대화를 하고 싶은 의욕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대화는 작은 숲속, 산, 바닷가, 가정의 밤, 산책 중, 자동차 안, 휴가 중, 문병 중, 그리고 등교 중이나 운동 경기 중에 잘 이루어집니다. 장소가 마련되면 가족의 말을 열심히 듣고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야구 구경을 간 후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면 득점수를 잊어 버릴는지 몰라도 아빠와 함께 구경한 추억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10살 된 소녀가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솔트레이크에서 프로보까지 갔다 왔다고 기쁨에 넘쳐 이야기하는 모습을 나는 쉽사리 잊을 것 같지 않습니다. “라디오를 틀어 놓았었어?” 하고 내가 물었더니, “아니예요, 아빠와 이야기만 했어요.” 이 소녀는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한 즐거운 경험을 쉽게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러한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원할 때면 언제나 이러한 대화의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3. 귀를 기울이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기만 한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부단히 주의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말을 들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을 의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도움, 우리의 공감을 구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때가 바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보이는 때입니다.

우리는 위로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 열심히, 자연스럽게 듣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랑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약 1: 19-20).

4. 느낌을 말로 기꺼이 표현하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꺼이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족의 모든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에게 우리의 느낌을 추측하도록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추측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생각과 기대하는 바를 이해한다면 보다 훌륭한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포웰은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조그만 병실에서 나는 팔로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뒤로 쓰러지셨습니다. 나는 그의 머리를 베개에 조용히 올려 놓았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

“모두 끝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 가셨어요.”

“나는 그때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지 모른다. 너를 끔찍이 사랑했어.’ 라고 컷마디에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이 말이 나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말은



대관장님의 부인인 카밀라 킴블 자매(앞)와 그의 친구

나에게 마치 섬광과 같았으며,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느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마치 내가 아버지께서 살아 계셨을 때보다 돌아가신 후 아버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얼마 후 의사가 죽음을 확인하는 동안 나는 방 저쪽 구석에서 벽에 기대어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간호원이 나에게 와서 어깨에 팔을 얹고 위로를 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가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간호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고 나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하셨어요. 물론 나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아버지의 생애와 마음속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말씀을 안하셨어요.”(사랑의 비결, 나일스, 일리노이주, 아거스, 1974년, 68페이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의미있는 것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힘찬 대화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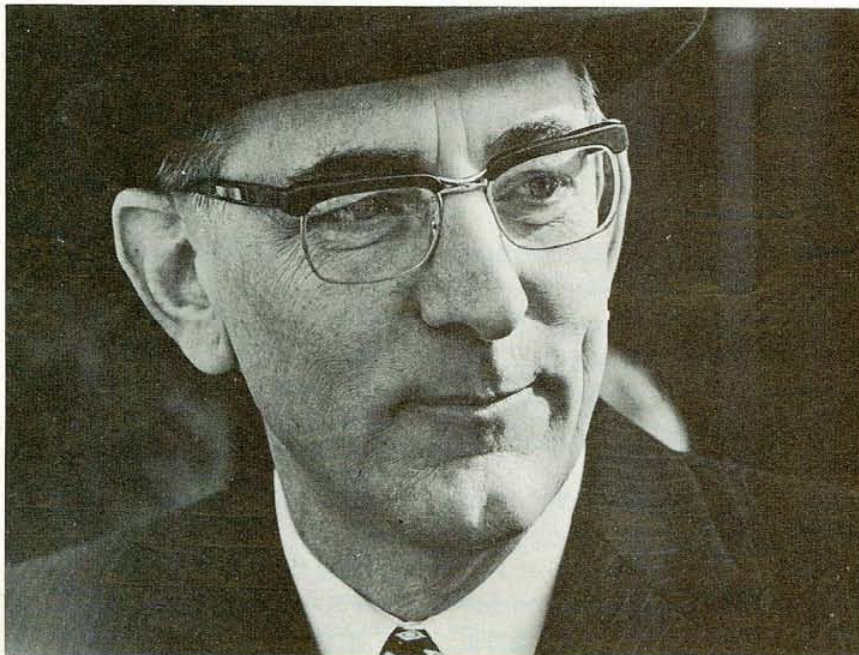
부모는 서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녀와 효과적인 대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상냥함과 사랑을 지니고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감수성이 예민한

자녀들은 이를 듣고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목소리를 사용하여 말할 뿐 아니라 어조, 감정, 시선, 태도 그리고 인격을 나타내 보이며 효과적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내나 딸과 이야기할 수 없게 될 때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는가?” 하고 생각하기 전에 “나의 방법에 잘못된 점이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의미깊은 미소,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것, 따뜻한 악수 등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침묵은 소외감을 갖게 합니다. 긴장된 침묵은 의아심과 상심과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어 갑니다.

5. 비판을 하지 않으려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에 놀라움과 혐오감을 나타내지 마십시오. 난폭한 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 인간의 자유의지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십시오. 밝고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십시오. 희망이 있습니다. 돌이킬 방법이 있습니다. 보다 훌륭히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놓으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8:11)는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와 같이 설득력있는 부드러운 말씀입니다.

침실인 제일 정원회의 제이콥 디오거 장로



여러분의 가치관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주입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개성에 치우치지 않고 문제를 다루며, 편견과 감정을 피할 수 있다면 가족간의 대화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일원이 부적당하거나 옳지 못한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그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시하면서도 그에게 결정의 권리가 있으며,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의 일원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인내심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까?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란 쉬운 일입니다. 진실로 칭찬해 주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참으로 원숙한 부모가 안기고는 실수를 한 경우 자녀에게 사과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정직한 사과는 아들이나 딸로 하여금 부모와 형제 자매에 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온정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약 3:2)

6. 비밀을 지키려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중요한 일에도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심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뢰와 관심을 보이십시오. 신뢰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마음을 터놓고 믿고 이야기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

입니다.

7. 인내심을 나타내 보이는 열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스스로 인내심을 발휘하지는 못하면서 상대방이 인내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내심을 보여야만 자신에 대한 인내심도 기를 수 있습니다.

“...인내하며 근신하며 절제하라. 인내와 신망과 희망과 자비를 품으라.” (교성 6:19)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궁지와 희망과 사랑을 나타내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포기하여 더 이상 노력하기에는 완전히 지쳐 버린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가족중의 일원의 잘못을 다른 가족이 보는 앞에서 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갖는 대화는 보다 효과적입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 조용히 인내하는 것은 값진 미덕입니다.

가족이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호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반감을 일으킵니다. 가족단위는 교회의 기초가 되므로 가족자가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간의 대화는 단합된 영원한 가정을 건설하는 데 주요 요소가 됩니다.

나는 기꺼이 회개하고, 기꺼이 듣고 느낌을 말로 표현하고, 비판하지 않으며, 비밀을 지키며, 인내심을 기쁨으로써 가정에서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욥 6:25) 정말 그렇습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에게 하는 적절한 말은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보다 효과적인 가족간의 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노력한다면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가정의 단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보조

주님은 그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는 그의 능력과 권세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수 세기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 18 : 20) 구세주의 이름으로 생활하고 모이고 경배하고 구세주의 지지를 받고 모든 생활에서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일성도들의 귀중한 특권입니다. 지난 10월 이래로 워스린 자매와 함께 나는 중부 유럽, 스칸디나비아와 핀란드 각지로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여행하면서 선교부장 11명과 그 지역의 스테이크 부장 8명을 만나 보았습니다. 나는 이 여행에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진리를 전파하는 1500여명의 선교사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다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헌신하는 그들의 열성에 놀라실

것입니다.

또한 나는 유럽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의 군인 형제에 대한 말씀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회원들 가운데 가장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각지에 교회를 짓는 데 수천불이나 되는 금전과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노력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교회가 세워져서 헌납되기도 전에 본국으로 돌아오거나 다른 곳으로 전속되어 그 예배당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유럽에서의 하나님 왕국의 사업의 최대의 영광은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며 복음에 따라 즐겁게 생활하고 또한 이 복음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수천 명에 달하는 충실한 회원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짊어진 의무와 책임은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당시 40년 동안 침례 교회 목사였던 제임스 코빌 형제에게 주어졌던 계시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말일성도가 되는 첫 단계는 참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코빌 형제에게 들려 주신 주님의 말씀이 교리와 성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복음은 이것이니 곧 회개와 물의 침례 그리고 그 후에 오는 불과 성신 곧 모든 것을 보여 주시며 왕국의 평화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의 침례니라.” (교성 39 : 6)

코빌 형제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이를 행하면, 더욱 큰 일을 위하여 너를 준비시켜 왔으

니, 이 말일에 내가 세상에 보낸 충만한 나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보낸 성약을 전파하라.” (교성 39 : 11) 한편 코빌 형제에게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때에 권능이 베풀어질 것이요, 큰 신앙을 갖게 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네 앞장을 서리라.” (교성 39 : 12) 이 경륜의 시대에 제임스 코빌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교회가 세워진 지 겨우 9개월 후였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그가 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동안에도 강조하신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그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하신 약속은 우리 각자에 대한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우리의 교회 봉사와 우리의 개인 생활에 함께 하실 것과 우리의 가족에 대한 깊은 염려를 약속하신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에 관해서 그의 친밀한 관심을 보이실 것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친구이며 두 스테이크에서 따로 떨어져 살았던 다음의 두 자매의 생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자매는 교회 밖에서 결혼했고, 남편을 개종시켜 신전에서 결혼하고 인봉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아름답고 영적인 품성을 길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은 그러한 훌륭한 품성을 눈여겨 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늘 가족의 종교적인 생활에서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그녀의 가족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가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그녀와 자녀들은 그들이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훈계에 따르기를 게을리하고 이에 병답했어도 변명할 구실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훌륭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 : 16)

또 한 자매는 훌륭한 신앙을 가진 말일성도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주님께서 언제나 가정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함께 기도하자는 처음의 결심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교회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훌륭한 것이라고 늘 생각하기는 하지만 이미 “그 맛을 잃은”(마 5:13) 세상의 소금이 되어 버렸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자매가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두 번째 자매는 첫 번째 자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은 교회 밖에서 결혼했는데도 자매님의 자녀들은 어째서 그렇게 훌륭하게 되었으며,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 자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와 성찬식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두 번째 자매는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들을 보았는데요.” 그러나 첫 번째 자매는 “그렇지만 저는 그들을 꼭 데리고 갔지요!”라고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경우는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경우와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집에 있거나 또는 다른 곳에 있거나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한번은 예수님이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계 3:2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 그가 우리의 생활에 들어 오시도록 하지 않으면 그는 우리 가운데 들어 오실 수 없습니다. 단순한 지식 그 자체는 반드시 힘을 치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만으로는 동기를 주지 못합니다. 논리도 역시 그러합니다. 인간의 행동의 동기는 지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 비롯되며 행위가 감정을 낳는다는 사실이 교리와 성약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함께 하리라. 나는 너희 앞에 앞서 갈 것임이므로 너희 오른쪽이나 왼편에도 있으리라. 나의 영은 너희 마음에 있겠고 나의 천사는 너희를 둘려 있어 너희를 감싸 주리라.”(교성 84:88)

오직 우리의 구세주를 받아들여 그의 뜻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계명을 어기면 또한 그로 인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의 죄와 탈선 행위로 그들

의 마음이 상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번민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의로운 자녀로 길렀는데, 우리의 가정은 언제나 훌륭한 가정이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도록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자녀들은 모든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교훈은 반드시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의지와 욕망을 갖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진실로 무지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악행의 근본 원인은 욕망의 부족 즉 강한 동기 또는 의로운 영향력의 부족, 교훈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마 5:6) 행동과 의를 행하겠다는 느낌을 통해 항상 생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첫째 원리는 “욕망의 원칙” 즉 하나님과 그들의 이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마 22:37) 사랑하겠다는 욕망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생활을 하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교성 4:5) 구하며 살아 가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훌륭한 선교부장, 군인 형제, 선교사, 충실한 교회 회원들의 생활에서 명백히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온전함을 얻는 과정에 대한 바울의 감동적인 말씀에서 명백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살전 1:5-6)

이 영적인 기록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메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듣되 커다란 관심을 가지며, 그들이 배운 바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의를 행하겠다는 강

한 욕망을 갖게 되었으므로 바울은 그가 그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성령은 그들이 배운 바가 참되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가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들의 최고의 업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웃에게 영적인 모범을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서나 사람들을 만나 존경심을 나타내며 이야기했고 그들은 그의 훌륭한 업적과 신앙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새로운 지역에 이주했을 때 그들은 집을 얼마나 견고하게 영구적으로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이주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는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집이라고 생각하고 지으십시오.”라고 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은 잠시도 그들의 성스러운 사명을 잊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서, 또한 영원을 위해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의깊게 연구해 보면 우리는 위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성공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결코 지름길을 걷지 않고 예수님과 그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충실히 실천하면서 강하고 신앙이 깊은 우리의 지도자의 영적인 지시에 얼마나 충실히 따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위대한 예언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의 탁월한 지도력과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모범과 위대한 생애와 총관리 역원들의 성스러운 부름과 전 세계의 많은 말일성도들의 훌륭한 생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힘과 고상함에 대해 간증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커다란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이면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구세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네 가지 일

로버트 엘 심슨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보조

모든 성도를 돕기 위한 목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은 참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참됨을 알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 대회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평온한 영을 느꼈습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메시지는 얼마나 훌륭하며 참된 것입니까!

나는 먼저 남태평양 군도의 성도들의 사랑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 지역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빈 가방을 몇 개 가지고 와도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과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을 돕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 자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지상에 태어날 자녀와 이미 죽은 자녀들까지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약을 맺음으로써 그러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전 5:4-5)

이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물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성스러운 성약을 맺게 됩니다. 칠 일 중 하루 즉 안식일에는 함께 모여 성찬을 취하면서 그 성스러운 서약을 새롭게 합니다.

나는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 둔 중요한 네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모두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구세주의 중요한 관심이 사람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적하신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모 1:39)기 위한 일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개인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신권이 필요합니다. 신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신권 원리에 따를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회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과 가족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한다.

둘째, 형제들을 지키는 자가 되며 교회 회원을 돕는다.

셋째, 우리가 가진 가장 귀중한 은사인 복음을 이웃과 나눈다.

넷째, 죽은 조상들의 영원한 축복을 위한 기회를 마련한다.

여러분 개인의 복지를 맨 처음에 두

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것은 나머지 세 가지는 오직 힘과 신념만 있으면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근원은 빛과 진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계속적인 제시로 세워진 아름다운 건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과 진리는 이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받고 책을 파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주어야만 합니다. 진리란 개인의 간증과 개인의 합당성의 날개를 타고 가장 잘 날아 다닐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2) 그때 베드로가 한 대답이 중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눅 22:33)

하나님의 사업과 영광은 우리의 준비로써 시작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의무를 배우”(교성 107:9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3) 또한 이렇게 되려면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합니다. “와서...나를 좇으라”(마 19:21)

참된 개심은 우리의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열의로써 나타납니다. 우리는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으며, 부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향상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두 번째 의무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지키는 자가 되며,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 서로 서로 왕국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나는 가정 복음 교육 프로그램은 이 교회내의 모든 사람의 생활을 가장 훌륭하게 돌볼 수 있는 영감받은 프로그램임을 간증드립니다. 이 위대한 신권 프로그램과 상응되는 것이 바로 상호 부조회 방문 교육입니다. 바울은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는 디모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어 보였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신 다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교성 88:77) 이것은 단순한 제언이 아니라 우리가 꼭 듣고 실천해야 할 계명입니다. “네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

나는 가정 복음 교육에 관한 다음과 같은 비유를 좋아합니다. 한 연사가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입는 격자 무늬의 옷을 치켜 들고 우리는 이 격자 무늬 옷의 각 색깔을 교회의 각 프로그램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 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 복음 교육은 이중 어느 색깔에 해당될까요?” 그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가정 복음 교육이란 어느 한 색깔이 아니라 그 옷 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정 복음 교육이 완전히 수행되면 모든 가족의 갖가지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복음 교육을 “단지 별개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교회의 모든 면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지상에 살고 있는 40억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함으로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역시 여러분과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 그의 사업과 영광을 성취하게 하며 그의 모든 자녀를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해야 할 세 번째의 위대한 목적과 맹세는 이들 40억의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준비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이들을 계속해서 찾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의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하고 절실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 현재 23,000명의 훌륭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50개국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께서는 오늘날의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아직 미흡하다 할찌라도 교회의 25세 미만의 미혼자들은 앞으로 선교사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훈련하고 그들이 가능한 한 그들의 선교사 비용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남태평양 군도의 지역 대회를 개최하는 동안 킴벌 대관장님은 피지에서 많은 인디언 개종자들을 만났을 때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들 신앙의 개척자들이 때가 이르면 그들 백성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시드니에서 가진 일요일 아침 첫 모임은 국립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십만 가정에 생방송되었습니다. 말씀도 아주 훌륭했고 합창도 그들의 타고난 능력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다는 그 자체는 실로 기적적인 일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대개 2~3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이곳에서는 역사상 해약을 한 일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대회가 있기 두 달 전에 해약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실로 역사적인 사실이며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해약이 또한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만 할 주말에 있었다는 것이 더욱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회 장소로서 오페라 하우스를 계약하게 됨으로써 대회가 전국적으로 방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방영이 있은 후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에서 비회원들로부터 편지가 날아 들었습니다. 그 편지 중 몇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편지에는 “그것은 가족 유대에 대한 단순하고 친절한 것이었으며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기도 했지만 서로간의 사랑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영적인 감명을 받았습니다”라고 적혀 있었고,

다른 편지에는 “저는 물론이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값진 지혜를 발견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는 “저는 여러분의 대관장님의 말씀에서 세상의 어떤 문학에서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합창과 말씀, 위대한 사업에 감명을 받았습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아침 제가 들은 말씀은 너무나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섭신한 일은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나가느라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라고 했고,

또 한 사람은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아직 저를 찾아 주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으며,

또 한 사람은 “여러분의 영적인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한 편지에는 “이러한 훌륭한 분들의 말씀을 듣고 저는 천국을 상상할 수 있었으며, 이제는 구원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종교에는 틀림없이 이에 대한 해답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를 도와 주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의의 길에 참여하여 함께 전진하는 것은 얼마나 뜻있고 흥미있는 일입니까? 하늘에도 역시 기뻐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나는 모두가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명을 명확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우리의 많은 조상들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침례받은 교회의 회원이 선조들을 외면한다면 그렇게도 간구해 마지않는 궁극적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주님의 영감과 지시를 받아 1842년 교회 회원들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편지로 보냈는데 교리와 성약 128편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나는 단언하거니와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원리 원칙이니 우리의 구원에 관계가 있어 결코 가볍게 넘겨 버릴 수 없는 것이니라. 이는 죽은 자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에 없어서

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임이라. 바울이 선조에 관하여 말한 것같이 우리 없이 죽은 자들이 완전하게 될 수 없고 우리의 죽은 자 없이 우리도 완전하게 될 수 없는 연고니라”(교성 128 : 15)

우리는 승영을 추구합니다. 승영을 얻으려면 완전해야 합니다. 완전에 이르는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죽은 자 없이 우리가 완전히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만 하고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대신 행해야 합니다.

많은 자들이 오늘날의 컴퓨터와 마이크로필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 줄 것이라는 그릇된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의 이기가

친지들과 함께 있는 엘마 소니 장로 (오른쪽), 십이사도 보조

필수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 고 할찌라도 인간이 스스로 행할 바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를 구원시켜 줄 기 계란 없습니다. 승영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죽은 자들을 구원합시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며 그것은 우리의 언약입니다. 복음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합시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지키는 자가 되고 서로를 가르치는 자가 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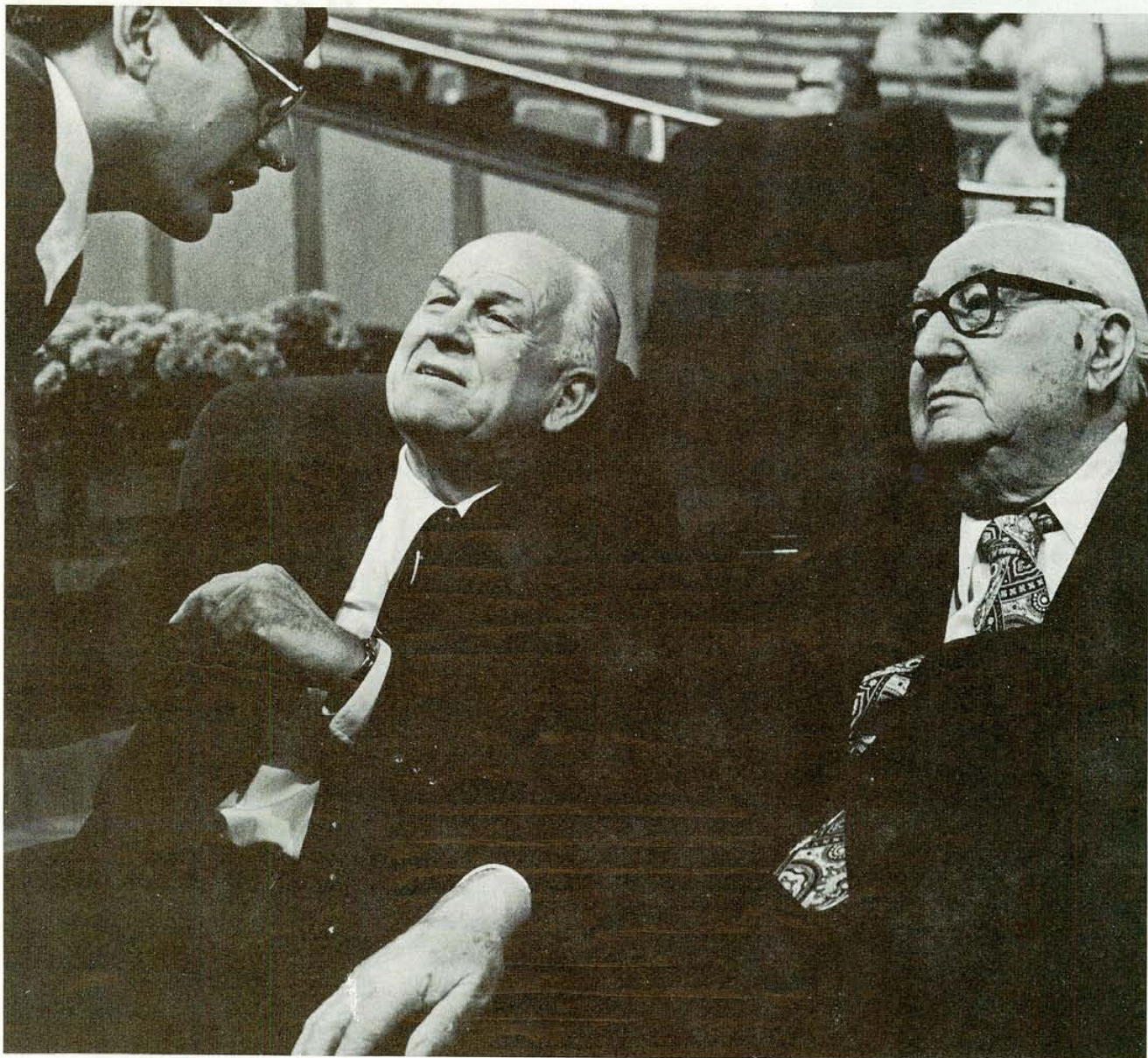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우리

는 각자의 의무를 배우고 가족을 가르치며 사소한 약점을 이겨 냅시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맹세한 모든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다 함께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합시다. 그분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전 5 : 4)

이것이 우리들 모두를 위한 나의 소망이요 간구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작품이다”

고든 비 힐클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부정직의 풍조가 만연하여 정부와 사회와 개인의 품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신다면 나는 가장 평범한 주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정수가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성품이 없다면 우리의 사회는 추악과 혼란으로 붕괴될 것입니다. 그 성품은 바로 정직입니다.

나는 발신인의 이름이 없는 편지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특별히 나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거기에는 20불짜리 지폐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그가 수년전에 나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는데 초인종을 눌렀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문을 열어 보았더니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집안에 들어와서 이리 저리 돌아다니다가 화장대 위에 20불짜리 지폐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집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동안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민해 오다가 드디어

이 돈을 돌려 주기로 결심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내 돈을 사용했던 그 기간 동안의 이자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감동적인 편지를 읽으면서 그가 장구한 세월동안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으로 고민했던 엄청난 대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그 돈을 상환할 때까지는 그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전 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이와 비슷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유타주는 200불이 동봉된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에는 발신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봉된 이 금액은 제가 주 정부에 제직한 수년동안 사용한 소모품 즉 봉투, 종이, 우표 등의 대가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불법으로 소유한 모든 것을 모조리 반환한다면, 정부나 실업제나 상가에 쏟아질 돈의 홍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사는 식료품과 쇼핑센터에서 사는 벅타이나 브라우스의 물건값에는 들치기 때문에 손해를 입는 업자층의 손실에 대한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의 이름을 값싸게 팔아 버렸니까! 나는 5불 미만의 물건을 훔치다가 체포된 어떤 저명 인사가 공개된 것을 회상합니다. 그가 법정에서 유죄 선언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사소한 비행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해야 했

습니다. 적어도 얼마간은 그의 어리석은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쌓은 많은 선행과 그가 앞으로 행할 선행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비행기에 탑승할 때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짐을 수색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것을 전부 합하면 수백만불에 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돈은 위협이나 공갈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소수의 부정직한 자들을 두려워하여 지불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람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무론한 실이나 신들배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창 14: 22—23)

다행히도 세상에는 정직의 원칙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들은 일본서 오사카발 나고야행 기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정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의 아내가 지갑을 기차에 두고 내렸습니다. 우리는 도오쿄로 정거장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3~4시간 후에 기차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철도국은 그 지갑은 그곳에 있었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도오쿄로 경유하여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그 지갑은 약 한 달 후에 솔트레이크시티의 집으로 배달되어 왔고 그 지갑 속에는 아무 것도 없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점점 경험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전에는 인간의 윤리나 도덕에서 다루던 것들을 이제는 국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법률은 점점 증가되고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억 불의 금액을 소비하며 교도소는 점점 늘어나고 부정직의 거센 물결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짓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거짓은 인간의 역사와 똑같이 오래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창 4:9)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 말라기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말 3:8-9)

오순절의 기적 후에도 교회 회원들 중에 속이는 자가 있었습니다. 개종한 자들은 그들의 땅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 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행 5:1-10)

우리의 시대에는 부정직한 자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적인 성품이 죽습니다. 양심이 베마르고 인격이 시들고 자기 존중이 없어지고 고결함이 죽습니다.

시내산에서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돌판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도적질하지 말찌니라”(출 20:15) 그후 다른



서 베르린의 제하겐 자매

세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들은 부정직과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간음하지 말찌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찌니라”(출 20:14, 16-17)

부정직이 따르지 않는 간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악이란 “기만”을 뜻합니다. 기만은 덕과 충성과 성스러운 약속과 자기 존중과 진리를 빼앗습니다. 이것에는 자기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최악의 부정직입니다. 이는 기만이란 가장 성스러운 인간 관계에 대한 배신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대한 야비한 행위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채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구하는 것이며 다른 부정직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는 슬픔

과 비탄과 실망과 배신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부정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7년간 옥살이를 한 어느 여인의 이야기가 최근 텔레비전에 방영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거짓 증언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거짓 증언 때문에 평판을 해치고 실망하고 출세를 망치게 되었던 예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역사책을 읽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차 대전에 참가했던 여러 나라 간에 자행되었던 속임수에 관한 상세한 기사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거짓의 호위라는 책인데 이 명칭은 윈스턴 처칠의 “전시에는 진실이란 너무나 귀중한 것이어서 언제나 거짓의 호



시온의 찬송가를 부른다

위를 받는다.”(제 이차 세계 대전 제5권, 보스턴 호우턴 미프린, 1951년 383페이지)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책에는 적대국 사이에서 자행되었던 수많은 속임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나는 전쟁이란 악마의 장난이며 전쟁의 가장 비참한 희생자는 진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허위와 기만은 평화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전쟁 중에 거짓말의 기교를 배웠던 자들은 평화시에도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풍토병처럼 독살스럽게 전염됩니다.

“탐내지 말라” 탐심 즉 악을 부식시키는 부정적은 세상의 최악의 슬픔의 근원이 아닙니까?

탐욕에 찬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얼마나 혈값에 팔아버립니까! 저는 최

근에 어떤 금융 회사의 간부를 소재로 다룬 한 소설을 읽었습니다. 사장이 사망하자 부사장이 그의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 다투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예와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탐욕에 가득차서 규정된 원칙을 무시하고 음모로써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하다가 결국 자신과 회사를 망하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는 소설에 지나지 않지만 회사나, 정부나 그의 모든 조직의 역사를 통해 볼 때 그들의 사리사욕만을 취하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출세하려는 탐욕스러운 자들은 남을 망치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 망치게 되는 예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량하고 유능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눈앞에는 커보이는 사소한 것들을 위해서 그들의 인격을 팔아버리고 악몽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악의나 속임수나 거짓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희귀하고 귀중한 보배입니까! 우리는 최근에 뇌물로 인한 부정적의 비극을 미국, 일본, 유유럽 등지의 각 신문의 일면에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다음과 같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 생각납니다. “작은 구멍이 큰 배를 침몰시킨다.” 또한 앤드류 잭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중의 덕 없이는 자유 정부는 설 수 없다.”

잠언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욕 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잠 6: 16-19)

오랜 옛날 한 영국 시인이 말한 다음의 글귀는 오늘날에도 진리입니다. “정직한 자는 신의 가장 고귀한 작품이다.”(알렉산더 포우프, 인간론 서한 III 248행) 정직이 있는 곳엔 다른 덕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신앙개조 12조에는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의 선행을 믿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생활화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부끄럼없이 진리의 빛 가운데 머리를 들 수 있는 귀중한 권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반면에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이자리에서 고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협력하는 자들은 부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노력하는 이 일이 참되다는 것과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언젠가는 우리들 각자가 우리의 한 일을 그분께 고해야 하며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시며 진리의 창조자이시라는 간증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엘 톨 페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하나님의 변함없는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에 커다란 축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 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는 이 하늘과 이 땅에 관하여 네게 계시하노니, 내가 이르는 말을 기록하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의 독생자를 시켜 내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니, 참으로 태초에 내가 하늘과 네가 서 있는 땅을 만들었느니라”(모세 2:1)

나는 경전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살 땅을 창조하기 위하여 주님이 준비하신 위대한 일을 알게 될 때 그의 창조의 과정에서 사용했던 체제와 질서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 창조의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대강 훑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은 인간이 살 장소를 창조하시기 위해 당시의 상황을 살펴 보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확실히 고무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땅은 형체가 없이 공허했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창조의 과정에서 최초로 필요했던 것은 “빛이 있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설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빛이 있으매 땅과 하늘이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지상의 집이 세워졌으므로 그는 인간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환경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땅과 물을 나누시고 땅에는 풀과 약초와 열매 맺는 나무로 채우시고 그것들이 종류대로 번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구의 지축을 중심으로 지구를 회전시켜 어둠과 빛으로 구분하고 어둠을 통하여 휴식을 취하게 하고 빛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지구의 자전으로 또한 시간과 날과 계절과 해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식물 계획을 마친 후 그의 솜씨를 조사해 보시고 잘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물의 창조에 착수하셨습니다. 먼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 후 땅 위로 나는 새를 만드시고 땅의 육축과 짐승과 땅을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되 생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창도가 완성되었으니 이제 인간이 살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물과 마른 땅과 밤과 낮과 식물과 동물들은 모두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공급 계획이 완성되었고 인간이 부지런히 일만하면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것을 조사해 보시고 잘 되었음을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지상의 집

을 위해서 세워진 모든 준비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들의 삶에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들 자신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필요로 했던 모든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들의 지상 생활에 책임을 져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경전은 주님이 인간들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여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였더라.” (모세 2:28)

주님의 물질적인 창조는 명백히 예언된 바이며, 그의 물질의 법칙은 영원 불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물질의 법칙에 대해서 잘 알게 됨에 따라 그가 이 법칙들을 지키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됩니다.

물질적인 창도가 완성되었을 때, 주님은 인간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가 지구상에 존재할 동안 어떻게 자신을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은 지상에 사는 동안 계명을 통하여 그들의 행위를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명에 따름으로써 얻는 보상은 명백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어기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명백하고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주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물이 들어 왔으나 그 선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보라, 저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 선물을 주는 자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니, 율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는 율법으로 보호받으며 율법으로 완전케 성별되나,

“율법을 깨뜨리며 율법을 감당하지 못하며 도리어 제 마음대로 행동하려 하며 즐겨 죄 가운데 거하려 하며 온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율법으로나 자비나 정의나 심판으로 성별될 수 없나니, 그러므로 저들은 여전히 더러운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니라.”(교성 88:33-35)

주해서에는 이 말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은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써 보호되고 완전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성결의 것이다.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의 몸은 깨끗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십일조의 법을 지킨다면 비이적이 되고 정직하게 될 것이며, 기도를 한다면 성신과 교통하게 될 것이며, 무슨 일이나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면, 매일 매일 완전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율법에 지배되기를 거절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성스럽게 될 수 없으며 율법은 물론 자비와 공의와 심판의 범위를 벗어나서 더러운 상태에 머물어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때문이다. 공의는 심판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정직한 노력을 고려할 것이다.”(하이람 엠 스미스 및 잔느 엠 쇼달, 교리와 성약 주해서 데저렛 출판사, 1972년, 546페이지)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은 인간의 법률이 하나님의 율법과 서로 상충되지 않아야 함을 명백히 알고 있었읍니다.

서독 뒤셀도르프에서 온 발터 감독과 하이기 나브로트스키 자매와 솔트레이크시티의 애너 프랭크 자매(앞 쪽)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렇게 말했읍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인간의 율법이 있다면 그것은 유효하지 못하며, 모든 확실한 근거가 있는 법률은 따지고 보면 그 권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러한 근원에서 파생된 것이다.”

존 아담스는 의로운 정부의 잠재 능력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썼읍니다. “법률서 대신 성경을 사용하고 국민들은 모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는 어느 국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모든 국민은 절제, 절약, 근면, 정의, 친절, 그들의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앙, 사랑, 경건에 따라 생활하게 될 것이며, 이 나라에는 포식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육욕으로 건강을 해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귀중한 시간을 도박이나 무가치하고 비천한 오락을 위해서 바치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웃을 속이거나 사기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오직 모든 사람이 평화와 선의 속에서 살 것입니다. 또한 창조주를 모독하거나 신앙을 더럽히는 자들도 없게 될 것이며 온당하고 진실되고 순수한 경건과 헌신이 그

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국가가 바로 이상향이며, 낙원이 아니겠는가.”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계획에 질서가 있음을 알았읍니다. 그가 인간사를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일관된 질서가 있었다는 사실이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존 아담스처럼 절제, 검약, 근면의 결과가 어떤가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덕성이 행동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노력의 보상으로 부와 번영과 풍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정의와 친절과 자비는 언제나 평화와 사랑과 조화를 낳읍니다. 포식과 술취함과 육욕의 결과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육신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육신의 허약함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것도 똑같이 약해집니다. 훔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과 속이는 것의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몸과 마음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는 며칠 전에 비행기를 탔읍니다. 내가 앉은 좌석의 맞은 편에 저명한 교육자 한 분이 앉아 계셨읍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었읍니다.

어느 날 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삼각법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오늘 여러분은 두 가지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하나는 삼각법 시험이고 하나는 정직에 대한 시험이다. 여러분이 이 두 시험에 모두 합격하기 바란다. 만약 여러분이 이 시험 중 하나를 자신이 없어 포기하려 한다면 삼각법 시험을 포기하라. 오늘날 세상에는 삼각법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자 중에도 많은 훌륭한 사람이 있으나 정직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자들로서 훌륭하게 된 자들은 아무도 없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는 정직한 자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모든 건전한 사회는 주님의 신성한 율법에 기초를 둔 일반적인 가치관을 필요로 합니다. 이 가치관은 인간의 행위를 다스리는 모든 법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같은 근본적인 가치관에 의해 스스로 다스려지는 사회는 평화와 번영과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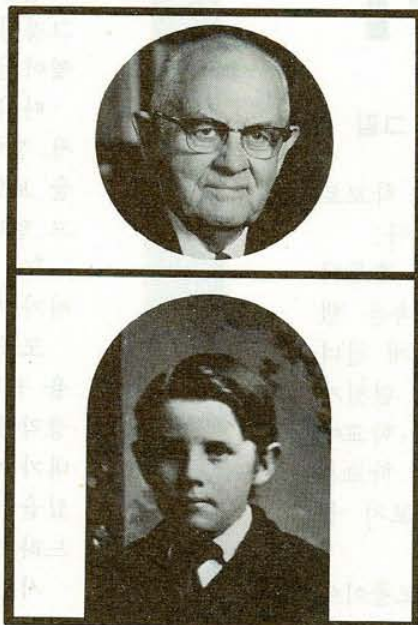
나는 결심했다

어렸을 때 나는 신권회, 주일학교, 초등협회에 참석하여 복음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교사님이 우리에게 여러번 되풀이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차나 커피도 마시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유를 짜든가, 전초를 실으면서 혼자 있게 되면 생각할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나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해 생각해 보고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나, 스펜서 킴블은 어떤 술이든 입에도 대지 않겠다. 나 스펜서 킴블은 결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차나 커피도 마시지 않고 손을 대지도 않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나는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결심하게 된 원인은 그러한 이유가 전부는 아니다.” 주님은 그러한 것들이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악하고 해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어렸을 때 이미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런 것에 손을 대지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도 않겠다.”고 일단 결심을 하고 난 뒤에는 그대로 쉽게 실천할 수 있었으며,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유혹도 많이 받았습니 다만 나는 한 번쯤 생각해 본다는가 “할까 말까?”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므로 하지 않겠다.”

나는 여러분보다 조금 연로합니다. 나는 또 여러분에게 내가 차, 커피, 담배, 술 또는 마약을 삼가

면 또 한살을 더 먹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교만한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직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즉 소년 소녀가 더 성숙해 가면서, 또 친구와 가족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심을 가지면서,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유혹이 닥쳐 올 때에 “나는 결심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성찬식에 갈 것인가 가지 말 것인가?” 혹은 “초등협회나 주일학교에 갈 것인가, 가지 말 것인가?”하고 생각한다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시간 낭비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단 매주 성찬식에 가겠다, 매주 월요일에는 가정의 밤을 해야지, 매일 밤 진지하게 기도하겠다.라고 결심했다면 많은 시간을 절약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 길을 따르겠다, 이것을 하겠다, 이것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자신과 싸우지도 않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8월 17일 토요일,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 지역 대회, 청소년 모임 말씀.)

조금만 천천히

루이스 바스 글, 린 타이틀 맨 그림

“빨리 가거라” 방금 집을 나서서 학교로 가는 앤디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에 빨리 갈게요” 앤디는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면서 빨리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학교까지 가려면 큰 길을 두 개 건너야 했다. 앤디는 지각을 한 일이 없었지만 오늘은 시작 종이 울릴 때에야 학교에 도착했다. 앤디가 급히 서둘러서 학교로 갔더라면 재미있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집을 나서자마자 앤디는 마당 모퉁이에 있는 단풍나무 꼭대기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가지 위에 앉아 바람이 불 때마다 아래 위로 올라 갔다 내려 갔다하는 오렌지색 앵무새 같았다.

“빨리 가, 느림보야. 그렇지 않으면 지

각해.” 캐런이 지나가면서 말했다. 그녀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점심 가방을 흔들면서 짹짹 씹어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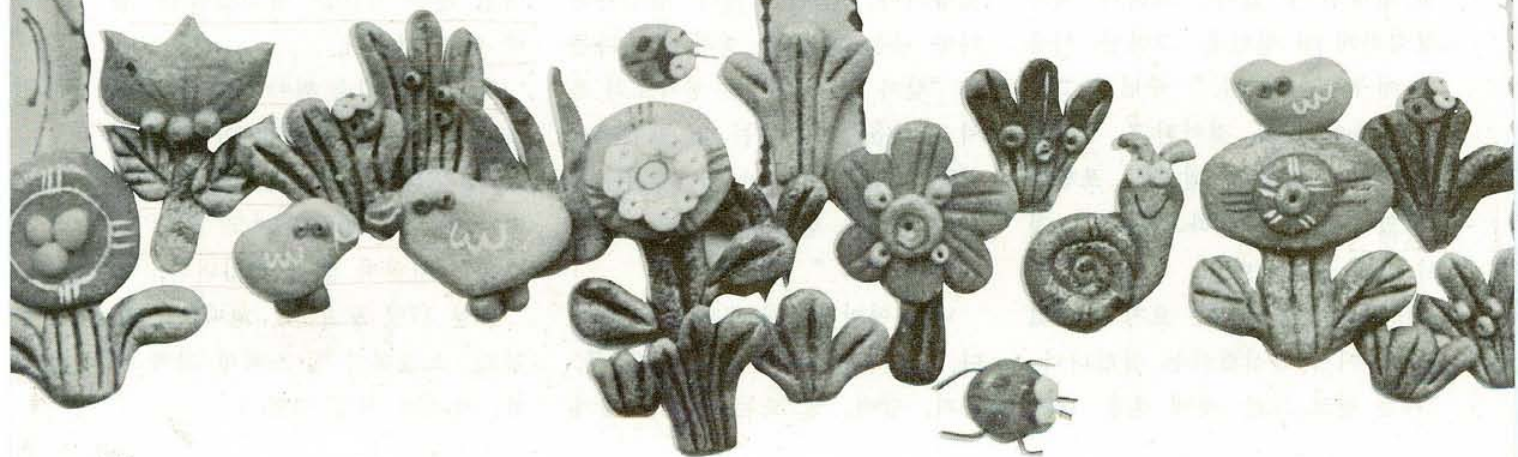
단풍나무로 가까이 다가 가면서 앤디는 그것이 가지에 걸려 바람에 날리고 있는 찢어진 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걸으면서 그는 하늘을 흘러 가면서 경주라도 하는 듯이 보이는 큰 구름들을 보았다. 구름들은 마치 바람을 잔뜩 받고 달리는 돛단배 같았다.

“야 느림보야, 빨리 와. 너 지각해.” 빌리가 뛰어가면서 불렀다.

모두가 앤디에게 빨리 가라고 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했다. 앤디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다. 그들이 조금만 천천히 간다면 내가 매일 보는 재미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을 텐데. 친구들은 너무 급히 학교로 가느라고 많은 걸 못 보잖아.

시간이 많이 지나 지각할 것 같아서 앤디는 조금 빨리 걸기 시작했다. 그는 걸어가는 길 외에는 아무 것도 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길바닥에 무엇인가 반짝거리는 노란 것이 있다. 그는 그것이 자기를 노려 보는 뱀의 반짝이는 눈이라고 생각했다.



앤디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앤디가 학교에 도착하여 자리에 앉자 시각 종이 울렸다. 로저스 선생님은 책상에 앉아 캐런을 꼭 안고 계셨다. 캐런은 얼굴이 빨개져 있었으며,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왜 그러니?” 누군가가 물었다.

“캐런이 학교에 오다가 생일 생일 선물을 잃어 버렸단다.” 로저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금팔찌인데...” 캐런이 말했다.

“어제 아빠가 주셔서 오늘 친구들한테 구경시켜 주려고 갖고 오다가 잃어 버렸어.”

앤디가 선생님의 책상이 있는 곳으로 걸어 나갔다.

“이게 네 팔찌니?” 하고 앤디는 주머니에서 금으로 된 반짝이는 조그만 팔찌를 꺼내어 진네 주면서 물었다.

캐런은 그것을 받아 들면서 말했다.

“어디서 찾았니?”

“학교로 오는 길에 풀숲에서 주웠어.” 그는 대답하였다.

“난 올 때 못 봤는데.” 빌리가 말했다.

“그건 네가 너무 빨리 걸어 갔기 때문이야.” 앤디가 그에게 말했다.

“넌 언제나 천천히 오거든.” 캐런이 말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보면서 오는 것 같애.”

“시간만 내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 앤디가 웃으면서 말했다.

방과후 앤디는 빌리와 캐런과 함께 집으로 오면서 매일 볼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들은 다시는 앤디를 느림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





대회를 맞으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은 안내자와 감독자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부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감독, 지도자, 교사라는 명칭으로 그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부모와 지도자와 교사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면 성령의 지시에 따르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곧 개인이 받는 계시입니다.

기도하는 방법과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어떤 것에 관해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응답을 받기까지 오래도록 참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한 기도는 즉시 응답되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기도한 일도 없는 일에 대해서 성령의 지시를 듣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여러분은 성찬을 들 때 예수님과 그의 제명을 지키겠다고 한 성약을 기억합니까? 그를 아는 것은 곧 그의 제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이십니다.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스러운 숲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엘드리드 지 스미스 장로



킴볼 대관장님이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회원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선교사를 도우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개종하여 입교하는 사람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킴볼 대관장님은 우리가 이제 겨우 시작하였을 뿐이며, 훨씬 많은 일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로렌 시 던 장로



과연 누가 선교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킴볼 대관장님은 모든 회원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선교사로서 봉사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복음 선교사가 되는 길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 알 룩 장로

덕과 성취가 있으며 이와 같은 근본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그들 자신의 생각으로 다스려지는 사회는 망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데 무성의함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적 사적 범죄, 무책임, 만행, 위조, 부도덕, 개인적인 혼란의 결집 등이 불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훌륭한 가치관을 보존하려는 결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소수의 과격한 무신론자의 무리들은 우리로부터 우리 자신의 가치관을 선택할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성 130 : 20—21)

주님은 우리가 그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분명한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로울 때 축복을 해야만 하도록 자신의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각 시대에 있어서 지배적인 질문은 주님의 사업은 각 시대를 통하여 엄연히 계속되고 있는데 왜 각 세대들은 그의 율법을 시험해 보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의 위치를 다시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닙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과 가족과 사회와 국가에서 우리가 이룩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를 둔 것입니까? 이때는 바울의 훈계에 다시 주의를 기울일 때가 아닙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 : 7—9)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손하게 기원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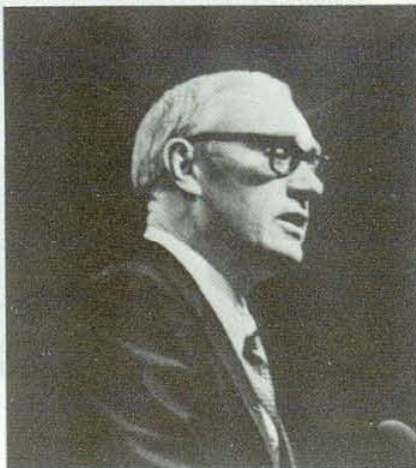
✱

살아계신 예언자

로렌 시 던 장로

칠십인 제일 평의회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예언자 때문이다.



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나하고 생각합니다.

그 대회는 매우 흥미있었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은 오직 십일조와 신전사업과 회생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의 교회는 겨우 46살 밖에 되지 않았으며 솔트레이크 신전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으며 성조지 신전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노력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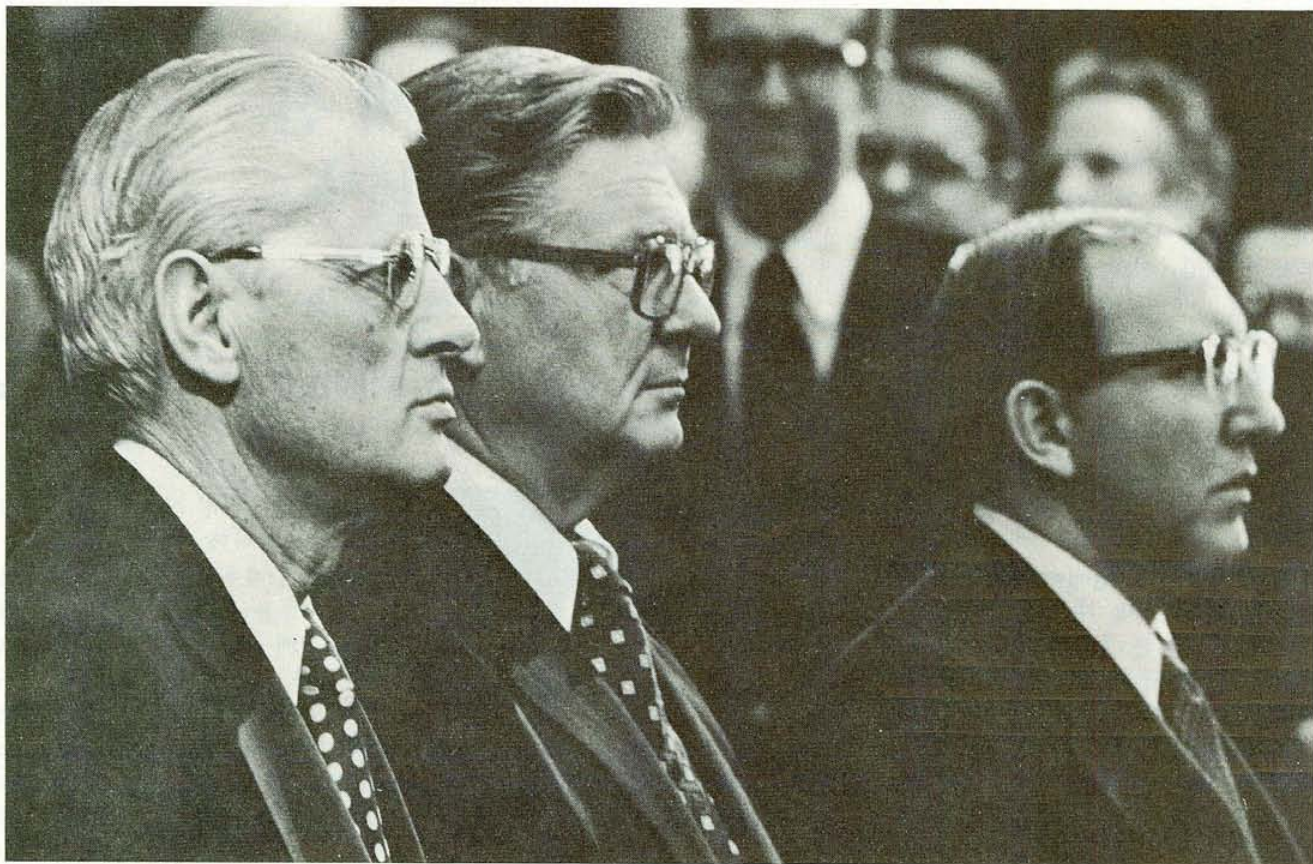
그 당시 브리감 영이 대관장이었으며 그 대회에 참석했던 십이사도 중 네 분이 후에 교회 대관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호기심에서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던 1876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어떤 말씀이 행해졌는지 알기 위해 교회의 기록을 찾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관해서는 별다른 말씀이 행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미국 독립 100주년 기념 행사로 계획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장엄한 일로 다루어야 할 일이 당시에 일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1876년 4월 5일 연차 대회가 있기 하루 전날 아스널 힐에 있던 네 개의 화약고가 폭발했습니다. 그 언덕은 신권 구역으로부터 동북 1.6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고 약 50톤의 화약의 폭발로 인하여 돌과 콘크리트의 부스러기가 온 도시를 뒤덮었으며 폭음 소리는 수 마일 떨어진 곳까지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왔다고 생각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다음 날 연차 대회의 일반 총회에 참석했던 많

1876년 4월 대회에서 나의 눈을 끌었던 가르침은 윌포드 우드럼의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계명의 대부분은 성경과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언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언자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그의 교회를 인도하고 관리할 입법자와 지도자와 대관장을 주셨으며 결코 왕국을 버려두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이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속될 왕국을 세우셨으며 그의 통치가 끝나지 않을 왕국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설교집 18 : 189)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계신 예언자의 절대적인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십이사도 평의회의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의 말씀에서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일 성



왼쪽부터 관리 감독단 제일보좌 에이치 버크 피터슨, 관리감독 빅터 엘 브라운, 제일보좌 본 제이 페더스토운

도들은 반드시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행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행하지도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준 교훈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않고 방치해 두지도 않습니다. 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은 무엇이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책도 이 교회를 관리하지 못하며 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은 하나님의 신권을 대신할 만큼 많은 책들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대회 보고 1916년 10월)

휘트니 장로는 경전의 능력과 권위를 부인하려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직 경전을 올바르게 보았을 따름입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그의 말씀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제신데도 책 속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책에만 만족한다면 살아계신 예언자보다 생명이 없는 글을 더

존중하는 결과가 되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자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물론 일반적인 주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걸음의 폭을 넓히자는 것입니다.

뉴우질랜드 해밀턴에서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경주하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창조주에게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이웃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가에서 킴볼 대관장님께서서는 우리들이 세상 어디서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세상 모든 나라의 문호를 개방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주님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인간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문을 열게 해 달라고 간구한다면 주님께서서는 우리들을 도우사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는 그가

목 수술을 받았을 때 의사들은 겨우 그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만큼의 성대를 남겨 두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는 계속해서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며 부지런히 일하기를 원하지만 혼자서 행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셨으니 모든 교회 회원들은 그와 함께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하자고 하셨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스베인에서 교회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까지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이티 지역 대회에서도 선교 사업을 강조하시고 자녀들을 선교사로 내보내도록 권고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 메시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언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킴볼 대관장님께서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하신 것은 교회 대관장의 공식적인 방문으로서는 두 번째가 됩니다.

첫 번째는 1955년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의 방문이었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께서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스베인에 가셨을 때 어느날 그곳의 선교 부장은 그를 모시고 시내 구경을 나갔습니다. 시내 구경을 하면서 그들은 브리스베인 강을 바라보며 첩사이드라고 알려진 교외로 들어가면서 맥케이 대관장님은 선교부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지역에 선교사가 파견되어 있습니까?” 이 불음에 선교부장은 “아직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맥케이 대관장님은 “이곳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 파견되어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늘날 첩사이드는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스베인 스테이크 브리스베인 제4와드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할 때 오는 축복입니다. 축복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실천할 때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역시 예언자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김블 대관장님께서서는 이제 역사상 이 경륜의 시대에 어느 때보다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하므로 합당하고 능력있는 젊은이들은 선교사로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욱 많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는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비회원 가정과 우정을 증진하여 선교 사업을 돕도록 하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개종자 수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대관장님께서서는 이것은 우리가 겨우 손을 댔음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전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가운데서 성장하고 주님의 존재와 뜻을 알도록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는 말일에 우리들을 인도하실 예언자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님은 우리의 예언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들임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간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예수는 누구인가?

엘드리드 지 스미스 장로

교회 축복사

그를 아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세상과 많은 다른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현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땅을 보았나니, 그 하나 하나를 옥지라 하였고 그 지면에는 주민이 있더라.”(모세 1:29)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또 나의 권능의 말씀으로 내가 이것들을 창조하였으니, 말씀은 나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니라.

“또 수 없는 세계를 내가 창조하였나니, 나 스스로의 목적이 있어 이를 창조하였고, 나는 아들 곧 나의 독생자를 시켜 무수한 세계를 창조하였느니라.”(모세 1:32-33)

이와 같은 창조의 방대한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제이 루벤 클라크 부대관장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과거에 발견하지 못했던 많은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와 같은 세상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은하계에는 아마 태초로부터 이 지구와 같은 수백만 개의 세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수없는 세계를 내가 창조하였나니, 나는 나의 아들 곧 나의 독생자’를 시켜 창조하였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초심자나, 서투른 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러한 창조를 수없이 많이 행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은하계에는 백만 개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태초부터 이제까지 수백만 개의 은하계가 있으므로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세계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믿는 이 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제이 루벤 클라크 이 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데렉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를 아십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천국 회의에서 이 지상 생활의 목적과 계획을 모든 영들에게 설명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시니, 인자 같으신 분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아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니, 또 다른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기 있아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첫째를 보내리라.”(아브라함서 3:27)

선택된 자는 장자인 여호와였으며 내려가서 아버지를 공경하며 모든 영광을 그에게 돌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 1:39)

여호와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이



십이사도 평의회 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와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출판사, 1962년 16—17페이지)

그의 창조의 기술은 초심자나, 서투른 자의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없는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는 절정의 시기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며 “독생자”였습니다.

그는 그가 누구인지를 선언했습니다. 지상의 그의 생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12살 될 때에 그는 “성전에서” “선생들”중에 앉으사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는 것을 그 모친이 발견하고 그에게 책망하였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눅 2 : 49)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와 변형되실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 3 : 17, 17 : 5)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 때 대화 중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요 4 : 25—26)

그후 다시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 16 : 13—17)

그는 여러 번 그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이신 그가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며 또한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물 위를 걸으셨다는 사실이 그렇게 이상한 일입니까?

나는 창조주이신 그가 물로써 포도주를 만들어 결혼 잔치에 참석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 등은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떡 몇 조각과 몇 마리의 물고기로써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에게 먹이신 것과 또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4천 명에게 배불리 먹이신 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마 14 : 16—21, 15 : 32—38 참조)

그는 또한 풍랑의 바다를 “잠잠하라”고 명하셔서 과연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막 4 : 39 참조)

그는 전에 전혀 고기가 잡히지 않았던 바다에 그물을 던지게 하여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기적을 두 번이나 행하심으로써 동물의 왕국도 지배하고 제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눅 5 : 4—8, 요 21 : 3—6)

그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곧 마르게 하신 이적을 행하여 그가 식물의 왕국도 지배하고 제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마 21 : 19 참조)

그는 언제나 그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실체의 아들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질병과 병마를 물리쳐 고치셨습니다. 그가 악한 귀신을 명하여 떠나게 하니 그들도 역시 그가 누구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으며 앓은뱅이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서 우리는 그가 생명 그 자체를 지배하고 제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고전 10 : 26) 네, 그는 땅 위와 아래와 하늘에 있는 모든 왕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오직 남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봉사의 생애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한 것은 털끝만큼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일에 그의 왕국을 지상에 회복하기 위하여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다.

“보라 인간이 회개하면 고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은 만민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겪었느니라.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한 것같이 고난을 겪어야 하리니

“그 고난은 하나님으로,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명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피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려서려고 까지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그 쓴 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

“그런고로 나는 또다시 너희에게 회개하기를 명하노니, 내가 나의 전능한 힘으로 너희를 낮추게 하지 않도록 하라...” (교성 19 : 16-20)

여러분은 성찬을 취할 때 그를 생각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를 아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이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구속자이십니다. 그는 아버지와 더불어 우리의 옹호자이십니다. 이 세상에 부활을 가져오게 하신 분도 바로 이분이십니다. 성스러운 숲에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던 분은 바로 이 분이십니다.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주님으로부터 위대한 계시를 받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라.” (교성 76 : 23-24)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지시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말일에 회복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관계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장로

십이사도 보조

우리는 교회의 모든 회원과 특히 우리의 죽은 친척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제 보 탐구를 위해 우리 가족들은 15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어느날 나는 우리의 가계도 상의 성씨를 모두 집계해 보았더니 226개의 혈통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조상이 스위스나 영국으로부터 오신 분이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계도가 일치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계도와 저의 가계도 상에는 동일한 성씨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는 혈통 관계로 보아 친척임을 말해 주는 한 증거가 됩니다. 나의 가계도 상에서 확인된 나의 직계 조상은 65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15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나의 가계도를 모두 조사한다면, 나의 직계 선조만도 15,000내지 20,000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모두 더한다면 나의 가까운 친척만도 5만 내지 6만 명이나 될 것입니다.

나의 모친과 그의 다른 가족들의 집중적인 노력의 결과 7,000명의 나의 가

까운 죽은 친척들의 이름을 찾아 내었습니다. 교회의 교리에 따라 이것들은 신전으로 보내졌고 그들을 위한 모든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후 그들을 만날 때는 우리의 친척의 한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서 만나게 되어 서로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또한 아무리 게보 사업을 열심히 행하고 있는 가족에 있어서도 아직 탐구되어야 할 일들이 많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의 관계 중 혈연 관계보다 더 가까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들어온 수많은 자들의 간증을 들어 왔습니다. 그들은 예외없이 한때는 다른 철학이나 종교로 방황하다가 이 교회에 들어오고 난 후 진정한 가족 관계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그들은 본향에 돌아온 셈입니다.

나는 한 친구와 사업상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은 종종 종교에 관해 토론해 왔습니다. 그는 교회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많은 종교 철학 즉 감리교, 영혼 재래설, 강신술, 오순절 단체, 기독교 우정회등을 연구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언젠가는 교회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같이 열심히 무엇을 찾는 사람은 누구도 완전한 대답을 얻기까지는 만족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일단 교회에 가입하게 되면 고향에 돌아온 느낌을 갖게 되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탐구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회원들의 느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로 그의 교회의 회원들은 각각 형제 자매라고 불려왔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며 교회 회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족 관계를 말하지 않는다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젊은 선교사로서 남미에 처음으로 갔을 때 나에게는 그곳 주민들이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말을 했고, 피부와 머리와 눈의 색깔이 우리보다 검었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내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국민들과 수년동안 함께 생활한 오늘날 나는 그들과 북미 사람과 유럽 사람들을 구별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머리, 피부와 눈의 색깔이 무엇인지 그들의 언어가 무엇인지조차도 의식하지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모든 사랑을 주고 또한 그들은 나의 가족에게서 경험했던 그와 같은 사랑을 나에게 전해 줍니다.

이제 내가 경전을 읽을 때 구세주께

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더욱 잘 알게 됩니다. 그가 어떤 집을 방문하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이 그의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던 사람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부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교훈을 주기 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마 12: 48—50)고 하셨습니다.

내가 남미에서 경험한 바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한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엡 2: 19)

권속이란 말은 가족 관계를 뜻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보기에서 나는 아래와 같은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경험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지상의 각처에 흩어 놓으셨으며 다시 본향에 불러 모으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배롭고 지극

히 큰 약속...” (벧후 1: 4)을 받은 우리들은 일생동안 아직 그와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봉사할 약속을 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의 세계로 간 우리의 친척들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수의 교회 회원들만이 부지런히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들 앞에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그들의 가족을 찾고 잃어버린 회원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의 대제사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권의를 합니다.

금년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개인 역사 기록을 만들고 우리가 속한 가정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에 신전이나 도서관이 없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그들의 가족의 기록을 준비하는 데 점차적으로 능숙해지도록 다음 해에도 다른 지시와 목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사업이 참되다면, 우리가 산 자를 위해서 행하는 열성으로 죽은 자를 위해서 일을 행하는 날이 곧 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많은 회원들이 현재 선교사들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시간과 돈을 바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회복의 목적은 주님의 가족을 영원한 가족으로 합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와 세상까지도 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가정을 단합시키고 신전에서 축복을 받음으로써 이 일을 행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권고함으로써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많은 친척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영적으로 구조함으로써 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버리는 자들은 영원에 대한 범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이 가족을 한데 모으지 않는다면 모로나이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온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교성 2: 3 참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들이 주님의 가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파괴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십이사도 보조인 프랭크린 디 리차즈 장로와 더블류 그랜트 뱅거터 장로



선택할 권리

헨리 디 테일러 장로

십이사도 보조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최대의 책임과 특권 중 하나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말일성도들은 이 자유의지의 원리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중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우리 자신이 결정을 해야 했을 때 현명한 선택을 했으므로 이 지구에 와서 육체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영으로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창조되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이 소식을 기뻐했습니다. 이 사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물은 다음의 매우 흥미 있고 의미있는 질문에서 명백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찌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찌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이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욥 38 : 3—7)

우리를 대표하여 지상에 내려가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자를 뽑기 위하여 천국 회의가 열렸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확신을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열린 첫 회의에 우리 모두는 참석했고, 구세주가 선택되어 임명됨을 보았으며, 구원의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찬성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81페이지)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천국 회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사탄은...저가 내 앞에 와서 이 르기를, 보소서 내가 있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겠오며, 내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예를 내게 주소서 하였더라.”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내게 말하되,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옵소서 하는지라.”(모 4 : 1—2)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시니, 인자 같으신 분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니, 또 다른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기 있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첫째를 보내리라.

“이에 둘째가 성내어 자기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니, 그날에 많은 자가 그를 따랐더라.”(아브라함서 3 :

27—28)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의 분노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아담)과 그의 사자들이 용(사탄)으로 더불어 싸울찌와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떠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계 12 : 7—9)

사탄은 그의 무리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늘에 있는 자들의 삼분지 일이 그를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개성과 두 가지 동기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없애 버리려고 하였고 모든 인간을 억지로 구속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과 명예와 영광을 구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계획은 인간들이 선과 악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모든 명예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 나갈 때, 우리는 개인으로서 결정해야 할 많은 중요하고도 원대한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그들이 사귀어야 할 친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바람직한 사랑을 하고 결혼 상대자를 선택할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신전에서 결혼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 가기 위한 준비로서 칠팔례를 받고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하고, 성신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생활한다면 성신은 우리와 함께 있어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에 어떠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으며, 무엇을 결정해야 할 것인가도 알 수 있



대회가 끝난 후의 정경

읍니다. 때때로 어떤 문제에 해답을 얻기 위해 기도할 때 “하지 말라”라는 강한 느낌을 받기도 하며 때로는 분명히 “해도 좋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반면 분명한 대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경우에 적용해야 할 하나의 공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 연후에 결정을 내리고, 그후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옳은 일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실 것이며,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낄 것이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 같은 느낌이 없고

다만 무감각해져서 옳지 아니한 일을 잊게 될 것입니다. (교성 9:8—9 참조)
우리는 찬송의 가사에서 심오한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무슨 일 하나 자유니, 영원하신 진리 있어 인간을 강압하잖네.

지혜와 사랑 빛으로 바르게 훈계하시고, 친절과 선하심으로 주 결코 억압하잖네.

자유와 이성 있어서 만물의 영장되나니, 만일에 이성 없다면 금수와 다를 것 없네.

윌리엄 지 그레그,
말일성도 찬송가, 126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훌륭하고 기쁜 것이어야 하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고대 예언자인 여호수아는 의롭게 살기로 결심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 2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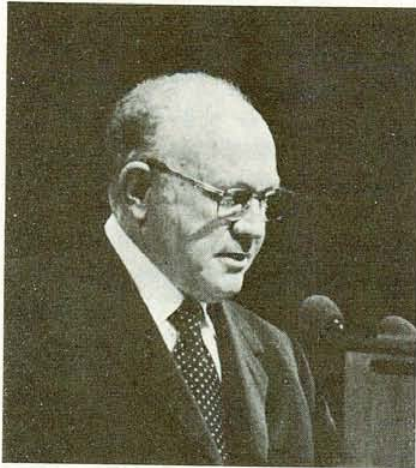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그 결정이 주님의 뜻에 일치되고,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이웃에게도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현명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무화과 나무에 표적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버나드 피 브룩뱅크 장로

십이사도 보조

주님의 재림의 표적을 알고 모든 들을 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 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약속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앞에 이른 줄 알라”(마 24 : 32-33)

킴블 대관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이미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말일에 일어날 표적과 기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 24 : 24)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

을 미혹케 하리라”(마 24 : 5)

주님은 “...지상에서 평화가 박탈당하며 악마가 자기의 영토를 지배할 권세를 갖게 될...”(교성 1 : 35)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준 경전에는 말일의 표적과 세상의 정세와, 전쟁과, 위협과 분쟁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언들은 유례없이 악역과 천벌과 환란과 재난과 재해와 난리와 난리에 대한 소문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마 24 : 7) 거기에는 피와 죽음과 황폐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경전에는 동요의 요소로서 홍수와 폭풍과 불과 회오리 바람과 지진 등 옛날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지도 않았던 것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사악과 부정과 소란과 살인과 범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환란에 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막 13 : 19)

“그리하여 만물이 요동할 것이요 반드시 모든 사람의 마음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므로 사람들은 분명히 기절하리라.”(교성 88 : 91)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룖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룝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눅 17 : 26-30)

사도 바울은 말일의 세상과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전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 3 : 1-5)

이와 같은 고통하는 때에 관해서 예수님은 “성도들도 도망가기 힘들 것이나 주는 저들과 함께 하려...”(교성 63 : 3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일에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매우 중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시대의 표적과 인자가 오시는 표적을 아는 능력을 주리라”(교성 68 : 11)

“나 주가 처음에 땅을 저주한 것같이 마지막 날에 땅을 축복하여 나의 성도들이 그 절기에 따라 땅의 풍성함을 받게 되고 저들이 이를 사용하게 하였느니라.”(교성 61 : 17)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지상에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발전하고 번창하여 이 세상을 채우게 되는 것도 시대의 위대한 표적의 하나입니다.

성신과 하나님의 신권은 지상에 계속될 것이며 말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고 선택된 살아 계신 예언자와 사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제자들은 거룩한 곳에 서 있어 움직이지 아니하려니와...”(교성 45 : 32)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대에 가장 중대한 표적의 하나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 : 14)

악마는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

을 막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 : 19-20)

말일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버지께서 저들을 다시 함께 모으사, 저들에게 예루살렘을 상속의 땅으로 내어 주실 것이요,

“저들은 기쁨으로 부르짖어 이르기 를, 노래하라 황폐한 예루살렘의 땅이여,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며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하리라.

“아버지께서 열방의 눈이 보는 중에 그의 거룩하신 팔을 펴심에, 땅끝에 거하는 자까지 모두 아버지의 구원을 보리로다. 진실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니삼 20 : 33-35)

“그러나 주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아홉이 광야에서 번성하며 레이매인이

장미처럼 피어나리라.

“시온은 산 위에 번영하며 높은 산 위에서 기뻐하리니, 내가 지정한 곳에 다 모이리라.”(교성 49 : 24-25)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는 저희에게 전파된 복음을 갖게 되리니, 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리라. 이는 그때가 가까왔음이니라.”(교성 35 : 15)

이 시대야말로 모든 말일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인간을 구하는 구원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말일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이는 저들이 세상에 빛으로 또 인간을 구원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음이니라.”(교성 103 : 9)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이는 저들이 세상에 빛으로 또 인간을 구원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음이니라”고 하시고 또 다음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저들이 인간을 구원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으니. 아무 쓸데 없어 밖에 버리워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교성 103 : 9-10)

주님은 모든 말일성도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성스럽고 영혼을 구제하는 이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사람들의 발에 밟힐 것입니다.

또 주님은 그의 성도들에게 이같이 권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하거니와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장로, 제사, 교사 그리고 회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힘을 다하여 손수 일하며 내가 명한 일을 준비하여 완수하라.

“이웃 각 사람에게 전하는 너희 말은 온유하고 겸허한 경고의 말이 되게 하라.

“악인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주의 그릇을 지닌 너희여 깨끗하라...”(교성 38 : 40-42)

최근 김볼 대관장님은 말일에 있을 인간의 상태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된 고대의 예언에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예언자 요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낮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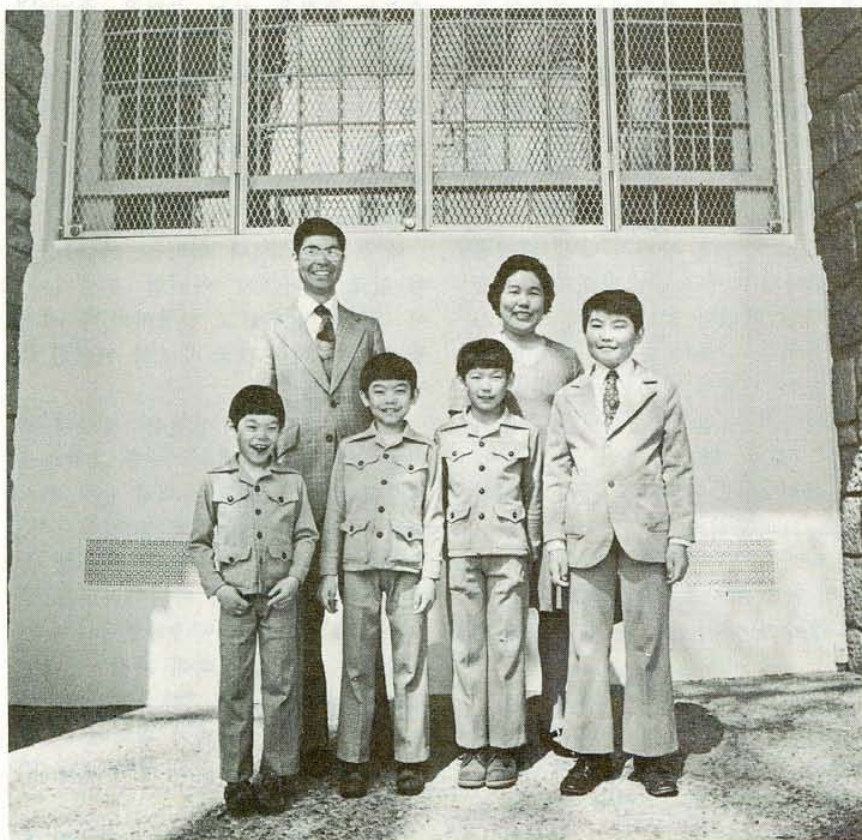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 의 날이 가까움이로다”(욥 3 : 13-14)

오늘날 대부분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전보다 윤택해졌으며, 그들의 포도주 틀 즉 수확은 가득히 차고 그들은 점점 살찌가고 있으며, 그들의 악은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목적과 생활 방법을 구하는 선량하고 마음이 정직한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읽었던 것과는 반대로 영국 제도에서는 이 사실이 거짓이 아닙니다.

만일 성도들이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한다면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자들의 1퍼센트는 주님의 삶의 방법에 따라 생활하며 그의 교회에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 1퍼센트는 약 36,000,000명에 해당될 것이며 이 숫자는 막대한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판결 골짜기에는 온전함에 이르는 성스러운 빛을 기다리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성신과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일에 살도록 특권을 받은 우리는 용감하여 우리의 빛을 남에게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모든 인류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돕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캐나다 앨버타 칼가리의 고로 야마다 형제 가족



부활절 명상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영생을 얻기 위해 증거와 목격자와 성신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노력함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 14 : 8-9)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고후 4 : 4)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그 본체의 형상”(히 1 : 3)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신 것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이 지상에서도 아들은 육신의 부모를 닮습니다. 지상의 것은 하늘의 것을 닮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시다.

현대 계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울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은 완전한 사람이라 그의 모습은 부친의 모습 그대로였으므로 모든 점에 그의 부친과 닮았고 다만 나이가 다르므로 부친과 구별될 수 있었더라”(교성 107 : 43) 그리스도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요 14 : 9)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현대 계시에서 “아버지는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나니...”(교성 130 : 22)라는 말씀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요 5 : 1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요 8 : 28)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는 오직 그의 아버지의 가르침과 모범과 아버지께서 먼저 하신 일을 따르고 있다고 말

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한 개성과 속성과 능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업과, 기적과 가르침과 그의 거룩한 모습과 천사들의 확인과 하나님 아버지의 선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심을 확실히 증거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의 성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후 무덤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에 관한 성구에 대한 의문이 풀리게 하셨습니다. 그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모든 예언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눅 24 : 48)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가족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메시지와 죽음과 부활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심은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시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행 10 : 41-43 참조)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의 예언자들은 그의 오심을 증거하였고, 그를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 그의 성역과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실 그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어 영광의 부활을 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오셨으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향하여 오심을 보고 그는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 : 29)라고 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가 침례받으실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 : 17) 하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 : 15-16)라고 강조하여 답하

부활절이 다가오면 모든 기독교인은 마음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명상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제자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 : 3)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사람들은 진실로 그리스도의 속성과 성품과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명백히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은 그리스도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였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안 악한 영들까지도 그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를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눅 8:28)라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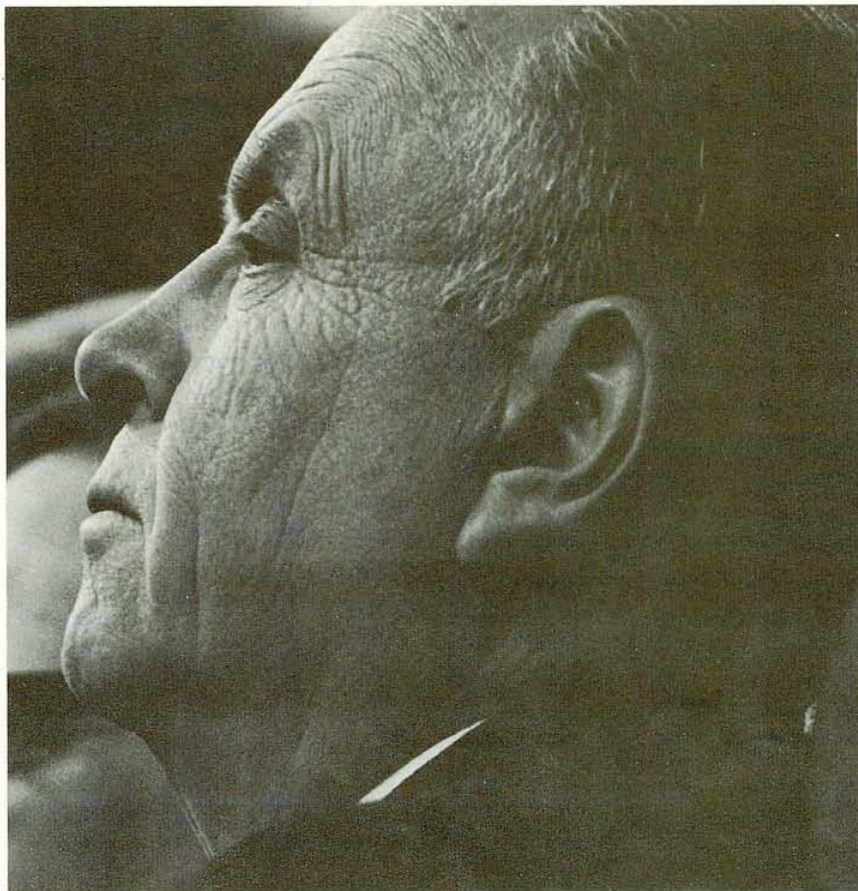
예수님은 굳은 지조를 가진 분이며 위대한 교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속주이시며 구세주이며, 모든 인류의 모범이시며,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하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을 본 참된 증인의 증거와 증언을 통하여 그는 오늘날에도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눅 1:33)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수난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요 20:16-18),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눅 24:13-35), 세 번째는 그가 부활하신 후 함께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내 손과 발을 보고…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눅 24:36-39)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의 다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수난당하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행 1:3) 다섯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 그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고보에게…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전 15:5-8)고 증거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약 전서에 나와 있는 증거의 기사로서는 마지막 기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과 신앙을 주는 것이므로 가장 의의가 큰 것입니다. 이 기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며 하늘의 일을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 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행 1:9-11) 그리스도는 부활한 몸으로 하늘로 올라 가셨습니다. 이 성구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가 재림하실 때도 그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면 그는 부활한 몸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재림 때 주를 찾게 될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다음 예언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의 손 발에 있는 상처는 무엇이니이까?

“그때에야 저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는 내가 저들에게 이같이 말할 것임이니, 이 상처는 내가 나의 친구 집에 있을 때에 입은 상처니, 나는 들리운 자요,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리라.”(교성 45:51-52; 수 13:6)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리의 표

준 경전 4권의 하나인 물문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미대륙에 나타나셨다는 아름다운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며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 하시는지라”(니삼 11:7) 하셨습니다.

그때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 고 증거한 바 예수 그리스도라”(니삼 11:10)고 하셨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주를 맞이할 때 많은 무리들이 “너희는 일어나 내게로 와서 너희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 보고, 내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온 땅의 하나님임을 알”기 위하여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니삼 11:14)

“우리가 모두 차례대로 나아가 친히 목격하고 나서 한 소리로 높이 부르짖

어 이르기를,

“호산나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복되리로다 하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를 경배하였느니라.” (니사 11:16-17)

모든 목격자의 증거와 증언은 빛과 진리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한 지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확실하고 설득력있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거나 삶과 구원의 복음 계획을 받아들이는 데 망설이는 내면의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며, 또한 교사이며 계시자가 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성신)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벧후 1:21)이라고 하신 베드로의 말씀과 “성령(성신)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라고 하신 바울의 말씀으로도 입증됩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요일 5:7)

경전에 따르면 성신의 증거는 합당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성신은 지식과 이해력과 신앙을 부여하는 권세를 갖고 있으며, 참된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진리에 대한 간증을 갖게 해 주는 권세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경 역사와 교리를 기록한 저자인 한 예언자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권고를 주었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속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

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모로 10:4-5)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과 지식과 예지를 구한다면 이 약속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참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주이시고 구속주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임을 간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첫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교성 76:22) 나는 이 사실과 진리에 대한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드립니다. 아멘. *

대회 정경



인생 행로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왜 이곳에 왔는가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인도해 준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회원 또는 비회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지 만 1976년째 되는 날이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그분의 교회가 조직된 지 146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맞이하여 나는 여러분께 사랑과 우정의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해 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왜 이곳에 살고 있으며, 그리고, 이 시험의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모든 인간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고 그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몇 달 전에 나는 극동 지방에서 온 어느 신사와 함께 비행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몇 마디 흥겨운 이야기를 나눈 뒤, 나는 그가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 물었습니다. 나의 물음에 답한 후 그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물론 복음 토론으로 진전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지만 자신은 아무런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있었으며 전 세에서의 생활이라든가 죽은 후의 삶에 대해 아무런 전해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과 “적당한 생활 수준”을 얻는 것 외에는 인생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관해 근본적인 몇 가지 토론을 한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지식이야말로 사람에게 삶의 목적을 확실히 알려 주겠군요.”

수 주일 후에 나는 그에게 편지와 함께 몇 가지 책자를 보냈습니다. 그에게서 온 답장에는 이렇게 써여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비행기에서 선생님과 나눈 즐거웠던 대화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런 목적도 없이 열심히 일만 해 왔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매일 일을 하는 목적과 인생 자체의 목적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술과 담배를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하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는 술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나는 그에게 지혜의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술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왜 여기에 살고 있으며 이 생을 떠난 후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에 관해서, 나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라”(행 17 : 28-29)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지상 부모의 소생이 아니냐고 하는 그의 이의에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인간은 영체와 육체로 되어 있나니,”(교성 88 : 15)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소생이란 인간의 영을 말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자신도 인간과 같이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의 육신과 영체를 갖고 계시며 부활하시어 영화롭게 되고 승영의 상태에 이른 전지 전능하신 분이요, 영과 권세와 영향을 동시에 어느 곳이나 미치는 분이시요, 하늘과 땅과 그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모든 인간의 영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교성 76 : 24)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상에 살고 있는가에 관해서 저는 그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으로서, 마치 육신의 부모로부터 그들처럼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받았듯이 하늘의 부모와 같은 상태에 이르고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받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살과 뼈의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의 소생인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그러한 육체를 얻어야 함은 절대로 필요하고 또 당연한 것이며 우리가 이 지상에 온 것은 이러한 육신을 얻기 위해 마련된 방법이라는 것도 알려 주었습니다. 나는 더 나아가 이 지상 생활은, 신앙을 갖고, 하늘의 부모와 같이 완전해지고 승영에 이르는 데 우리 자신이 합당한가를 시험하기 위한 기회도 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복음 계획이 선포되고 이 지구의 창조가 계획된 천국 회의를 시현으로 보고 그에 대해 기록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주께서는 나 아브라함에게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 주셨더라. ...

“이들[영들] 중에 하나님[즉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이 서 계시더니,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내려가자, 저곳에 공간이 있음이라.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태버나클에서의 집회 광경 : 태너 부대관장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저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 욱 더하여 질 것이요,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첫째 지체를 지킨 자들과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리라. 또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아브라함서 3 : 22—26)

물론 우리 모두는 이처럼 선포된 계획이 이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첫째 지체—영적인 상태—를 지킨 영들은 약속된 대로 이 지상에 인간으로 태어날 때 육신을 받았읍니다.

약속은 그들이 이 두 번째 지체(즉, 육신의 상태)를 지키면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모두와 같이, 지상에 온 두 가지 목적,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은 살과 뼈의 육신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신사가 “...왜 우리가 이 지상에 살고 있는가를 잊지 않겠다.”고 했음을 보아 그가 염두에 두었던 사실입니다.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시험은 물론 죽음으로 끝나며 죽음이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이기신 결과 우리는 모두 영혼의 구속인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시에 받게 될 형체와 그 후에 갈 곳은 현재의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부활에 관해 고린도인들에게 쓴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고전 15 : 40—42)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와 함께 영생과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보다 편치 못한 곳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 양심에 따라” 무엇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든 사람은 “심판의 날에 ...저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성 101 : 78)

고대 미대륙에 있었던 한 예언자는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은 말로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우며 만물이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졌느니라. 인간은... 자유와 영생을 택할 수도 있거니와, 악마의 권세와 속박에 매어 속박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느니라. 이제 악마가 속박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만민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만들고자 함이라.”(나이 2 : 27)

고대 미대륙에 살았던 다른 예언자는 우리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라 천사가 내게 일러 주셨으되 [이것은 엘마의 생각이 아니라 천사의 지시에 따라 그가 말씀한 것임] 모든 사람의 영이 그의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나면 그 모든 영들이 착하든지 악하든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의로운 영들은 안식과 평화의 처소인 낙원이라 하는 행복한 곳으로 영접되어 고난과 근심과 슬픔을 잊고 편히 쉴 것이나,

“죄 많고 불의한 영들은, 보라 저들이 선보다는 악을 택하여 주님의 영을 조금도 얻지 못하였으며, 악마가 이 영들을 저의 뜻대로 하여 이들을 차지하였으니, 이 영들은 어둠의 곳으로 쫓겨날 것이다. 저들이 거기서 울고 통곡하며 이를 갈겠으니, 이는 저들이 악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입장하지 못한 아론 신권 청소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마의 뜻에 사로잡혀 저지른 저들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불의한 영의 상태라. 곧 암흑의 상태요, 저들을 치실 불길 같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기다리는 무서운 상태라. 부활의 때까지 의로운 영들은 낙원에 거하겠으나, 이와 같이 불의한 영들은 이러한 곳에 남아 있어 야 하리라.”(앨 40 : 11—14)

에베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에게 그들이 영의 세계에서 향유했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 하나님은 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한 회개와 구속을 전파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낼 때까지는 아담과 그 후손이 육체적 사망으로 죽지 않게 하리라”(교성 29 : 42)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해 주셨으니 그 복음은 곧 이 생애에서의 평안과 행복,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영생과 승영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인 원리와 의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륜의 시대는 1820년 봄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하신 그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뉴욕주 팔마이라 근처에 있는 거룩한 숲에서 요셉 스미스 이세

에게 나타나실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후 수년 동안에 인간의 구원과 승영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원리와 의식이, 그것을 가르치고 수행할 수 있는 권세 및 권능과 함께 알려지고 주어졌습니다.

146년 전 오늘, 즉 1830년 4월 6일, 초대 교회와 구별하기 위해 “말일성도”라는 말을 덧붙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칭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6명의 회원으로 이 지상에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 회원의 수는 3백만이 넘습니다. 세상에 나가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선교사의 수는 현재 약 23,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가 참됨을 알고 있으며 또 그에 대해 간증하는 바입니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낳으신 영과 살과 피와 뼈의 육신으로 이루어진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왜 이 지상에 살고 있으며 이 지상 생활이 끝나면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를 늘 염두에 두고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생활하면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알려 주신 가

르침과 계명이 참된 것인지를 모른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그것 자체 내에 확증이 있으며 모든 사람은 그 확증을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갖고 태어났으므로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나니, 영은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느니라.”(교성 84 : 45—46)

예언자 리하이는 그의 아들 야콥에게 이와 비슷한 간증을 했습니다. “인간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영의 음성으로] 가르침을 받았고,”(나이 2 : 5) 모로나이도 그의 형제를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케 하였은즉,”(모로 7 : 16)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증거로,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왜 여기에 있으며 이 생이 끝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고 의롭게 살으로써 “[우리] 머리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경전의 가치

리그랜드 리처즈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경전 연구를 통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자하는 그의 사랑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 훌륭한 대회에 참석하여 주님의 종들로부터 전해지는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여러 스테이크를 방문할 때 여러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친절에 대해 나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대회에서 무엇을 말씀드려야 여러분에게 흥미있고 영감을 주는 것이 될까를 생각하다가 경전의 가치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전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의 아들과 그 위대한 속죄의 희생이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삶의 방법 및 방금 롬니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이곳에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에 관해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그러한 것에 관한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마치 키

도 돛도 없는 배가 대양에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다 위에 계속해서 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항구에는 결코 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 : 39)하고 말씀하신 것을 좋아합니다. 영생, 즉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와 함께 살고 그들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구속받아 거룩하게 된 아버지의 자녀 앞에서 증명할 수 있게 되는 지식을 상고하는 것보다 더 가치있는 일이 있습니까?

나는 키케로가 한 말을 좋아합니다. 그는 짧은 현재 보다는 긴 미래에 더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사고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우리 모두가 긴 미래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 오늘의 세계는 크게 변할 것입니다.

나는 엘리자베스 비 브라우닝이 한 말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은 하늘의 요소로 가득 찼고

모든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불타 오른다.

그러나 이 떨기나무와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과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몇 안되는 이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을 벗는 사람들이다.

“오로라 리” 7 : 820에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덩쿨의 열매를 따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인간이 지닌 능력이 상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신

비로운 모든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지구가 하늘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경전 연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한 말을 좋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나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벧후 1 : 19—21)

하나님의 말씀은 성신을 통해 오며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이해되지 않으며 어느 개인의 해석으로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써어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많이 알고 있는 셈이 됩니다.

나는 물문경에 있는 말씀들을 좋아합니다. 물문경에서는 세 군데에서나 이사야의 예언을 상고할 것과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이며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사야의 예언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사야는 그 자신의 시대보다 우리 시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 경륜의 시대에 일어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 이사야의 예언은 늘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바벨론이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였을 때 이사야는 바벨론이 멸망하리라는 것과 그 도시가 파충류와 들짐승의 거처가 되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서 장막을 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언했으며 바벨론이 다시는 재건되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사 13 참조) 여러분은 오늘날 최대의 도시 하나가 멸망되어 다시는 재건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외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벨론은 오늘날까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29장을 잠시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내가 이 29장에 대해 아는 바로는 교회가 조직되어 물몬경이 출현할 때까지 이사야의 이 예언을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도 이해 못하던 그 예언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29장 처음 부분을 조금 읽어 보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 친 성읍이여”(예루살렘을 가리킴) “년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바꾸어 말하면 오는 세대를 말함)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사 29 : 1—2)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해 그가 해야 할 말은 그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께서 그의 십이사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성전이 파괴되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받처럼 갈리우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눅 21 : 5—6 참조)

이사야는 거기서 다시 또 다른 성읍의 멸망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사 29 : 2) 바꾸어 말하면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같은 다른 성읍의 멸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물몬경이 출현하기까지 그 성읍이 어디였는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사야는 이 무리에 관해서 그가 본 것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에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절거리리라”(사 29 : 3—4)

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 물몬경의 출현 즉 수천년 전에 미대륙에서 살았던 백성의 기록을 말해 주는 물몬경이 번역된 금판의 출현과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벽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여러분은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어떻게 성취되었나를 알기 위해 니파이

삼서를 읽기만 하면 됩니다. 니파이삼서에서 그것을 말해 주는 부분을 조금 읽어 보겠습니다.

“삼십 사년에 이르러…그 땅에는 일찌기 없었던 큰 폭풍우가 일더니,

“무서운 태풍이 몰아치고 심한 천둥이 울어 땅이 갈라질듯 진동하였고,

“그 땅에 일찌기 없었던 번개가 요란하더니,

“제이라레물라 성에 불이 붙었고,

“모로나이 성은 깊은 바다물에 잠겨 그 주민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으며,

“모로나이하 성 위로 흙이 덮이더니 그곳에 큰 산이 들어서게 되었고,

“남방 땅이 심히 무섭게 폐망하게 되었으니,”(니삼 8 : 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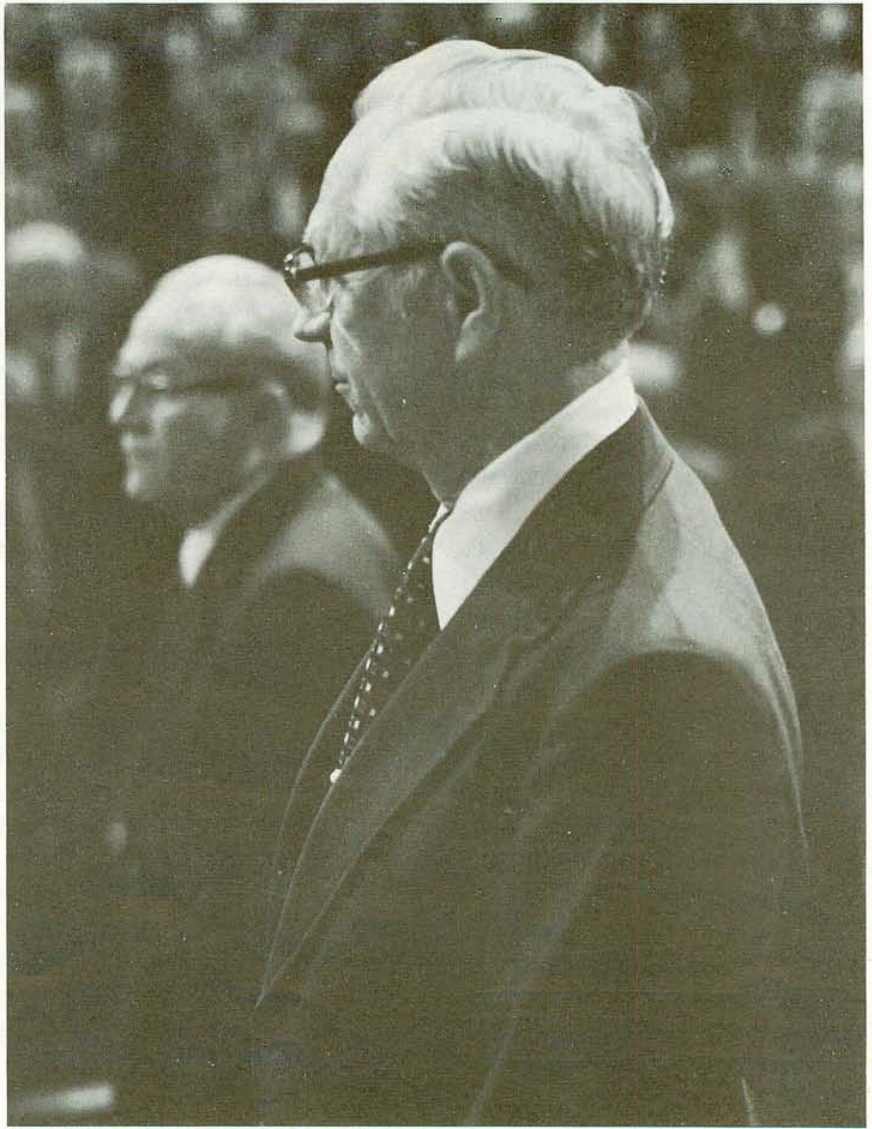
그것은 계속 그 땅의 폐망을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옛 백성이 거했던 남, 중앙 아메리카의 땅을 파헤칠 때

멸망된 도시와 시멘트로 된 도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29장에서 계속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사 29 : 11)

여러분, 마틴 해리스가 물몬경을 번역해 낸 상형문자의 사본을 뉴욕에 있던 안톤 교수에게 가지고 갔을 때 있었던 일 이외에 이 예언의 성취를 말해 주는 사건이 또 있습니까? 안톤 교수가 마틴 해리스에게 그 번역이 정확하다는 증서를 써 주면서 그는 마틴 해리스에게 그 판을 가져 오면 번역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마틴 해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봉해져 있

엘드리드 스미스, 교회 축복사



읍니다.” 그 교수는 수천년 전에 이사야가 한 말 그대로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했듯이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며 세상에 아무도 이사야서 29장의 이 예언을 풀 수 없다고 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언에서 그가 본 모든 시현, 즉 이 백성과 그 멸망과 티끌에서 말하는 그들의 기록의 출현에 관한 모든 시현은 사람에게 신접한 자의 목소리를 느끼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사추세츠 뉴베포트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나는 어느 장로 교회의 회계에게 물몬경을 한 권 준 일이 있습니다. 그가 책을 거의 다 읽었을 때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몬경을 읽으면서 누군가가 사람을 미혹시키기 위해 이 책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오, 리차드씨 난 그 책을 읽으면서 마치 신약 전서를 읽을 때와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이것은 이사야가 말한 신접한 자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이사야는 그가 살던 시대의 지혜로는 장님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점자법을 상상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사 29 : 13-14)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에게 그 기이한 업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엄숙히 간증합니다. 내가 말씀드린 이 예언들은 그것이 썩어지던 때의 영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복음의 회복과 경전에 대한 우리의 지식으로 이 경륜의 시대에 우리에게 알려진 기이한 진리를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물몬경

제임즈 에이 컬리모어 장로

십이사도 보조

이 고대의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계획을 증거해 줍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그것을 읽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시온의 자녀위에 쓴 아직 징계와 심판이 여전히 머물러 있리라.”(교성 84 : 54-58)

물몬경은 결코 평범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 요셉 스미스에게 전해진 금판에서 번역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서기의 일을 보았던 올리버 카우더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셉 스미스가 우림과 둠뎀으로 번역하여 그가 불러 주는 대로 (몇 페이지를 제외하고) 물몬경 전권을 내 손으로 받아 썼다. (밀레니얼 스타 21 : 544 [1859년])

물몬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에 살았던 주민을 방문하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내용을 확실케 해주고 보충해 줍니다. 그것은 또 성경의 진리를 입증해 줍니다. 물몬경의 중심이 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 씌어졌습니다.

물몬경은 예언서입니다. 그 책의 출현은 성경 상의 많은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물몬경은, 사람이 그 책의 권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책을 읽고 하나님께 그것이 참된 것인가를 간구하여 보라는 권고와 함께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그 백성의 마지막 예언자였던 모로나이는 니파이인의 기록을 요약하기 전에 말일에 그 기록을 읽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사** 오늘 물몬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자주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이것을 위대한 기록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초기에는 회원들이 물몬경을 너무 가볍게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경고와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과거에 너희 마음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가 받은 것을 가볍게 다루었으므로 어두웠느니라.

“허영과 불신앙은 온 교회로 하여금 정죄받게 하였나니,

“이 저주는 시온의 자녀 곧 모든 자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저들은 회개하며 새 계명 곧 물몬경과 내가 저들에게 이미 준 이전의 계명을 기억하며 말로만 할 뿐 아니라 내가 기록한 것에 따라 행하기 전에는 이 저주 아래 머물러 있으리라.

“이는 곧 저들로 아버지의 왕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

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모로 10:4)

이 얼마나 놀라운 권고입니까!

윌리엄 이 베넷 형제께서는 1938년에 뉴욕시의 어느 모임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뉴욕시 출판 클럽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신 연사는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던 헨리 에이 월레이스였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주제는 “십 구세기의 양서”였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 구세기에 종교 분야에서 발행된 책 중 가장 훌륭한 책은 물론 성경입니다. 물론 이 책을 읽은 사람의 수는 미국 전 시민의 1퍼센트도 되지 않습니다만 그 1퍼센트에 끼친 영향은 국가의 역사를 변화시킬 만큼 힘찬 것이었습니다.”

베넷 형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저항의 폭풍을 일으키게 한 책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자 요셉이 예언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두 무리 즉 그 책을 믿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무리로 분리시켰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발행된 책 중 물론경만큼 비난의 글이 많이 써어진 책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 도서관에는 1500권 이상의 [반-물론]에 관한 책이 소장되어 있으며 책마다 물론경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1500권의 책은 각각 그 저자가 다릅니다. 그 1500권 중 2판을 낸 책은 겨우 두 권 뿐입니다.” (윌리엄 이 베넷, “물론경이란?” 자신의 종교를 알라 총서에서 1953-54년, 10월 21일, 1953년, 1-2페이지)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비평을 할 때 좀처럼 물론경이 거짓된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경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로버트 비 다운즈는 “미국을 변화시킨 서적”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물론경을 스물 다섯 권의 그러한 책 가운데 포함시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주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무기는 물론경이었다.” (로버트 비 다운즈, 미국을 변화시킨 서적, 뉴욕, 맥밀란사, 1970년, 35페이지)



새로 부름받은 칠십인 제일 정원의 칼로스 이 애시 장로와 엠레셀 벨라드 이세 장로

이지)

물론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 사람들이 활동적으로 일해 오던 그들의 교회를 떠나게 했으며 부모와 가족을 버리게까지 하였습니다. 그 책과 그 책이 가르치는 진리에 대한 그들의 신앙은 만일 그들이 교회에 속한다면 모든 가족 관계를 끊었다는 말을 듣고도 여전히 그것을 믿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업과 국가마저도 포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배를 타고 또는 도보로 평원을 횡단하여 솔트레이크 계곡에 정착하여 어려운 상황 아래서 살았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물론경은 세상의 어느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요 우리 종교의 종석입니다. 누구든지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하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사 4:461)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주 선교사들

에게 물론경과 현대 계시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성경 뿐이라면 어떻게 선교 사업을 하겠습니까? 예언자 요셉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경과 현대 계시를 없앤다면 우리의 종교는 어디에 있겠으며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 있겠는가?” (교회사 2:52)

물론경이 참된 책이 아니라면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나는 물론경이 참되다는 것과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및 그의 경전에 있는 계시는 참되며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는 현 경륜의 시대에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그분의 복음과 더불어 모든 열쇠와 권능을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회원의 신앙과 간증을 굳게 하고 정직하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 이 위대한 책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경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책은 독자에게 그의 진리를 힘

차고 조용하게 증거해 줍니다.

팔리 피 프랫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영은 내가 [물몬경]을 읽는 동안 나의 정신을 일깨워 주고 나의 판단을 확신케 했으며 진리에 대한 이해를 굳게하여 사람들이 낮과 밤을 구별하듯 나는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집 5:194)

브리감 영은 물몬경을 읽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서 느껴 알 수 있듯이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교집 3:91)

그 책은 비회원들까지도 감동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야기는 제임스 몬로 해스팅스와 그 부인 에디의 경우입니다. 해스팅스씨는 1930년대 초 경제 공황 동안 뉴멕시코에 있는 어느 침례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어느 부흥회가 끝난 후 그는 누군가로부터 물몬경을 한 권 선 사받아 그것을 집에 가져다 책꽂이에 꽂아 두었습니다. 약 오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그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을 다 읽고 난 뒤 그는

가족에게 그 책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 하였습니다. 다음 주말에 아리조나주 스프링거빌로 가서 그에게 좀더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 회원을 찾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침례를 받은 것은 그로부터 불과 몇 주 후였습니다.

해스팅스 형제 내외와 그의 가족이 오클라호마시티에 있는 우리 교회의 한 작은 지부에 나타난 것은 1939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온 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그의 형과 가족을 개종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 뒤 해스팅스 가족은 또 그들이 가르칠 사람이 살고 있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갔습니다.

또 한 경우는 저의 친한 친구가 저에게 들려 준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사에 있는 동료 한 사람에게 물몬경을 한 권 주었습니다. 그는 곧 그 회사에서 물러나와 그후 수년간 이 친구에 대해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자네는 자네가 준 그 물몬경에 대해 궁금히 여길 걸세. 난 그 책을 아직 안 읽었비만 우리 가족 가운데는 그 책을 읽은 사람이 많지. 그 책을 읽고 자네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이 가족 중에서 열 아홉 명이나 되네.”

“나는 그 책을 가져다 책장에 꽂아 두었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시다가 그 책을 보시고는 읽기 시작하시더군요.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책에 대해 물어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은 참된 책이다.’ 이것이 그 많은 사람이 침례받게 된 동기가 되었네.”

주님께서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너를 통하여 나의 말을 받게 되리라.” (교성 5:10) 물몬경과 교회에 주어진 말일의 계시는 요셉 스미스를 통해서 왔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입니다. 니파이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간절한 진리의 뜻을 좇아 죄를 엄하게 다스렸음에 악마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면 결코 내가 기록한 것으로 하여 성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믿을진대 이 말을 믿게 되리니,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임이라. 이 말씀은 만민에게 선행을 가르치느니라.” (나이 33:4, 10)

니파이인들은 살아나신 주님께 대한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셨을 때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내게로 와서 너희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넣어 보고, 내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온 땅의 하나님임을 알라.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이를 증거하였고, 저들이 친히 보고 들었으며...” (니삼 11:14, 17:25)

물몬경은 요셉 스미스에 대해 증거합니다. 예언자 리하이는 그의 막내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애굽에 팔려간 위대한 요셉에게 하신 언약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비범했던 예언자 애굽의 요셉은 주님으로부터 그의 씨에서 의로운 가지가 생겨 나며 말일에는 메시아가 그의 후손에게 나타내지리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요셉의 잔류민을 위하여 모세와 같은 위대한 예언자를 세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요셉이 증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를 세우시리니, 저가 내 몸의 소산들의 으뜸된 선견자이리라 하고 하며,

“저가 나의 명한 일을 할 것이매 저를 내 눈에 위대한 자가 되게 하리라.

“...모세처럼 위대하게 만들리라.

“저의 이름은 나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저의 부친의 이름과 같을지며, 저는 나와 같으리니, 주께서 저의 손으로 이루게 하실 일은 주의 권세로 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나이 3:6, 8-9, 15)

말일의 예언자인 요셉 스미스는 이 예언을 성취시켰습니다.

물몬경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류를 위한 그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우리 시대에 그의 사업을 다시 이룩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온 인류가 이 책을 읽고 이 힘찬 메시지를 스스로 알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저는 이 복음과 물몬경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아멘. *

토요일 저녁 신권회의 한 장면



개인의 간증

조셉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보조

복음의 메시지를 외치는 데 큰 힘을 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간증입니다.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언제 어디서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사업이 참됨에 대한 그들의 신앙과 지식을 간증하는 것은 무척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느 사람이든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의 참됨에 대해 개별적인 확신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기대됩니다. 그 교리란 우리가 외쳐 전파하는 복음이 회복된 구원과 삶의 계획이며 그것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이전의 경륜의 시대에, 또 주님과 그의 사도가 절정의 시기에 이 지상에 제실 때 그들이 지냈던 것과 같은 열쇠와 권능을 지닌 하늘의 사자가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회복해 준 영원한 복음과 열쇠, 원리 및 교리입니다.

완전히 이성에만 의지하여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려는 사람은 그것이 오펜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됩

니다. 바울의 다음 말씀에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전 2:11)

영국 시인 존 드라이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를 썼습니다.

세상의 이성과 지혜는 인간에게 마치 하늘에 있는 별이나 달과 같이 희미하다. 별은 하늘 전체를 나타낼 만큼 충분한 빛을 발하지 않는다. 세상의 이성과 지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지는 않지만 우리를 인도해 준다. 희미한 빛(별)은 태양(낮의 주인)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사라지듯이 이성과 세상의 지혜 또한 영적인 지식 앞에서는 그 모습을 감추어 버린다.

“속인의 종교”, 드라이든 시집,
캠브리지, 러버사이드 출판사,
1950년, 162페이지.

모로나이는 레이먼 백성에게 작별을 고하면서 물문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간증을 남겼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거니와,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록들이 혹 참된 것이 아닌지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참 마음 참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써 간구할진대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이 진실함을 밝히 나타내어 보이시리라.

“또한 성신의 권세로써 너희가 온갖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성신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존재하심을 알리로다. 내가 너희에

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권세를 부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닌 신앙을 보시고 권세로써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을 두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느니라.”(모로 10:4-5, 7)

저는 수년 전에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어느 기독교의 한 고위 성직자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에 관해 언급한 기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돌아가셨음니다만 교회 회원의 생활 표준을 칭찬하고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간증을 하게 하는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가 행하시는 위대한 기적을 많이 보았지만 때로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주가 과연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그리스도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 줍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참으로 신앙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 16:13-17)

아버지로부터 계시로 베드로에게 주어진 그 간증은 해를 두고 우리에게 전해져 왔으며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 방법이 되어 왔습니다.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바로 그 예수께서 오늘도 살아 계시며 그가 우리의 구세주요 구속주라는 회복된 복음의 참됨을 알고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신의 은사와 권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간증의 원천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제시의 반석입니다.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것은 혈과 육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계시의 해 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진실함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유일한 것이며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외치는 데 힘의 원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간증은 확고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것은 계시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하여 일어나는 박해와 비난에도 굳게 맞설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의로운 생활에 의해 굳게 다져져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성장해 감에 따라 인생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커질 것이며 하나님의 대표자에 대한 신앙이 확고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사들은 회복의 메시지를 갖고 세상에 나아갈 때 이 말일의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 간증은 단순한 말 이상의 것이어야 하며 그것은 참된 확신이어야 합니다. 간증은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마음과 영혼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때 듣는 자가 쉽게 던져 버릴 수 없는 충동을 그들 생각에 남겨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을 동반하여 오는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신학은 성경이 이미 더 이상의 계시를 실을 수 없으며 영감의 시대가 지나가 버렸다는 데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초기 경륜의 시대에 살던 예언자나 사도에 있는 것도 아니며 현대의 총관리 역원이 지닌 간증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힘은 교회의 회원의 간증과 신앙에 있으며 모든 회원은 연구와 진지한 기도를 통해 그 간증을 얻으려 하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려 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간증은 이 사업의 진실함에 대한 지식이 됩니다. 그것은 의로운 생활과 자신을 돌보지 않는 봉사를 통해 매일 매일 강하게 되며 마침내는 확실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지식은 부주의나 죄가 아니고는 어느 것도 그것을 약화시키거나 무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은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신성하고 고귀한 것으로 복음의 원리에 대한 순종으로써만 얻을 수 있으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은 세상의 권유에 쫓아 순간적인 쾌락을 느낄 수는 있다.

“사람은 일순간의 쾌락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쁨은 알 수 없으며 행복 또한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행복은 오직 영생으로 인도하는 끈고 좁지만 잘 다져진 길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간증이다. 때로는 장애물도 있고 박해도 있고 자기 부정도 있고 눈물도 흘려야 한다. 그것은 우리는 세상적인 이상과 함께 유혹에 접하게 되며 그것을 극복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희생인 것 같기도 하지만 순간적인 것일 뿐이다. 주님께서 그를 찾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만은 않지만 아뭏든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의 약속을 이루신다”

일반적인 간증과 자신의 간증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신성하다고 하는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위대하고 영화로웠던 나타내심이 아니라 [그는 그에게 있었던 특별한 어떤 나타내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온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인생의 보화, 메저렛 출판사, 1962년, 229—31페이지)

성신의 은사와 권세를 통해 1830년에 교회가 조직된 이래 수백만 말일성도의 마음과 영혼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분이요 영으로는 아버지의 장자시며 육으로는 아버지의 독생자시며 우리의 구속주요 구세주이시며 영생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시며 우리의 만형이라는 것과 당시 14세의 소년이던 요셉 스미스의 겸손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살과 뼈를 지니고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1820년에

뉴욕주 팔마이라 근처의 숲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과 이 경험에 대한 요셉의 기록이 참되다고 하는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요셉 스미스가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현 경륜의 시대, 즉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시키는데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언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성신이 알려 주었다고 간증해 왔습니다. 더우기 주님의 교회의 예언자로서 요셉 스미스의 뒤를 이어온 모든 예언자요 대관장들은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을 포함하여 모두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리는 열쇠를 지니고 계셨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온 인류에게 회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할 권능과 책임을 부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을 변명할 수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 요셉은 지상에 회복된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랬듯이 그의 간증을 피로 인봉했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 즉 현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와 50여년 이상을 함께 지내 오면서 나는 주님께서 그의 종에게 영감과 계시를 주시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이 나의 영혼에 이것들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음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영원한 영을 하나님의 성령의 속삭임에 맞출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눈에 보일 것이요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 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기도드리신 회원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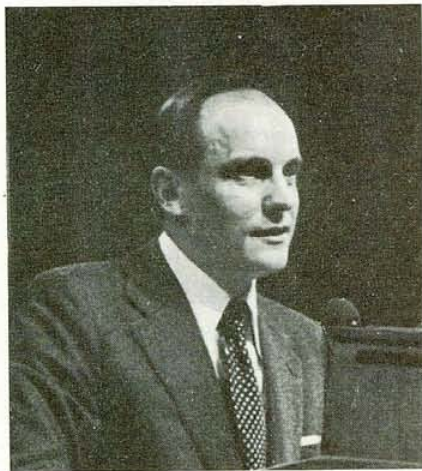


국민의 가치

찰즈 에이 디데이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제도가 가치있다는 것은 개인이 가치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서유럽 지역, 즉 벨기에, 프랑스, 이태리, 네덜란드, 스페인 및 스위스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과 간증을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기 위해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저는 학생 시절에 쓰던 국제법 노트를 한 권 발견했습니다. 결장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요 이전 국제 연맹 창설자의 한 분인 아리스티드 브리앙의 다음과 같은 인용구가 대문자로 크게 써어 있었습니다. “제도가 가치있다는 것은 개인이 가치있다는 것이다.” 저는 회사, 정부 혹은 교회 같은 여러 다른 기관에서 연구를 하거나 일을 해 오면서 이 말을 몇 번이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국가의 가치는 그 국민의 가치에 달려 있으며 그 국가는 국민의 열망에 따라 부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국민, 한 국가가 역사상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세상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것은 그 국민이 지닌 의로운 열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록하게 영감받아 제정한 헌법을 갖고 있는 이 나라의 건국 2백 주년을 축하하고 그 백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주님께 찬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들은 미국 사람의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잔잔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제 일차 세계 대전 직후에 우리 국민이 어떻게 굶주림으로부터 구출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관용을 내 자신이 처음으로 목격한 것은 우리가 해방되던 날 경기관총이 장치된 트럭을 타고 가던 어느 미군 병사를 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내 손에 무언가 먹을 수 있는 커다란 것을 하나 쥐어 주었습니다. (후에 그것이 “콘비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십대의 소년이었을 때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묘지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천 개의 무덤이 하얀 십자가로 줄지어 있는 것을 보고 미국 사람의 희생을 회상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학생으로서 유럽의 우리 국가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자유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를 배우면서 마야살 플레에 감사드리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국가들이 어떻게 독립을 유지하고 자연적인 재해로 타격을 입은 그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복구되고 원조를 받았는가를 기억합니다.

저는 젊은이로서 우리 집에 두 청년을 맞아 들이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상스럽게도 그들은 장로라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에게 주님께서 그의 자녀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증거가 실

린 물몬경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에게 회복된 복음의 소식과 그리스도의 신성한 아들의 위치와 요셉 스미스의 거룩한 사명 및 이 교회의 신성함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메시지와 예언자의 부름에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자발적인 태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신권 소유자로서, 선교부장으로서 여러분이 보여 주신 자비와 희생과 사랑과 헌신과 노력의 모범에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의 제명을 순종할 때라고 하는 교훈을 어떻게 배웠는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럽의 여러 선교부와 스테이크를 여행하면서 선교사들이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으며 이제 그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저는 스페인에서 부름을 받은 선교사가 이태리에서 그의 간증을 하듯이 모든 젊은이가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부름을 받아들이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부름받은 어느 장로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선교부장에게 자신과 동반자가 전날 저녁에 3주 전만 해도 전혀 알지도 못하던 언어로 다섯 개의 토론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어느 지부 선교 책임자가 그의 신권 동반자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선교사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가족이 열 다섯이나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영감받은 주님의 예언자가 우리에게 결음의 폭을 넓히라고 하신 메시지가 사랑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방부장이 더 나은 활동과 출석을 위해, 그리고 스테이크로 승격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보면서 희생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저는 수백 명의 회원이 신전에 가고 또한 다가오는 지역 대회를 준비하고, 새로운 봉사과 우정의 영으로 왕국을 건설하는 것에서 노력과 헌신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그 결실을 모두 열거하자면 끝이 없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이 사실에서 좋은 땅에 뿌린 씨앗은 더욱 훌륭한 결실을 거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룩하



모임 중간의 대화장 주변

신 일과 모범과 진리의 빛을 찾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많은 사람에게 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오늘은 아직도 내일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회를 건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한 국민으로서 악의 공격을 방어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의 국가를 갖게 되겠습니까? 백성이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고 옷을 찢어 그 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쓴 것은 모로나이가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종교와 자유와 평화와 아내와 자녀를 위하여”(엘 46 : 12)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라의 가치는 그 백성에게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회개하는 것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교회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 회복된 말임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이며, 주는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이다. 그에 대해서는 경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 : 12)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또 “이에서 지나치거나 모자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태초부터 거짓 말하는 자인 저 악한 자의 영”(교성 93 : 25)입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어디에서든 진리와 악의 선택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시됩니다. 그것은 신문, 광고, 개인, 라디오, 텔레비전, 대화를 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선택이 정신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거절하든지 지시하든지 순종하든지 타협하든지 단념하든지 언제나 확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매일의 선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입니까? 열정, 공포, 용기, 자만, 게으름, 혹은 의지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이나 간증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알려 주셨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와 빛을 받아 드디어 진리로 영광을 얻으며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교성 93 : 28)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함께 다음 구절을 기억합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줄 너희는 알찌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시 100 : 1-3) 세상의 앞날은 백성의 손에 달렸으며 오늘날 살아계신 예언자를 따르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지어 줍니다. 저는 이 훌륭한 대회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기억되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각오를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요셉 스미스- 회복을 가능케 한 위대한 예언자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땅 끝에 있는 자도 네 이름을 물을 것이요, …네게서 끊임없이 권고와 권위와 축복을 구하리라”(교성 122:1—2)



우리는 거룩하신 구속주 예수와 그 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하여 어느 곳에서나 끊임없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가르치며 간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제까지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와 모든 성도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아버지의 이름을 경배드립니다.

우리는 그와 그의 대속의 희생을 기뻐합니다. 만인은 그의 이름을 높이 받들어 칭송하며, 그의 발아래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가 만인의 주이심을 의칠 것입니다. 그가 없고서는 불사불멸과 영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다른 한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그리

스도와 구원에 관한 지식을 우리 시대에 알려 주었으며, 거룩하신 주님께 관한 율법과 지식을 계시해 주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면전에 돌아가 그곳에서 충실한 자에게 준비된 영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분입니다.

나는 회복을 가능케 하신 예언자 요셉 스미스 이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최초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은 인간 사회에 다시 세워져, 위대하신 여호와가 고대 백성과 맺으신 성약을 이루실 수 있게 되었으며, 인간이 그와 함께 의롭게 일천년 동안 거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지상의 모든 주민에게 전하는 주님의 음성을 대변하신 예언자 요셉에 대하여 보다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에 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영원한 세계의 회의에서 고귀하고 위대한 자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담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 신이 함께 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게 될 이 지구를 창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룩하신 이와 첫 인간이 되신 미가엘의 지시를 받아, 그는 아버지의 창

조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전세의 상태에서 빛과 지식과 예지 가운데서 성장하여 극소수의 사람밖에 이르지 못하는 영적인 성장을 했으며, 더 나가서 모든 경륜의 복음 시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대를 관리하도록 예임받았습니다.

1820년 봄에 우주 만물의 지배자는 오랜동안 이 지상을 가리웠던 암흑의 장막을 거두었습니다. 장소와 사람을 택하여, 천국으로부터 뉴욕주 팔마이라 근처의 나무 숲으로 내려 오셨읍니다. 그들은 어린 요셉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지상에서는 참되고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 없으며, 그는 충만하고 영원한 복음을 회복하는 데 도구로 쓰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주님에게 침례를 베푸신 요한과 또한 주님의 관리 사도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새로이 부름받은 예언자 요셉에게 내려와 그들이 이 세상에 계시 때 지니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신권을 그에게 수여했습니다. 이 신권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입니다.

이밖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라파엘과 모세와 엘리야와 일라이어로, 이들은 차례대로 내려와서, 그들이 옛날에 직접 지니고 있던 열쇠와 권능과 권세 및 특권을 수여했습니다. 이리하여 요셉 스미스는 합법적인 통치자가 되고, 높은 분으로부터 부름받고 위임을 받아 주님을 대신하며, 그의 대변자가 되고 그의 복음을 전하며 그의 의식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부름은 막연하게 선을 행하거나 진리를 가르치려 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 15:16)라고 말씀해 주신 사람들과 똑같은 지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천사를 만났읍니다.

웃시아왕 시대의 이사야와 광야에서의 모세나 이스라엘 칠십인 장로와 같이, 요셉 스미스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1836년 4월 3일에는 커틀랜드 신전에서,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몸으

로 영광 중에 나타나시어, 격한 홍수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이같이 간증하시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살아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아버지와의 너희의 중보자니라”(교성 110 : 4)

“얼굴은 번개처럼 빛났고 그가 입은 옷은 다른 어떤 것보다 뛰어나게 깨끗

하고 희”던(교성 20 : 6) 모로나이도 다른 천사들과 같이 여러번 나타나 미대륙의 고대 백성들의 영적인 기록의 출현에 관계했습니다.

여기 이 사람에게는 하늘 나라에 관한 것이 열려져, 성신의 권능으로 계시를 받고 시현을 보았으며, 왕국의 깊고 오묘한 비밀을 이해하게 되었음

니다.

커틀랜드에서 거룩한 은혜가 이같이 넘쳐 흐르고 있던 오순절 동안에,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하늘 왕국과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는 “왕국의 상속자들이 들어서게 될 불꽃에 싸인 듯 무한히 아름다운 문을 보았으며, 또한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에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07페이지)

영광의 세계에 관한 그의 시현은 장막 저편의 세계에 관해서 어느 예언자가 우리들에게 기록해 준 것보다 가장 완전하고 훌륭하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가 주의 이름으로 들려 준 수많은 계시는 옛날의 사도와 예언자들이 그러했듯이 영원한 세계의 놀라운 일과 복음의 영광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려 주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현대의 세계에 이제까지의 어느 예언자가 따를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경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 그는 과거의 가장 많은 예언서를 쓴 열 두명의 글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물문경을 번역했는데, 이 책은 성경에 비견되는 것으로, 고대 미대륙에 살았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록이며, 이 책에는 영원한 복음이 충만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는 현대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여러가지 시현과 계시를 받고 이 세상에 퍼 내었습니다.

이들중 약 250페이지는 교리와 성약에 들어 있으며, 그 나머지는 교회 정사에 실려 있습니다.

그는 영감에 의해 흠정성서를 수정하고 보충시켰는데, 이는 어느 사람이 해놓았던 것보다도 완전하게 했으며 본래의 상태로 해 놓았습니다. 이에 관한 그의 업적의 대부분은 현재의 값진 진주에 실려 있습니다.

그의 말씀과 그의 행적과 남과 같은 일상 생활의 세세한 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페이지트에서 교회를 조직한 때로부터 카메이지에서 죽음을 당한 시기의 일을 기록한 그의 일기는 현재 교회에서 발행한 총 3295 페이지에 달하는 전 여섯 권의 책 속

태버니클 광경



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그가 섬기던 주님처럼 마귀를 쫓고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바로 그 달에, 뉴웰 나이트는 악한 영에 사로 잡혔습니다. 그 상황은 대단히 심했고 고통스럽게 되어, 뉴웰 나이트는 “얼굴 모양이 찌그러들고 사지가 뒤틀려 무서운 모양으로 변해 벌떡 일어나 방안을 뛰어” 다녔습니다. 예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꾸짖고 떠나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나이트 형제는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나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조셉 필딩 스미스, 교회 역사, 데저레트 출판사, 1969, 95-96 페이지)

예수는 갈릴리의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첫번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셉은 뉴욕주 콜레즈빌에서 하나님의 신권으로 악마에 사로잡힌 자의 몸에서 악마를 떠나게 하여 처음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1839년 7월 22일에, 일리노이주 컴머스(현재의 나부)와 아이오아주의 몬트로즈에서 예언자는 이집 저집 찾아다니며 병들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때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는 브리감 영과 여러 명의 십이사도들도 있었습니다. 죽음에 임박한 형제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포드햄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리에서

일어나 온전하게 되라.” 그곳에 함께 있었던 윌포드 우드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음성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같았다. 집 전체가 마치 밀바닥에서부터 흔들리는 듯 했다. 포드햄 형제는 병상에서 일어나 즉시 나았다.”(교회 역사, 270페이지)

여기 이 사람은 자신이 증언한 것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간증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쫓기어 결국은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폭도들은 그의 온 몸에 칼날을 바르고 그 위에 깃털을 묻혀 그를 끌고 다녔으며, 그는 깃발히고, 미움받고, 투옥 당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마

울겐 앞에 앉은 알렉산더 슈라이너와 대관장단. 왼쪽부터 매리온 지 롬니, 스펜서 더블류 킴볼, 앤 엘든 태너



5:10)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의 형편 없는 감옥에서 여러 달을 보냈으며 수많은 거짓과 무고의 희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그와 소수의 동료들이 폭도들에게 붙잡혔을 때였습니다. 1838년 11월 1일에, 빌라도 앞에서 불명예스럽고 불법적으로 예수를 재판한 것과 같은 불법 군법 회의가 그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도니판 육군 준장 귀하

“내일 아침 9시에 요셉 스미스와 다른 죄수들을 파웨스트 광장에서 총살형을 집행할 것을 명함”

“사뮤엘 더 루카스”

“육군 소장”

도니판 준장은 이 상관의 명령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정의에 불타오른 그는 대담하게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그것은 잔혹한 살인 행위입니다. 본관은 귀하에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본 여단은 내일 아침 8시에 리버티를 향해서 행군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이들을 처형하신다면, 이 재판에 대하여 귀하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에이 더블류 도니판” “육군 준장”
(교회 약사, 241페이지)

그러나, 결국 주님의 증인이었으며, 주님으로부터, “네 명수는 알려져 있으니, 네 생명은 하루라도 짧게 헤아림을 받을 수 없느니라”(교성 122:9)고 약속을 받은 요셉 스미스는 거룩한 계획에 따라 축복사인 하이람 스미스와 함께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순교당한 선견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오 주 나의 하나님여,”(교회 약사, 383페이지)라고 한 것으로, 이는 의인이 사악한 자들의 박해를 벗어나 있는 곳 즉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피로 인해 완전하게 된 의인들이 함께 하는 곳으로 그의 영이 들어 서며 말한 것으로, 그들은 드디어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찾은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오래 전에 이 세상을 떠난 그의 동료 예언자들과 같이 바로 주님의 증인이었다는 사실에서 그의 위대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교성 76:22-23)

그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은 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가 순교한 뒤에 거룩한 선언문이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주의 예언자요, 선견자인 요셉 스미스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많은 일을 수행했다.”(교성 135:3)

여기 요셉 스미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이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그들 자신의 영적인 발전 상태²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땅 끝에 있는 자도 네 이름을 물을 것이요, 어리석은 자도 너를 조롱하며 지옥도 네게 향하여 분노하리라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귀한 자와 유덕한 자는 네게서 끊임없이 권고와 권위와 축복을 구하리라.”(교성 122:1-2)

모든 사람은 그들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요셉 스미스와 그의 거룩한 사명에 대해 스스로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그의 이름을 물어 보고 말일의 예언자에게 제시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구원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살아 있는 사도를 조롱하고 경멸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옛날과 같이 인간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구원이라는 큰 문제를 안고있는 오늘날의 모든 사람이 대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집의 모든 가족은 그에게서 또는 그가 갖고 있던 권능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충고와 권능과 축복을 구할 것입니다.

진실로 조금도 오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문이 되십니다. 그분은 문에 서 계십니다. “주께서 그곳에 종을 두시지 아니하며 그 문을 지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그 길에 이를 자가 없나니, 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 시매, 아무도 그를 속이지 못하리로다.”(니이 9:41)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요셉 스미 증인이 되기도 하여, 우리는 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

의 것을 매고 하늘의

능을 받은 합법³

이후의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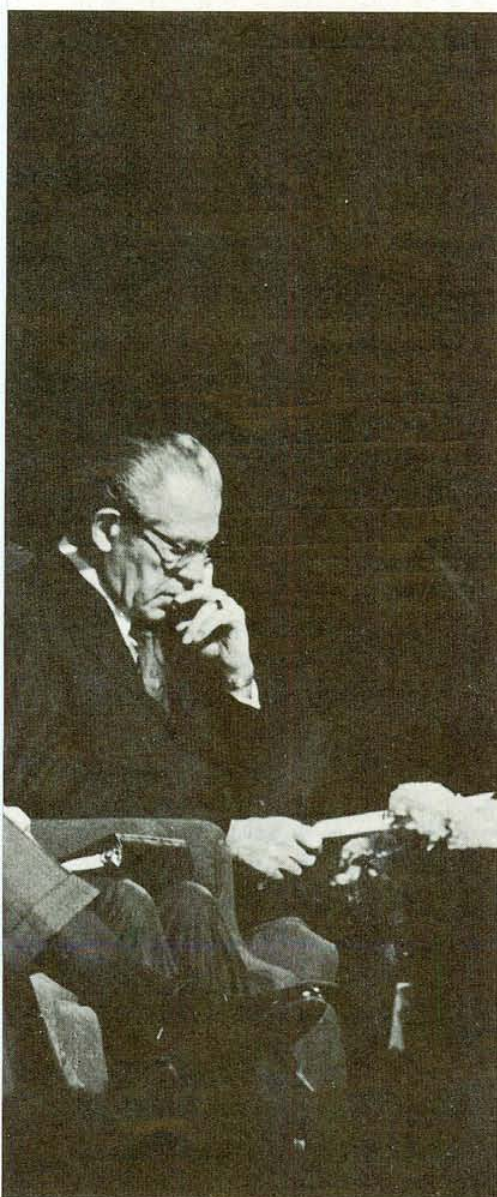
될 수 있는

우리⁴

요셉

는

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있습니까?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너희도 이를 따라 행하라”(니삼 27 : 21)



1. 여러분께서 이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을 찬란하게 발하는 위대인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에서 비추어진 진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진 이 세계 해줄 것

진대 교회에서 이를 행하며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너희도 이를 따라 행하라.

“...이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삼 27 : 21, 27)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이 모범에 따라 생활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몇 가지 모범을 지적하겠으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활을 그것과 비교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부름을 받습니까?

“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니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느니라.”(교성 18 : 23)

여러분은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이름에 대하여 품고 있는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어 모든 세상 사람에게 그를 알려 주어 그들도 그의 거룩한 이름을 받들게 해야겠다는 욕망을 갖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망명되어 불리우는 것을 듣게 되면,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느낍니까? 여러분은 그가 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가 가지 않으실 곳에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하고

성스럽지 못한 것과는 함께 하려 하지 않으므로써 그의 이름을 흠없이 깨끗하게 지켜 왔습니까?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의 이름을 받들며 그의 일을 하든가 아니면, 사탄의 군사가 되어 파괴시키는 그의 일을 돕든가 해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를 찬양했습니다. 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가르침을 완전하게 수행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면, 우리도 역시 그와같이 해야 합니다. 이는 그가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너희도 나를 따라 행하라”(니삼 27 : 21)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구세주는 여기에서도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고로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라. ...

“모든 자로 하여금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 하라 덕을 쌓으며 내 앞에서 거룩할지이다.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자로 하여금 형제를 자기 자신처럼 여기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가 되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나의 것이 아니니라”(교성 38 : 22, 24—25, 27)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기꺼이 우리를 위해 고통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갯세마네 동산에서 고통받으시며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수많은 일을 생각해 보면 극히 자만하는 자라도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 그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이었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

러 서려고 까지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그 쓴잔을 마셨고 인간의 자녀를 위한 준비를 끝마쳤느니라”(교성 19:18-19)

여러분은 이웃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많이 내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위해 마련하신 모범을 따랐습니까? 그는 모든 인간은 절대적으로 침례받을 필요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어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을 얻으리라”,

“나를 믿지 아니하고 침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니삼 11:33-34)

이 중요한 의식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편리한 대로 변경되었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버림받기도 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으며, 그러므로 그의 교회도 사라졌고, 그의 의식은 아

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거짓되고 사악한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극히 적은 수의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침수로써의 침례를 통해서 그의 왕국으로 들어 갔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진하는 이 교회의 메시지는 태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오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삼 27:27)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변화해야 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께서 변화되어 구세주와 같이 되시기를 권고합니다.

집안의 가장이 되시는 여러분들은 변화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인도하되 구세주께서 하시듯 하십시오.

집안의 어머니가 되시는 여러분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

되 그리스도께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에서 불경스러운 것을 쫓아 내어, 여러분의 자녀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것을 배우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불결한 의설물이나 마약이나 알콜의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면, 그가 여러분을 가까이 하여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좋은 시절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순결을 지키십시오. 모든 인간을 구세주께로 이끈다는 것을 행동 목표로 삼으십시오. 경전에 들어있는 영원한 진리를 마음 속에 가득 채워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부모님과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늘의 음악에 귀 기울이고 노래 하십시오. 더럽고 천한 소리나 사탄의 음악을 거부하십시오. 사탄은 감각적이고 육욕적인 리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어 내리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강한 관계를 맺어 유혹을 물리치십시오. 어떠한 이외의 관계도 이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가운데 구세주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 분이 있으면, 깨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의 종들에게 여러분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와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게 하십시오. 그의 일을 하고 구원을 위해 그가 보여 주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 보내신 그의 종들을 받아 들이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어둠속에 떨어져 험난한 세상에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의 의로운 일을 주관하시며,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살아있는 예언자로 구세주를 따르는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 구세주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조셉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보조

신전 건립에 따르는 축복

애드니 와이 고마즈 장로

십이사도 보조

신전은 우리에게 의식을 수행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준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구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 큰 대회에 참여하여 여러 형제님들의 훌륭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을 분명히 느끼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훌륭한 말씀으로 나의 간증은 더욱 커졌으며 내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습니다. 나는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이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이 이끄는 주님의 교회임을 알고 있음을 겸손하게 간증드립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선교사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왔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합당한 젊은이는 누구나 선교사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선교사로 일하라는 부름에 응하는 헌신적인 젊은 남녀가 많아짐에 따라 개종하여 침례받는 사람이 나날이 증가되어 가는 사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킴블 대관장님은 또한 영감과 계시

를 통해서 더 많은 신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해에는 전 세계의 세 곳 즉, 브라질의 상파울로, 일본의 토오쿄오, 미국 워싱턴주의 시애틀에 주님의 새로운 신전을 짓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일에 회복됨에 따라, 신전 건립과 신전 의식도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의해 회복되었습니다. 1830년 4월 6일에 교회가 조직된 직후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신전을 지으라고 명하셨으며, 1833년에서 1836년 사이에, 교회의 회원수가 이전 정도 채 되지 않았을 때,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성도들은 오하이오주의 커틀랜드에 신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으나, 주님의 집을 건립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희생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컸으나, 그 뒤에 따르게 된 축복에 비교해 보면, 그것은 보잘 것 없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1836년 4월 3일, 신전을 완성한 후에, 안식일 집회에서 엄숙하고 조용한 기도를 끝낸 뒤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라는 큰 시험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전을 받아들이심을 직접 보여 주시는 시험이 그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부름의 열쇠와 권능을 갖고 있는 세 명의 위대한 예언자의 방문을 받았는데, 이들은 복음의 회복의 시작에 따르는 권능과 사명을 요셉과 올리버에게 맡겼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전이 세워지게 될 곳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임무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역시 희생을 치루고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일본이나 그 외 동양 지역에 있는 회원들은 신전을 짓는 일이나 스테이크 본부나 예배당을 짓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젊은 아버지는 그가 신전 기금을 헌금한 일에 관하여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감독이 신전 기금으로 자기에게 할당한 금액을 받아들이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이 금액은 자기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그가 일년을 두고 저축해야 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아내와 아이들과 상의한 뒤에, 그들은 그들이 저축해 놓은 금액을 모두 토오쿄오 신전을 짓기 위해 주님께 바치기로 결정하고, 그들은 새 집에 대한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감독에게 이를 바친 지 얼마되지 않은 어느 날, 그분의 장관이 그를 사무실로 불러 그를 승진시켜 주고, 급료도 많이 올려 주었으며, 새 집을 지을 주택 수당도 주었습니다.

회원들의 헌신과 신앙심을 보는 일은 대단히 즐거운 일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그들의 시간과 재능과 재산을 바쳐가며 임무를 수행해 내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귀히 여기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말일의 계시로 주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로다.”(교경 7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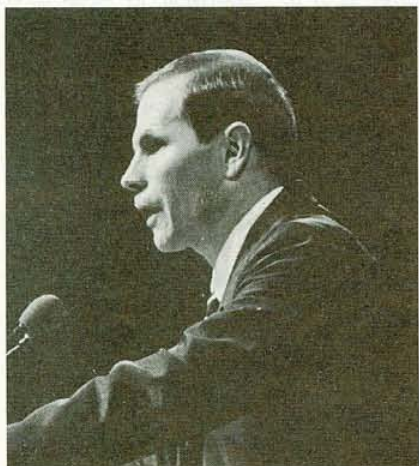
커틀랜드 신전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난 세 분의 위대한 예언자 중에서 한 분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워간 예언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는 이 경륜의 시대의 열쇠를 그들의 손에 맡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진실로 그 때가 완전히 이르렀나니, 말라커의 입으로 이야기되던 때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르기 전에 저(엘리야)가 파송되어, 선조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며 자녀의 마음을 그 선조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온 땅이 저주로 얻어 맞으리라고 증거한 그 때니라.”

여러분은 회원 선교사입니까?

진 알 록 장로
칠십인 제일 평의회

모든 회원은 그들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방편이 되어야 함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대회의 모든 순서를 크게 축복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형제님들이 성령의 힘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며, 여러분 역시 성령으로 귀를 기울였다면 여러분은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의와 각성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교사 프로그램에 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같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선교 사업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킵 대관장님은 모든 회원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모든 회원은 그들의 전 생애동안 복음 선교사로 일할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38편 40절과 4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하거니와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장로, 제사, 교사 그리고 회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힘을 다하여 손수 일하며 내가 명한 일을 준비하며 완수하라.

“이웃 각 사람에게 전하는 너희 말은 온유하고 겸허한 경고의 말이 되게 하라”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온유하고 겸허하게 그 음성을 높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나는 분명히 압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신권 지도자들은 교회 회원들이 선교 임무를 완수하도록 도와 줄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흔히 이렇게 질문하는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록 장로님, 말하기는 쉬우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 이웃을 경고하라는 선교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내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여러분께 이에 관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진리를 옹호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 회원들 중에도 클럽이나 단체나, 심지어는 교회 회원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도 진리를 외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리를 교만스런 마음으로 외칠 게 아니라 대담하게 외쳐야 합니다. 현실의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주님과 예언자에게 간구하십시오.

아주 도전적인 상황에 처했던 어느 훌륭한 여인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오찬회에 참석했는데 그 곳에는 활동적인 교회 회원도 있었고 비활동적인 회원도 있었으며 또한 비회원들도 몇 사람 있었습니다. 화제

가 낙태와 산아 제한으로 기울어지자, 한 비회원이 약 오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역설했습니다. 그녀는 낙태가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으며 산아 제한 그 자체에 관해서 남, 녀 간에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다고 그릇된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 훌륭한 자매는 이렇게 되자, 날씨가 그밖에 논의의 여지가 없는 주제로 화제를 돌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를 그대로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라는 곤란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이 훌륭한 자매는 후자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설명한 후에,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에 관하여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임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교회에 잘 나오지 않던 어느 자매가 이 훌륭한 자매에게로 와서 자신이 전에는 이 문제에 관한 주님의 견해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날에 그 자매가 말씀하신 것에서 진실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마음을 터 놓고, 여러분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원리에 대하여 간증을 하십시오. 간증으로 인해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진실한 느낌은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나약하고 시시하며, 논쟁적인 이야기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나 그밖에도 여행을 하거나 물건을 살 때나 다른 곳에 갈 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문경이나 교회의 소책자를 주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선교사를 받아들여 복음을 알게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소책자나 물문경이나 그 밖에 선교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지 않은 채, 매일을 임하는 회원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물문의 샘에서, 예언자 엘마에게 모든 회원이 지켜야 할 칙례서약을 내려 주셨는데, 이 특별한 과제는 회원들에게 내려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의 일부는 모사이야서 18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어느 때, 어느 곳에

서나 법사에 하나님의 증인이...원할진대.”

우리는 여러분께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어, 복음 진리를 이 세상에 증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킴볼 대관장님은 우리들에게 간절히 기도하여 우정을 함께 나눌 가족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들어 보기로 합시다. “가족이 함께 일함으로써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버지되시는 분들이 그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훌륭한 한두 가족을 선택하여 가족과 함께 우정을 나누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로 인도할 친구나 친척을 결정하십시오. 그런 다음에는, 가족이 함께 그들과 어울려 지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월요일 이외의 어느 날 저녁에 그들과 함께 가정의 밤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과 어울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가족이 관심을 보이면, 와드나 지부의 선교 책임자에게 그들을 소개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에 선교사를 불러 회복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이 간단한 방법을 따라 행한다면, 여러분은 수많은 훌륭한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은 천하에 다니며, 필름스트립)

여러분은 킴볼 대관장님이 간절히 기도하여 가족을 택하라고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엘마가 말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그것을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을 주님의 도구로 쓰시어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게 되기를 간구한다면, 여러분께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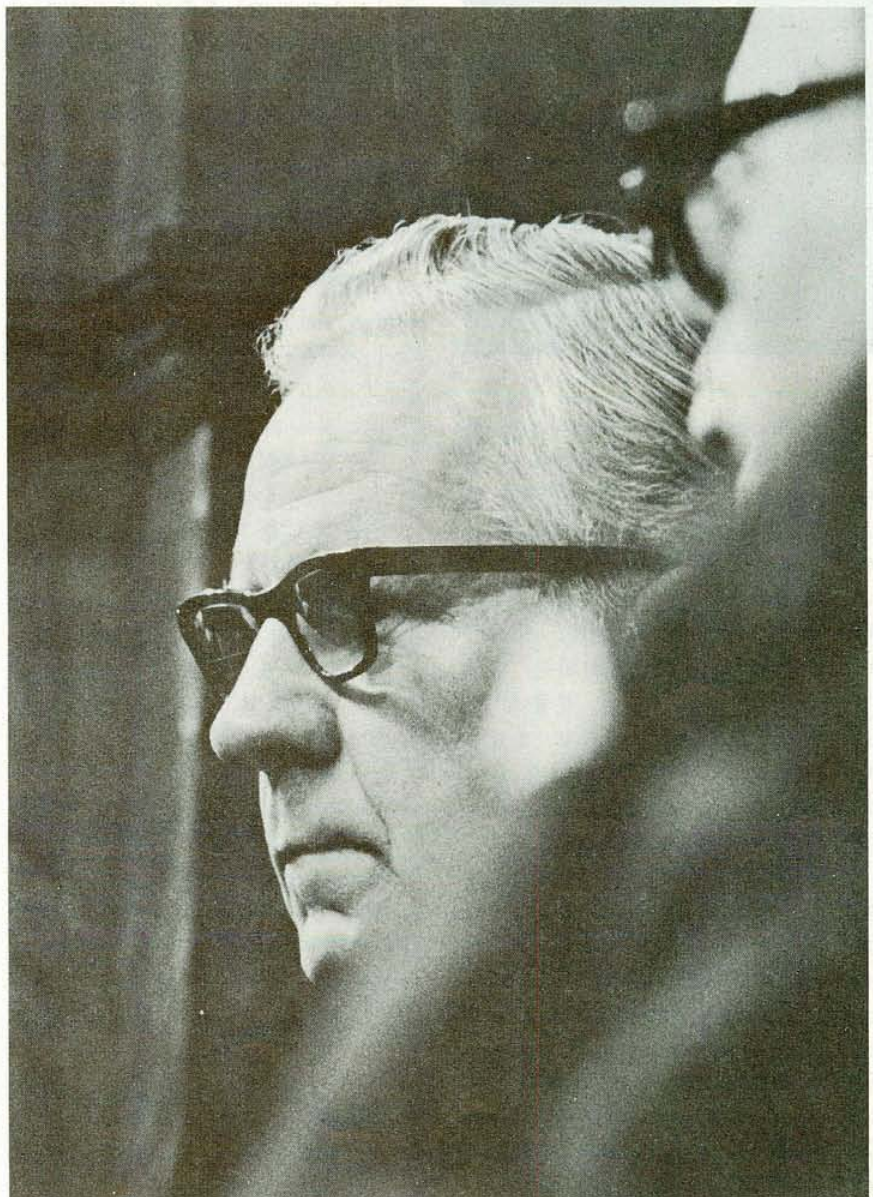
아직 이 교회의 회원이 되지는 않았으나, 이 대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노니, 기도하며 이 교회의 교리를 연구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그것에 관해 기도해 보시면, 나와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지상에서 유일한 참된 교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주님께서 위대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여러 나라로 나아가...진리의 표상이 세워졌으니... 어떠한 부정한 손도 이 일이 나아가지 못하게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박해가 격심해지며, 폭도들이 결속하고, 군대가 집결하고 무고로 혈투고자 할 것이나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대륙과 모든 나라와 모든 마을로 찾아 다니며, 만인의 귀에 울릴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 위대한 여호와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것은 담대하고, 품위있게 그리고 땀땀이 나아가는 것이다.”(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

회 정사, 4:540)

나는 복음이 만인의 귀에 울리게 될 것이라고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유일하고 참되며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나는 오늘날 지구상에 살아있는 예언자가 있다는 것과 우리가 교회의 회원들로서 지구상의 모든 주민들에게 경고의 음성을 높여야 함은 참으로 절박한 일임을 증언합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순종할 때 이것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마빈 제이 애쉬튼, 십이사도 평의회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평의회

국가에서도 단합과 조화가 매우 필요하지만, 교회에서는 더욱 더 필요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팔레스타인의 서쪽 변방이 정복되었을 때, 고대 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함께 뭉쳤습니다. 준비가 다 되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포위하기 위해 진영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언약궤를 메고 진영을 인도하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으면 강물이 마르는 기사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예언한 대로, 요단강 물이 기적적으로 막혀 그들은 마른 땅 위로 건너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강바닥으로 다 건너 오자,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 두 사람을 선택하여, 요단강에서 돌 열 두 개를 어깨에 지고 와서 그것을 그들이 그날 밤 야영할 곳에 놓아 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수 4:6-7)

그때로부터 선조들은 후손들에게 기념물을 남겨 놓았으며, 후손들도 선조들에게 찬사를 드리며 그것을 높이 받들었습니다. 여기 이 템플 스퀘어에도 이러한 기념물이 주위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들어 보자면, 초기 나부 시대의 종, 갈매기 기념비, 회복의 기념상, 돌발손의 그리스도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공동 유산인 중요한 사건을 오랫동안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고, 한 세대와 다른 한 세대를 이어 주는 역할을 해 줍니다. 시간이 흐르고 조직이 커감에 따라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공동 목적에서 조차 분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우리는 단합된 신앙의 힘을 간직하고, 우리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잊지 않기 위해 기념물을 세우거나, 유혈절을 지키거나, 연차 대회를 개최하라는 명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기르고 단합하기 위해서는 기념물이나 축제를 갖는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16대 미국 대통령, 1809-1865년)은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막 3:24-25)라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를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에도 단결이 이같이 필요할진대 전세계적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내에서의 조화와 상호 의존은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대회도 거의 끝나감에, 나는 현대의 예언자가 “이 세상에서 행한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칭한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사도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만찬을 든 후, 밤이 다 될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요한이 듣고 감명을 받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세상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이니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 17:1, 6, 9, 11, 18, 20-22)

교회내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단결은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교성 38:27 참조) 우리는 참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교전 12:21) 북미인들이 아시아인들에게, 또는 유럽인들이 섬 사람들에게, “나는 당신배들

이 필요없으"라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실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모든 회원이 필요하며,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과 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고전 12:25-26)

바울이 한 말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여, 언어와 문화 양식이 다양해 가고, 그에 따라 우리 앞에 더 큰 과제가 놓여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단합된 마음으로 살아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바와 같이, 그는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전세계에 전할 수 있을 만큼 널리 퍼져,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그들이 맡은 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로 단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많은 일이 행해져야만 합니다. 교회의 와드와 스테이크와 지부와 지방부와 그 회원들이 신전과 예배당을 세우고, 복지 사업을 수행하며, 죽은 자를 돌보며, 교회를 돌보고, 신앙을 키울 수 있는 것 등이 단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욱 많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같이 위대한 주님의 목적은 의견 충돌이나 질투심이나 이기심 등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교회의 회원들에게 대적하는 적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불화, 결점 찾기, 또는 적대 행위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려웠던 시기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교회에 방해가 되는 적대 요소는 우리가 서로 믿고 협조하는 정신으로 결속되어 있지 않았던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 위를 가득 덮고 있던 구름은 우리 머리 위에 축복을 가득 부어 주었으며, 몇몇 형제들의 마음속에 질투심을 불러일으켜 나와 교회를 함께



십이사도 보조인 알빈 알 다이어 장로가 친지들을 찾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파멸시키려던 사탄의 책략은 전복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내에 가득한 단합과 조화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 2:355)

물론, 교회내의 단합의 열쇠가 되는 요소는 단합된 영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완전히 평화로와 내적으로 투쟁하거나 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노력이 무위로 끝나; 개개인이 평화롭고 조용하게 생활할 수 있고, 가족은 서로 친밀하게 관심을 갖고 지내며, 와드와 스테이크나 지부와 지방부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지체를 이루어, 온 세상이 니파이가 간구한 대로, "...온전한 희망의 밝은 빛을 품고,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까지 모든 부족한 자를 도와 주며,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며, 상처받은 자를 고쳐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니파이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이 길이니라..."(나이 31:20-21)

전세계의 교회와 성도의 거대한 지체가 동에서 서로 그리고 남에서 북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대회는 참으로 영적인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영감이 가득 찼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자를 받들고 지지하며, 그의 지시에 따라 하나로 뭉쳤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며, 우리가 하나로 뭉쳐 그의 계명을 따른다면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수 있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영원한 부를 구함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우리는 분명한 안목과 건전한 판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가정과 가족이 도덕적으로 높은 것과 영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홀로에 걸친 대회 모임을 끝내고, 이제 연차 대회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 지구상의 각 나라에서 오신 수많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금 그들을 만나서 그 백성들이 크게 성장하고 발전한 것을 듣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우리는 이 대회가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큰 감명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주님의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 : 26)

주님은 성역에 입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재산을, 세상의 명예와 찬사와 부와 영광을 구하는가 아니면, 영혼의 영원한 부를 구하는가를 물은 것입니다. 무엇이 유익할 것입니까?

이와 같이 주님은 세상의 영광과 인간의 영혼에 속하는 영광을 훌륭하게 대조하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것

과 하늘의 소망이나 성취에 관한 것을 하나 하나씩 들어 가며 생생하게 대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청중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 : 33)고 권고하신 훈계를 거듭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영적인 것이나를 선택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는 큰 명제가 됩니다.

이 대회의 말씀에서는 유명한 정치가와 순수한 교육가와 일반 대중은 현재 영적으로 궁핍한 시대며 도덕적으로 타락된 시대라고 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높은 표준과 가족 생활과 공동 생활이 점점 몰락해 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조금도 흔들림없이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어느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오랜 편력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만큼 와 있는가? 우리는 모든 인류를 위한 빛과 자유와 평화의 날에 가까운가, 아니면 우리 위를 덮어 버리는 또 다른 밤의 그늘에 처해 있는가?”

우리, 교회의 회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으로 우리 자신의 가족을 인도하며 우리의 자녀가 진리를 사랑하도록 하며 불멸의 품위를 지녀 행복하게 되도록 양육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신앙을 세로이 하고 자유를 구가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우리는 전문적이며 능력이 있는 많은 회원들을 키워 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탄광에서,

용광로에서, 또는 건축장에서 일하며, 선반을 돌리거나, 실을 빼내거나, 파수원을 재배하며, 병자를 고쳐 주고, 곡식을 심는 일 등의 유익한 일을 자랑스럽게 해 내는 훌륭한 지도자와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적들은 무력만 알지 하나님은 모으며, 무기의 사용만 알고 헌신을 모릅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불신을 조장시키며,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이용하려 듭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항거하는 것은 무엇이나 괴롭히려 하며, 특히 진리에 대하여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지상에서 분명한 안목과 건전한 판단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가정과 가족이 도덕적으로 높은 것과 영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추구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가정은 국가의 초석이 되므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가르치고 훈련시킵시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그들이 의롭게 생활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시민이 되도록 가르칩시다.

자녀에게 종교와 도덕을 가르치는 일은 분명히 부모의 책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인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대회에서 훌륭하고 명백하게 가르쳐진 기본적인 주제를 다시 강조하게 될 10월 대회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가정과 가족을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며, 또한 복음을 전세계의 모든 나라에 전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개미가 여러분의 집의 기초를 파들어 가는 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지체없이 그 환개미를 근절시켜 집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족에게 침투해 오는 악마의 파괴력입니다.

우리는 스위스의 교육자인 페스탈로치가 한 말에 참으로 큰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요, 부모가 자녀로 인해 갖는 기쁨은 인간의 가장 거룩한 기쁨이다. 그 기쁨은 인간의 마음을 순수하고 선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르게 한다.”

결혼 생활과 가족의 임무를 합당하게 이행하며,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의 이상을 높은 곳에 둔 모든 부모의 마음 속에는 이 위대하고 고귀한 기쁨이 자리잡고 있음을 여러분이나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방, 헐뜯, 악담이나 결점을 들추어 내는 것 등은 모두 가정을 파괴하는 무서운 뱀개미들입니다. 말다툼이나 욕하는 것 역시 가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조지 워싱턴은 이 점에서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그의 부하 장교들이 불경스런 말을 했음을 알고는 그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1776년 7월 1일에 보낸 그의 서한을 여기서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본인은 어리석고 사악하고 불경스런 저주와 욕을 하는 악덕한 풍조가 미국 군인들 사이에 점차 퍼져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다. 여러 장교들은 솔선 수범하여, 이 점을 철저히 가려 낼 것이며, 상급자나 하급자가 다같이 반성하며, 우리의 부족함이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지각과 인품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 이를 반대하고 경멸한다는 것은 극히 천박하고 비열한 것임을 이에 덧붙이는 바이다.”

어느 유명한 저자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그 어느 시기이건 훌륭한 것이다—철없이 마음대로 뒤흔 수 있는 어린 시절이나 꿈에 부풀 사춘기와 구애의 시기도 그렇고, 생산해 내며, 경쟁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부모의 시기가 다 그러하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멋이 있는 시기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장한 자녀의 친구가 되고, 자녀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는 때이다.

“청년기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와 계획 속에 파묻혀 있는 때이다. 사춘기는 신비와 그리움과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다. 아버지가 되기 시작하면 투쟁과 문제 해결에 몰두하게 된다. 아주 늙게 되면 영원한 신비로 그늘지게 되나, 장년기와 중년기에는 의롭고 충실하게 살아 왔다면 단순한

성공감을 느끼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와 손자녀와 함께 하는 데서 큰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는 가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는, 알 제이 스프래그의 글을 더 읽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은 누구나 차례대로 맞게 되는 소년기, 사춘기, 청년기, 부모기, 중년기 및 노년기에 맞는 기쁨과 만족감으로 인간 생활의 완전한 주기를 이루어야 한다. 각 연륜에는 경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 만족감이 따르기 마련이다. 인간은 인간의 행복의 전 과정을 알기 위해서 여러 번 거듭나야 한다. 첫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도 태어나고 아버지도 태어나고 조부모도 태어나는 것이다. 탄생에 의해서만 이러한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인생의 자연적인 주기에 의해서만 이 위대한 인간 기쁨의 진전 과정을 맛볼 수 있다.

“개인이 정상적으로 인생의 과정을 밟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젊을 때 결혼하는 것이나, 원 살이 되기 전에 가족을 부양하거나, 중년기와 노년기의 깊고 특유한 기쁨을 누리는 일 등을 하지 못하게 막는 여하한 사회 체제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섭리를 파괴하며 온갖 종류의 사회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좀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생리 조건을 갖춘 젊은 남자가 이십대 초에 결혼하여 생활을 해 나가며 가족을 부양하고 양육하게 되면, 그들은 정상적인 인생의 주기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사회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미혼 친구보다 범죄나 부도덕, 이혼 및 가난이라는 문제를 훨씬 잘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발달한 힘을 갖는 젊은 시기에 자녀를 낳고 길러, 그들이 어른이 되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즐기며, 노인이 되어 약하게 되면 그들에게 의지하고 또 인간과 하나님이 창안해 낸 노인 보험 제도의 덕을 보게 되며, 그 연금으로 필요한 물자를 얻게 되나, 주로 위안이 되는 것은 사랑과 우정의 충만한 기쁨에서 나온다.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은 중년기에 맞보게 되는 것으로, 그것은 배우자와 자녀와 손자녀

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각자 정상적으로 생활해 가며, 이러한 인생의 주기를 누리고 있는가를 살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대회도 다 끝나감에, 우리 성도들이 온 정성을 다해, 일하며 모든 지도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며,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가르쳐 널리 퍼져 온 세상에 미치게 되기를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훌륭하게 생활해 나가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고 죽은 자를 위해 계보 탐구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규적으로 효과있게 가정의 밤을 갖는 것을 매우 중요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의로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 선교사로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경고하는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경륜의 시대를 열게 하셨습니다.

“들으라, 오 너희 내 교회의 백성들아, 높은 데 거하여 모든 사람을 굽어 보시는 이의 음성이 말하노라. 그러하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 바다의 섬 위에 있는 지여, 함께 들을지이다.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나니,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꿇들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느니라.

“복음을 배반하는 자는 많은 슬픔으로 찢림을 받으리니, 저들의 죄악이 지붕에서 이야기되고 저들의 은밀한 행위가 드러날 것임이니라.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

“너희는 준비하여 장차 임할 일에 대비하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또한 주께서 진노하시고 주의 검이 하늘에 셋기웠은즉 땅의 주민 위에 떨어지고,

“주의 팔이 나타나리니,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종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예언자와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백



솔트레이크시티에 거주하는 알렉스 모리스 형제와 그의 부인

성으로부터 절단될 날이 임하리라.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본질은 하나의 우상이며 낡은 것이니 바빌론 곧 멸망할 때 바빌론처럼 파멸하리라.

“일렀으되, 세상의 약한 것이 나와 능력있고 강한 자를 쳐부술 것이요, 이로써 사람이 자기 이웃을 훈계하지 아니하며 육체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며”(교성 1:1-4, 12-14, 16, 19-20)

나는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은 욕에 관한 생각으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꾀술을 발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사곡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욥 2:9-10, 27:3-6, 8)

오늘 이 자리에는 오십 명의 특별한 증인이 있습니다. 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제창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수없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거나 야고보거나 요한이라 또는 김형제거나 박 형제라 교회는 인간의 생애를 기초로 하여 세워질 수 없으므로, 베드로의 반석이 아니라, 계시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내가 네게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계시했느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7-19 참조)

우리가 모두 함께 크게 영적인 감명을 받은 이 훌륭한 대회를 끝마치면서, 나는 여러 형제 자매님께 간증드립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권능으로 땅에서 뭘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에서도 뭘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 옛날 당시에 십이사도는 그것을 받았읍니다. 그것은 오늘 날에도 그들에게 다시 주어졌읍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열쇠는 이 지상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힘을 기울여 구세주의 사업을 밀고 나가기 원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이 간증을 드리며, 여러분이 집으로 가시는 길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여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해 주시며, 이 대회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숙이 자리잡아 영원히 잊혀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복지 사업에 대한 교회와 가족의 책임

빅터 엘 브라운 감독

관리 감독

가족 예비 프로그램은 교회 예비 프로그램의 기초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복지 사업 프로그램의 기본되는 원리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 회원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인, 가족 그리고 교회가 저야 하는 책임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수년 동안 이야기되어 온 권고를 아직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적어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노력은 생각지 않고 다만 교회가 돌보아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과 가족의 예비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실천되느냐에 따라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의 성공이 가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회원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무한하신 지혜로써 우리가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축복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복지 사업은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교성 104 : 16) 스테이크 부장, 감독, 상호부조회 회장은 회원들에게 자립과 독립의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의 회원이라면 이 원리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회원이 모두 이 가르침을 온전하게 실천하게 된다면 예기치 않게 일어날 문제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해의 영광의 세계에 있을 곳을 받기 원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 요구한 바를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준비해야 하느니라.”

“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예비시키는 준비요, 기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한 예이니 이로써 너희가 명령을 성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에게 환란이 닥칠지라도 나의 섭리를 통하여 교회 회원이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요,” (교성 78 : 7, 13-14)

그는 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 (교성 38 : 30)

그러면 이제 복지 사업에 대한 교회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조직된 지 몇 개월 되지 아니하였던 말일의 경륜의 시기 초에 주님께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렇게 계시로 알려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며 저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도울지어다” (교성 38 : 35)

그 뒤로 수개월 후에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훈계를 더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를 기억하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닌 연고니라” (교성 52 : 40)

우리가 교회 전체로서 이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지 사업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궁핍한 자를 돌보는 교회의 방법과 정부의 방법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이 루우벤 클라크 이세 부대관장께서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실업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궁핍한 자를 돌보는 문제를 지역적인 것으로 국한시키는 이유의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실업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또 마치 미국 재무성과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 모든 것을 마음대로 꺼내어 쓸 수 있는 큰 저장소를 마련해 줄 수도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회 보고, 1944, 10)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읽어 보겠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자는 밥을 먹지도 말아야 하며 일군의 옷을 입지도 말아야 함이니라.” (교성 42 : 42) 실업 수당, 즉 무상으로 무엇을 얻는 것은 게으름과 의타심을 길러 주고 자존심을 짓밟는 것입니다.

우리 작자가 자신의 필요 사항을 준비하고, 또한 궁핍한 자로 하여금 독립, 근면, 자립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교회 복지 프로그램은 지나치게 게으른 사람 즉 “심령은 상하지 아니하고, 심정은 애통하지 아니하며, 배는 만족을 얻지 못하며, 손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하여 놓지 아니하며, 눈에는 탐욕이 가득하며, 제 손으로 몸소 알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를 꾸짖고 (교성 56 : 17) “마음이 청결하고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정을 지닌” (교성 56 : 18) 복있는 가난한 자를 찾아 돕는 것을 기뻐합니다.

개인이나 조직된 프로그램이 이 의로운, 그러나 불행한 성도로 하여금 스스로를 돕도록 돕는 것을 교회 예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워드 단위로 교회 회원은 생산 활동이나 통조림 공장, 창고, 고용 회사 및 기타의 복지 사업 기구와 같은 일터에서 시간, 노력 그리고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자는 두 번째로 큰 계명대로 생활하면서 사회, 정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다른 회원을 돕습니다. 그외에도 그들은 매달 금식 헌금을 바침으로써 교회가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금식 헌금으로도 움을 제공하는 대상이란 과부나 고아나 잠시 실직해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곤궁에 빠져있는 사람 등과 같은, 도저히 자진조차 돌보기 어려운 사람 뿐입니다. 그러나 이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한 뒤에야 도움을 받습니다.

일년 전에 이 복지 사업 모임에서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불행을 점치는 점쟁이가 되려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예언자가 예언한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게 해 주는 복지 프로그램이 근본 설립 목적을 아직 다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손수 생산한 것으로 살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대회 보고, 1975년 4월, 165 페이지)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몇해 동안 많은 재난이 있었습니다. 매일 혹은 이틀에 한번 정도는 지진, 홍수, 태풍 등의 재난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회원과 지도자가 자조의 필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재난, 더 많은 홍수와 지진 등이 일어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날이 점점 가까와 오며 따라 그러한 재난은 더욱 더 많아지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대회 보고, 1974년 4월, 183—184 페이지)

나는 우리 개개인에 게 그리고 교회 전체에 도래할 수 있는 상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가상적인 상황이

기는 합지만 다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다음 세 가지의 상황 아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상황은 경제가 비교적 안정되고 실직자의 수가 그리 많지 않고 천재지변도 심하지 않는 현재 세계 많은 나라가 처해 있는 것과 흡사한 상황입니다. 교회에서는 불과 소수의 개인이나 가족이 감독에게 일시적인 건강 상태, 정신적 혹은 경제적인 도움을 청하는 정도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돌보기가 무척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생산 활동, 창고, 직장 알선, 금식 헌금 등을 활용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보전 및 사회 봉사는 교회의 신권 조직이 이와 같은 특별한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회의 현재 예비 프로그램의 상태는 첫번째 상황에서 교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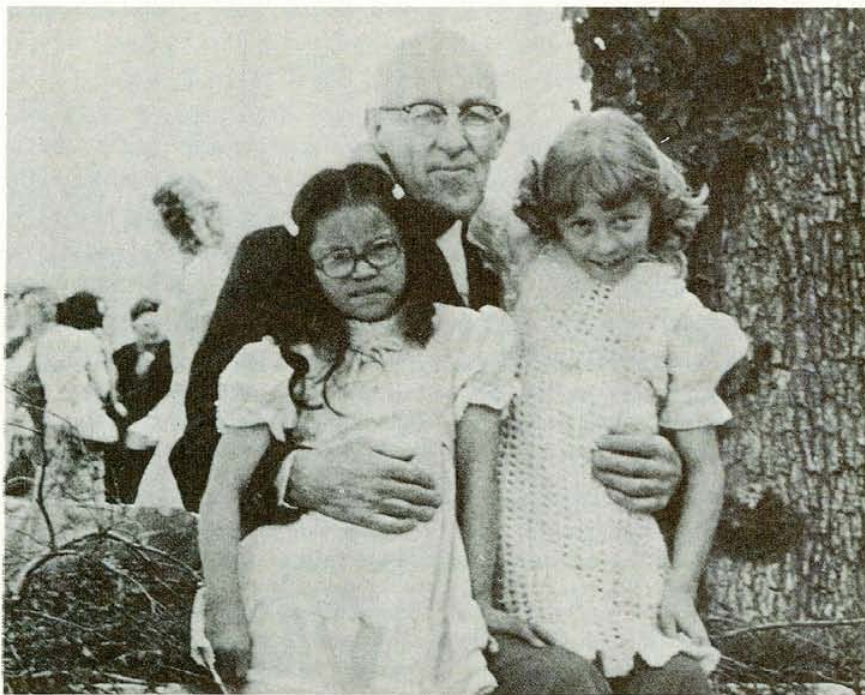
두 번째 상황은 건강, 사회 및 경제

적인 문제가 좀더 긴장되어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는 심각한 실직 사태나 지역적인 천재지변과 더불어 경제 공황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분열될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생산 활동으로 최대의 것을 생산하고 기타 생산 품목 및 분배를 감소시키고 방대한 계획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정원회를 조직해야 합니다. 건강 및 사회 봉사 활동이 여러 지역에서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이 오래 지속되거나 넓은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자원으로 이 문제를 감당하기에 벅찬 일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의 상황은 극도로 심각한 것입니다. 경제는 심한 불경기를 이루어 거의 파산의 고통까지 겪어야 할 것입니다. 실직율이 높아가며 사회적인 불화가 널리 조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와 함께 담소하는 칠십인 제일 평의회의 하트만 렉터 이세 장로





아이린 빌리(좌)와 스이시 레이(우)와 함께 포즈를 취한 해럴드 엘 레이 형제

상황은 심한 흉작, 넓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천재지변, 혹은 국제적인 전쟁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아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교회는 두 번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도움 이상의 것을 마련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모든 사람의 복지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는 이 예비 프로그램이 잠정적인 예비 프로그램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상황과 세 번째 상황에서 우리는 사회적인 불안, 걱정, 공포, 좌절 등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경제적 및 사회적 현상에 따르는 모든 정서적인 긴장감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위협을 받게 됩니다. 가족과 개인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내기 위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들은 어느 때보다도 힘을 얻고 도움을 얻으며 또 주기 위하여 서로에게 의지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과 개인의 역할인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은 자신과 그 가족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

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 5:8) 그러므로 개인은 자신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노부모나 조부모를 돌보아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개인과 가족이 지닌 자원을 현명하게 활용함으로써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우리가 지난 복지 사업 모임에서 말씀드린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다섯 가지 근본 요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직업 및 사회 진출 계획. 남편은 자신을 준비시켜 직업을 택하고, 자녀는 만족할 만하고 직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가정이 곧 준비된 가정입니다.

“재정 관리. 준비된 가정에서 부모가 예산과 재정 관리의 근본 원리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며, 자녀는 실생활을 통해 이러한 기술을 배우는 가정이 준비된 가정입니다.

“가정 생산물 및 비축. 준비된 가정이라면 최소한 1년 간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필수품을 충분히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가능할 때 연간 물품을 얻기 위해 가내에서 생산하고, 키우고, 통조림하여 저장하고, 옷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건. 준비된 가정은 영양, 위생, 사고 방지, 치아 위생 및 응급 치료와 관련된 예비적인 건강 원리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 기구를 적절히 활용할 줄도 알고 있습니다. 성도의 건강에 관해 주님께서 주신 교리와 성약 89편에 있는 약속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사교성—정서적인 힘. 준비된 가정은 의로운 생활, 복음 연구,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사교성—정서적인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활 가운데서 불가피하게 대조를 이루는 슬픔과 기쁨, 손실과 풍요, 실패와 성공 등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믿는 신앙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엔사인, 1975년 11월 115페이지)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가 하는 일을 보여 주어서 아들로 하여금 일이 아버지의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려 주고, 부모는 가족의 예산을 계획하는 데 자녀를 참여시키며, 어머니는 딸에게 바느질이나 요리법 등의 가사 기술을 가르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어려운 때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안정되고 균형이 잡힌 가정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토론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진정한 정서를 기르게 하는 것 등입니다.

구세주께서는 부모가 되고 가정 생활을 하는 데 영원한 율법이 되는 열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요 5:19-20)

부모가 자녀에게 주님께서 알려 주신 방법대로 준비하고 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참다운 방법은 모범을 통한 방법입니다.

가장은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훌륭하게 실행함으로써 가정에서 축복사로서의 그의 참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다섯 가지 분야에서 자녀가 스스로 준비하도록 도움으로써 아버지는 자녀가 자

신을 갖고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스스로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교사와 상담자로서 뚜렷한 책임과 활동과 견해를 갖고 있을 때 그들은 가정의 축복사로서 가족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더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예비 프로그램과 가족 예비 프로그램과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중요성과 두 프로그램 사이의 관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우리 앞에 놓인 큰 일을 완전히 준비하려면 이 두 가지 예비 프로그램이 모두 필요합니다. 교회 예비 프로그램을 더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각 와드에서는 생산, 고용 프로그램, 감독 창고 운영 등에 참여해야 합니다.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더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계획을 세워 그것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다 완전히 자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모이신 지도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빛을 다른 가족에게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모범을 보고 조용히 그리고 사려깊게 준비할 수 있게 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돌보시는 회원에게 자립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여 도움을 청하지 말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각 와드와 스테이크에서는 복지 사업 프로그램을 지역적인 조건에 따라 실시하여 성도의 생활에 축복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스테이크를 성도들의 대피소로 만들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개인 예비 프로그램에 관하여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는 이 모든 책임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가르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그 가르침과 조화되는 영에 의해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교회로서, 가족으로서, 개인으로서 우리가 받는 영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준비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준비하라는 그의 권고에 따름으로써 축복받는 여러분과 회원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교회의 직업 알선 제도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관리 감독단 제1보좌

신권 정원회, 상호부조회,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 와드 및 스테이크 직업 문제 전문가가 그 해결책을 마련해 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현명하게 가족을 준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브라운 감독께서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 즉 가족 예비 프로그램과 교회 예비 프로그램의 몇 가지 요소를 요약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 예비 프로그램의 일환인 교회의 직업 알선 체제를 토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견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강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떠나면서,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창 3:19)하는 가르침을 받은 이래로 인간의 생활 방법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가장과 지도자로서 자녀에게 이 위대하고 영원한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기회입니다. 정직하고 몇몇한 일의 원리와 함께 주어진 것이 자립의 원리입니다. 이 자립은 완고하고 교만한 자립이 아니라 겸손하면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야 하는 커다란 책임이 신권 정원회에 부과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근본적인 책임은 우리 개인과 각 가족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복지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우리는 결코 신권 사업의 근본 목적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와드의 회원이 실직했거나 충분히 생계를 이룰 수 없는 곳에 취업되었을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것은 그의 책임입니다. 물론 신권 지도자는 해결 방법을 가르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직업을 구하는 방법이나 현재의 직업 상태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며, 다만 정원회 지도자의 도움에 의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스스로 직종을 검토하고, 직업 소개소를 찾아 가고, 이력서를 제출해 보고, 친척과 친구를 만나 보고, 그외에도 그가 할 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을 사용하여 현명하고 꾸준하게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직업을 구하려는 회원은 우선 전 가족으로부터 적당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형제, 자매, 부모, 아주머니, 아저씨 등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가족이 함께 도울 때, 가족 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것입니다. 실의에 차있는 이러한 기간동안 가족이 서로 순수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으

로써 가족의 강한 유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 모두가 직업을 구하는 데 필요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의 직업 알선 제도는 회원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 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직업 알선 제도의 목적은 자격을 갖춘 개인이 가능한 한 빨리 적당한 직장을 찾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적당한 사람이 적시에 적소에서 일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대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직업 알선 체제의 네 가지 분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우선이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장로 정원회입니다. 두 번째가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와 적당한 전문가이고 세 번째가 스테이크 직업 알선 문제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이나 가족이 신권 지도자와 가정 복음 교사에게서 합당한 훈련을 받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바를 다한 후에야만 이러한 곳, 즉 직업 알선 제도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신권 정원회는 모든 직업 알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열쇠가 됩니다. 즉 그들은 명목상의 정원회가 아니라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정원회로 활동합니다. 복지 사업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원회 지도자와 가정 복음 교사는 과도한 소비, 사업의 쇠퇴, 현재나 장래에 직업을 얻는 데 바람직하지 않은 부적당한 교육 등 곧 닥칠 경제적 곤란의 징후와 그밖에 경제적으로 압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복지 사업 지침서, 14페이지) 그들은 그들이 지명받은 가정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꾸준히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일자리나 더 나은 직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를 즉시 정원회 회장이나 그를 지도자에게 은밀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정원회 모임에서 정원회 지도자가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일요일마다 출

석 기록부에 두 개의 난을 만들어 각각 그 난에다 하나에는, “직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다른 하나에는, “일자리가 비어 있는 곳을 아십니까?”라는 말을 써 놓는 것입니다. 가정 복음 교사나 정원회 회원이 위의 난에 “네”라고 적으면 정원회 서기는 정원회 지도자에게 알려 그날 그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게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원회 회장은 즉시 정보를 제공해 준 개인과 접촉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얻어야 합니다. 고용의 기회와 필요는 곧 없어집니다. 많은 기회가 기껏해야 하루나 이틀 동안 사람을 기다릴 뿐입니다.

지침서는 정원회가 할 일을 이렇게 말해 줍니다. “...필요에 따라 상업 학교, 견습 교육 및 실습 훈련 등을 권고하여 직업 훈련을 받게 하거나 직장에서 승급할 수 있도록 도운다. ...정원회 회원들의 지식과 기술과 협력은 대개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복지 사업 지침서 14페이지)

정원회가 회원의 직업 알선 문제를 단독으로 도와 해결시킬 수 없을 때 정원회 지도자와 그 회원은 직업 알선 체제에서의 다음 단계로 그 문제를 가지고 잡니다. 이 단계가 바로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입니다. 가능하면 정원회 지도자도 추천할 만한 해결 방안을 준비해 와야 합니다.

복지 사업 위원회의 의무는 그들이 알고 있는 일자리를 어떤 것이든 신속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와드 위원회에서는 그 신권 지도자에게 직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와드의 직업 알선 문제 전문가와 만나게 하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와드에는 회원의 취직 문제를 돕는 전문가가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이 전문가는 직업 알선에 관계되는 분야에서 이미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한 사람이어야 하며 복지 사업 위원회로부터 지명을 받았을 때는 언제든지 개개인의 회원과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없으면 그는 와드나 스테이크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직업 알선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 와드로부터 고무적인 보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권 지도자와 가



사모아의 아파포엘 아푸알로 감독

정 복음 교사의 노력으로 직업 알선 전문가는 부모는 물론 십대의 자녀에게도 자신을 준비하고 우리 모두가 자녀야 하는 꼭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방문 교사는 그들이 방문하는 가족의 취직 문제를 알아서 즉시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회장은 다시 그 문제를 와드 복지 위원회 모임이나 감독에게 가져가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와드 신권 지도자가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는 직업 알선 체제의 세 번째 단계 즉 스테이크 직업 알선 전문가에게 그 문제를 넘깁니다. 이 전문가는 와드 단독으로 직업 알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지 못하는 와드 전문가를 도와 일하도록 스테이크 부장이 부른 사람입니다. 스



멕시코 성도, 좌로부터 아타누시아 실라스 자매, 그의 아들 루이즈 감독, 그의 부인 그라시엘라 자매

테이크에서의 방법도 와드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와드와 스테이크가 직업 알선 체계의 다음 세 가지 방법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회원을 돕습니다.

둘째, 와드 복지 사업 위원회는 직업 알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스테이크 직업 알선 전문가는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곳에 가서 도움을 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여러분의 와드나 스테이크로 돌아가셔서 이 직업 알선 프로그램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성도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1. 신권 지도자, 가정 복음 교사 및 방문 교사를 통하여 개인과 가족에게 자급 자족할 것을 가르치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2. 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 즉 가정 방문 교사와 방문 교사에게 직업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항상 살펴서 보고 하게 합니다.

3. 모든 와드나 스테이크 내에 있는 훌륭한 자질을 갖춘 직업 알선 전문가를 알아둡니다.

결론으로, 직업 알선을 훌륭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사람이 사람을 돕는 영원한 원리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몇년 전에 교회에서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특별한 형태의 일터를 마련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조부모님을 방문

하기 위하여 아리조나주 피닉스에서부터 솔트레이크시티까지 여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80세가 다 되신 할아버지께서는 그가 일하시던 곳을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슈가하우스에 있는 예전 메저렛 산업지였습니다. 나는 그가 일하시는 곳을 찾아가 보고 교회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터슨가의 이 축복사가 돌아가실 때까지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시면서 행복을 느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훌륭하신 분으로부터 나의 부친은 일의 신성함을 배웠으며 그것은 후에 그의 자손에게 가장 위대한 은사의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몇몇한 곳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 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식량 비축

본 제이 페더스토운 감독

관리 감독단 제2보좌

목표 : 다음해 이 시간까지 1년간의 식량을 비축하도록 합니다.



신 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러분, 그리고 상호부조회의 자매 여러분, 헨리 디 모일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의 메시지에서 세 가지를 얻어야 한다고 제언하셨습니다. 첫째로 가장 덜 중요한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 첫째보다 조금 중요한 것은 영적인 느낌을 얻어야 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점을 적으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킬 자신이 없는 것은 아예 각오도 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인격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열 다섯 살 이후로 26년 동안 식료품업계에 몸담아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인간의 속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파업, 지진, 전쟁의 소문이 대단히 활동적인 많은 말일성도에게 끼친 결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이 그들은 가게로 식량을 사러 바삐 돌아

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언자에 의해 주어진 지시를 알면서도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공포와 이미 모든 것이 영원히 늦어버린 때까지 미루어온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말일성도들 간에서만 물품을 구하러 우왕좌왕 뛰어다니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일성도의 수는 적은 것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수였습니다. 그로 인해 생긴 결과는 판매고의 증가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퍼뜨린 소위 헛된 제시가 널리 퍼졌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처럼 어리석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언자가 계시며 하나님의 대변인인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말일성도가 일년 분의 비상 식량을 비축하도록 각 스테이크와 와드에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원리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방법까지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아침 나는 식량 비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축해 둔 모든 품목을 조사하여 실제적인 재고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비축해 둔 품목이 많이 있으면 이것은 가정의 밤에서 커다란 활동이 될 것이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을 대하기가 무척 부끄러울 것입니다. 가장으로서 일년

분의 식량을 비축해 두라는 권고를 수년간 들어왔음을 알고 있는 자녀에게 살아계신 예언자에 대한 간증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힘찬 것이어야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현재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가족은 준비해 둔 물품을 조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비축된 상태에서 일년 분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품목을 정합니다. 그리고 곧 목록표를 작성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기본 품목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십시오. 밀(혹은 다른 곡식), 설탕이나 꿀, 분유, 소금 및 물이 그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러한 기본 품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매월 식비에서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교회에서는 비축을 위해 빚을 지는 일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현재 준비된 상태와 필요한 것을 확인한 뒤에는 언제까지 필요한 것을 비축할 것인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일년 후에는 모든 활동 회원은 물론 많은 비활동 회원의 가정에까지 일년 분의 식량이 비축되기를 바랍니다. 식량 비축이 위법인 곳에서는 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는 정원이나 밭에 채소를 가꾸고 과수를 기르고 토끼나 닭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십시오. 궁핍한 시기가 올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방법을 제언해 드리겠습니다.

1. 예언자의 말씀에 따르십시오. 그는 우리에게 채소를 가꾸고 과수를 심으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다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식량이 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모두 가꾸고 기르십시오. 그리고 또 밭에 뿌릴 일년 분의 씨앗도 사두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식량이 부족할 경우에 몸을 기댈 수 있는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제의하는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 지역에 따라, 다량의 곡류를 판매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마의 곡식을 사두도록 하십시오.

3. 꿀을 대량으로 파는 사람을 찾아



일본의 히도 후지 자매

내어 정기적인 생활비에서 살 수 있을 만큼씩 사거나, 매번 장을 보러 가거나 물품을 구할 때 설탕도 필요량 이외의 것을 조금씩 사도록 하십시오.

4. 분유를 구입해 두십시오.

5. 소금을 사서 마련해 두십시오.

6. 최소한 가족이 모두 2주일간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저장해 두십시오.

내가 언급한 식량을 구할 수 없거나 그러한 것이 그 지역의 주식이 아닌 곳에서는 그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준비를 할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저도 그와 같은 물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수지 균형을 맞추기조차도 어려운 지경인 걸요.”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언 가운데 어느 것이든 혹은 다 활용하여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려는 제언 중에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1. 금년도의 크리스마스 예산의 25~50퍼센트를 일년 분의 필수품 비축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2. 새 옷을 사고 싶을 때 참으십시오. 현재 갖고 있는 의복을 수리하고 손질하여 몇 개월 동안 더 사용하십시오. 그 돈으로 식량을 구입하십시오. 가구나 의복과 같은 식량 이외의 필수품은 가능한 한 집에서 만드십시오.

3. 오락에 사용되는 비용을 절반으

로 줄이십시오.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자녀에게 오래도록 좋은 인상을 남겨 주는 재미있는 오락을 계획하십시오.

4. 일년 동안 사용할 필수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내년도의 가족 휴가를 생략합니다. 많은 교회 회원은 휴가를 즐기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일년 분의 필수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휴가나 방학 기간에는 가족이 소유한 밭에서 일하도록 합니다. 함께 일하고 협력할 때에 즐거움도 한층 더한 법입니다.

5. 식료품 상회에서 광고하는 특별 품목을 살펴 특별히 가치있는 것을 여러분으로 구입하십시오.

6. 가족의 식단을 변경시키십시오. 단백질은 고기보다 값이 싼 다른 식품에서 취하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식료품비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가게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은 과자, 사탕, 아이스크림, 잡지 등, 생필품이 아닌 물건을 사고 싶은 유혹에 끌립니다. 그러나 사지 마십시오. 주의깊게 생각한 뒤 꼭 필요한 것만을 사십시오. 비축해 놓은 물품을 생각해 보고 아낀 돈은 부족한 필수품 구입에 사용하십시오.

모든 말일성도가 1977년 4월까지 일년 분의 식량을 비축해 두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각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각오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내년 4월에는 우리의 창고가 모두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가족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는 사랑하는 예언자와 총관리 역원의 권고를 따르고 있음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다음은 가정 생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이 허락하고 조건이 가능한 곳에서는 가족을 기르십시오. 과수, 포도 넝쿨, 작은 열매를 맺는 넝쿨 및 채소를 가꾸십시오. 여러분은 가족이 싱싱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르는 다른 식품은 가정 비축의 일환으로 저장되거나 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식량 이외의 필수품도 만드십시오. 옷은 집에서 만들거나 고치도록

하십시오. 필요한 그외의 것도 직접 만들거나 짓도록 하십시오. 부언하고 싶은 것은 모든 재산을 아름답게 꾸미고 수리하고 잘 유지하시라는 것입니다.

가정 생산은 식량이트 그 이외의 필수품은 수입을 증가시키고 기술과 재능을 발전시키는 한 방법이 됩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자급 자족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자녀들은 일과 근면과 절약의 근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롬니 부대 관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생산한 것으로 살 때가 올 것입니다.”(대회 보고, 1975년 4월, 165페이지)

나는 다음과 같이 묻는 사람에게 몇 말씀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권고를 따르지 않은 이웃과 비축한 물품을 나누어야 합니까? 일년 분의 필수품을 비축해 두지 않은 비회원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나누어 써야 합니까?” 물론입니다. 그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비축한 것을 나누어야 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어리석은 생각은 그만 두도록 해야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웃이 굶는 것을 보면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람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굶어 죽게 된다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요 15:13)

우리가 가족을 위해 비축한 것을 훔쳐 가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하늘에는 우리가 순종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명을 지킨 자를 잊어 버리시리라 생각합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30) 시온의 성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시온을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시키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읍시다. 마음이 청결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공의로우며 거룩한 곳에 서도록 합시다. 1977년 4월까지의 일년 분의 식량을 비축해 두겠다는 각오를 합시다.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 여러분, 와드와 스테이크에 있는 성도를 대신하여 이러한 목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내년 이맘 때에는 우리가 좋은 결과를 성취했는가를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께서는 1973년 10월 대회에서 가정 비축에 대해 훌륭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의로운 자에게 재앙에 대한 경고를,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든 재해에 대비할 피난처를 마련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근에 관해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만이 예언자의 음성을 듣고 적어도 일년 분의 비상 식량을 저장해 두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복지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무렵 교회의 대관장의 지시를 받아, 가족을 남겨 두고 홀로 가족도 없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유럽에 가서 식량, 의복, 침구 등을 궁핍한 회원에게 분배해 주면서 굶주림과 결핍의 참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나는 거의 아사 직전에 놓인 성도의 움푹 패인 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나는 영양 실조로 걸음도 못 걷는 서너 살 된 아이를 업고 가는 어머니도 보았습니다. 나는 굶주린 어머니가 음식 대신에 아이를 위해 옷을 기워야 할 실패를 택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어른들이 시온 곧 미국에서 보낸 밀과 콩을 움켜 쥐면서 우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언자와 이 훌륭한 프로그램을 주시고, 성도들이 자신의 관리 직분을 잘 수행하여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그 이웃과도 나누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준비하라”, 엔사인 1974년 1월, 69, 81—82페이지)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일년 분의 필수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방법을 마련해 주시리라는 것을 겸손히 증거합니다. 나는 우리가 각오를 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시간과 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말일성도 여성에게 자급 자족을 가르침

바바라 비 스미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소단위반을 통하여 자매들은 가정 생산과 가정 비축 프로그램을 돕는 기술을 배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과 지난 10월 복지 모임에서 관리 감독이신 빅터 엘 브라운 감독께서는 교리와 성약 78편 13절과 14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쳐올 환란의 날에 우리가 견디어 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어 “교회 회원이 해의 영광의 세계 아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립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성 78:14)

우리는 교회 회원이 이 문제에 관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자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종은 안전과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그것은 자신과 평온한 태도를 키워줍니다.

상호부조회 역원은 교회의 여성들이 각 가정에서 최소한 일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필품을 준비하고 관리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일성도 여성이라면 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식량이 될 수 있는 것을 기르고 생산하고 보호하는 일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합니다.

현명하게 현재 필요한 것을 사용하는 반면, 미래를 위해서 절약하고 신중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상호부조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자매들을 지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와드 가사 모임과 공과 및 소단위반입니다. 또한 스테이크나 지방부 상호부조회가 주최하는 가사 활동, 세미나 또는 실습을 통해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가정 비축은 하계 방문 교육 메시지의 주제가 될 수 있으며 와드 및 스테이크 모임에서 말씀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각 와드나 지방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그 지역에 사는 자매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그들의 필요 사항과 상황에 따라, 가정 생산 및 비축에 관련되는 주제에 관하여 가사 모임 일년 계획으로 가르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 반에서는 겸손한 생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침을 포함시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1. 비상시와 가정 비축을 위해 체계적으로 절약하는 방법
2. 저장법, 저장 물품, 저장 장소
3. 씨앗 저장, 토양 준비 및 적당한 연장 구입.
4. 가내 채소 경작 방법
5. 식품 통조림 가공법 및 건조법
6. 가족의 건강을 위해 섭취해야 할 식품의 종류와 섭취법
7. 바느질, 의복 수리 및 개조에 필

요한 재봉틀 기본 사용법

8. 구입이 가능한 자료와 가정에서 비축한 식품으로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방법

도서관, 지역 사회 봉사 기구 및 정부 기구를 현명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매는 남편과 협의하여 훌륭하게 가정 비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계획을 승인할 때 각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다음과 같은 점검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는 상호부조회 역원으로서는 자매들에게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배우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로 훈련시켜서 그들이 이 기술을 활용하도록 돕고 있는가?

2. 우리는 신권 소유자와 협의하여 가정 비축 프로그램과 생산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하고도 실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잘 수행하고 있는가?

3. 소단위 가사반 계획은 와드 내의 자매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사항을 충족시킬 만한 것인가?

4. 우리는 자매들이 각자의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가정 생산 프로그램과 비축 프로그램을 계획하도록 돕고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어려운 문제를 훌륭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해 예기치 않은 재정적인 문제를 잘 해결한 한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가족은 가장이 중한 병이 들어 당분간 수입이 없게 되었습니다. 냉장고에 들어 있는 것을 모두 먹고 나서 가족은 그들이 비축한 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 그는 다른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장 문제로 집을 떠나 있는 동안 그 마을에는 수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 가족은 또 수도를 수리하기까지 저장해 두었던 물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준비 때문에 그 가족은 아무런 공포도 곤란도 겪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비상시를 위해 준비했던 것입니다. 금전의 저축은 물론 적절한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정은 다른 곳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도 필수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요금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예비 프로그램의 원리와 그 프로그램에서 자매가 맡아야 하는 역할은 우리의 시대에만 국한하여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잠언 31장에 있는 현숙한 여인을 생각해 봅니다. 그녀의 지혜, 검소, 절약 그리고 준비하는 태도를 상기해 보십시오.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 집 사람들은 다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잠 31 : 13—31참조)

역경과 어려움은 태초부터 우리의 지상 생활의 일부분이 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시된 진리에 순종하면 이 문제를 극

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현재 상호부조회 자매에게 주어지는 지침은 성경의 시대와 같습니다. 그 지침이란 곧, 순종, 계획, 조직, 가르침 그리고 실천입니다. 순종은 훈련이자 실천입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는 의로운 일에 대한 보상과 그 기쁨을 가져다 주는 탁월함과 각오와 앞을 내다보는 지혜로 그들에게 주어진 지시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우리가 모두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지침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철심인 평의회의 한분인 로렌시던 장로(좌)와 친구



교회 복지 사업의 기본 원리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일과 사랑의 기본 원리는 주님의 복지 사업의 근본 원리입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훌륭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교회 복지 사업의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의 근본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며 둘째, 일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유의지에 대해 한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 의지란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뜻합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생명 다음으로 가치있는 유산입니다.

자유 의지는 영의 세계에서조차 행사되었습니다. 복음의 계획은, 전 세계에서 의뢰되어 받아 들여졌을 때,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 때 자유 의지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천군의 삼분의 일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으나 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원리에 대한 반감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후손에게 자유 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 자유 의지의 원리를 무력의 원리로 대치하려 해 왔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상에서 그릇된 결정의 결과에 대한 교훈적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의 통치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예언자는 그들에게 왕이 있으면 나머지 백성은 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왕을 갖게 해 달라고 고집했습니다. 이일로 사무엘은 슬퍼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삼상 8:7)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자유 정부 형태를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모시고 몇 십 년간은 잘 지냈으나 곧 포로가 되어 노예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자진해서 노예가 된 것은 외부의 세력으로 노예가 된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유 의지를 행사하여 신화의 두 번째 구성원이 되셨습니다.

사탄은 자유 의지를 행사하여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사랑의 원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복지 사업 운영에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돈과 봉사를 바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

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남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일 4:7-9, 11)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나”(요일 3:17)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가난한 자를 기억할지니, 깨뜨릴 수 없는 성약과 행위로서 네 재산을 하나님께 헌납하여 저들에게 나누어 주어 야만 하느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너희 재물을 나누어 줌은 내게 행하는 것이 되나니, ...”(교성 42:29-31)

예수께서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6-40)

마태, 마가, 누가 모두가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율법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덧붙였음을 기록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눅 10:29)

예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그에 답하셨습니다.

교회 복지 사업이 그 기능을 다해야 하는 두 가지 원리, 즉 자유 의지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 비유는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며,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자발적으로 그들을 돕게 됩니다.

이제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이란 첫째와 둘째 되는 크고 중요한 계명과 자유의지 만큼 복지 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938년 4월 대회에서 클라크 부대관 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노인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나는 그들이 도움을 받음으로써 고칠 수 있는 질병이나 궁핍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와 헌신적인 가족으로부터 사랑과 친절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노인을 동정합니다. 나는 노인이 현대의 경제적인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인이 춥고 배고프고 헐벗은 처지에 처하지 않도록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부모를 돌보는 일차적인 책임은 사회가 아니라 가족에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와 같이 인간이 마치 가족처럼 이 우리에서 저 우리로 쫓겨 다니는 노예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족으로서 그 위치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돌보기를 외면하는 가족은 그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의탁할 가족이 없는 노인이나,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가정을 사회는 순수한 인간애로 구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게으른 상태로 있어도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는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게으른 사람은 돌볼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는 구절을 한 구절도 못 보았습니다. 과거에 어떠한 자유 사회에서도 게으른 무리를 도와 주어 자유롭게 살도록 해준 일은 없습니다.”(대회 보고, 1938년 4월, 106—7페이지)

나는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스테이크 : 린 물리노(좌), 줄리 매기

주님께서는 회복을 이루실 때에 계시으로써 복지 사업이 사랑과 일의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그후 많은 교회 대관장은 이 원리를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42편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에서 예언자 요셉에게 교회의 율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게으르지 말라. 게으른 자는 밥을 먹지도 말아야 하며 일군의 옷도 입지 말아야 함이니라.”(교성 42:42)

주님께서는 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일하도록 지명을 받은 시온의 주민은 충성을 다하여 맡은 일을 기억하라. 게으른 자는 주 앞에서 기억될 것이니라.

“나 주는 시온의 주민을 크게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저들 가운데 게으른 자가 있어 그 자녀들이 죄악중에서 자라나며 영원한 재물을 잔절히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저희 눈에 탐욕이 가득함이니라.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되며 또 저들 가운데서 제거되어야 하니니, (교성 68:30—32)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아가 머무르지 말며 게으르지도 말고 오직 너희 힘을 다하여 힘써 일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노니,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만 할 자는 누구든지 부양하게 하라. 저는

결코 자기의 면류관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자는 교회 안에서 일하게 하라.

“각 사람은 모든 일에 부지런하라. 게으른 자는 회개하여 자기의 태도를 고치지 아니할진대 교회 안에서 일할 자리가 없으리라.”(교성 75:3, 28—29)

주님께서는 게으른 자를 자주 꾸짖으시면서 노동의 신성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조직되던 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자에게 큰 축복을 주리니”, (교성 21:9) 그로부터 9개월 후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 말하거니와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장로, 제사, 교사 그리고 회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힘을 다하여 손수 일하며 내가 명한 일을 준비하며 완수하라.”(교성 38:40)

주님께서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위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려 하지 아니하는 너희 부자에게 화 있도다. 너희의 재물이 너희 영육을 썩게 할 것임이라. 주께서 오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 분노하시는 날에 애통하며 울부짖기를 주수는 끝나고 여름이 지났으나 나는 구원 받지 못하였도다 하리라.

“심령은 상하지 아니하고, 심정은 애통하지 아니하며, 배는 만족을 얻지 못하며, 손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



철심인 제일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은 분. 좌에서 우로, 칼로스 이 애시, 엠 러셀 벨라드 이세,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이콥 디오거

하여 놓지 아니하며, 눈에는 탐욕이 가득하며 제 손으로 몸소 일하려 하지 아니하는 너희 가난한 자에게 화있도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고 상한 심령과 해통하는 심정을 지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교성 56 : 16—18)

일에 대한 제시만 해도 100여개가 넘습니다. 그 모든 성구가 주께서 오실 때에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며”라는 성구와 일치됩니다. (교성 1 : 10 ; 112 : 34 참조)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해 온 것에 역점을 두고 그 참 뜻을 알려주는 말씀이 1844년 10월 15일자로 나부에서 발행된 존 테일러 대판장의 “노동에 관한 사실”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최근에 이것을 읽고,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순교 당하고 난 뒤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 다. 여러분께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노동은 부를 생산해 낸다. 노동이란 인간이 생활 수단으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 위대한 인생에서 보편성있는 조건이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창조물, 특히 그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일을 해야 한

다는 것 때문에 결코 천하다고 하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6 일간 천지 창조를 위해 일하셨던 것이다. 흠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정기를 받아 생명체가 되어 영이 거하는 인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동산에 두어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성인의 가르침을 들추어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일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게으른 자를 경멸해야 한다.

“귀중한 시간에 우리는 일하고 준비 하여야 한다. 바빌론과 그 모든 세상적인 지혜, 그 여러 가지 사치와 허영에 가득찬 모습들은 무너지고 더 이상 세상을 요동치 않으리라.”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큰 죄의 도시 바빌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 중에 세워져 백성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타임즈 앤드 시즌즈, 5 : 679, 1844년 10월 15일)

형제 자매 여러분, 벽에는 그 필적이 있고 “해석이 확실”합니다. (단 2 : 45) 바빌론은 멸망할 것이며 그 파괴 또한 될 것입니다. (교성 1 : 16 참조)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시온은 그와 함께 멸망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시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일, 그리고 성실한 노동의 원리 위에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측의 시온이 오늘날처럼 악이 만연했던 때에 세워졌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자들 가운데서는 “전쟁과 유혈의 참극이”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유혈을 빚어 낸 죄에 무르익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니 저들이 의롭게 살아가리라...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음이더라.” (모세서 7 : 16, 18)

시온의 건설을 준비하는 우리는 교회의 복지 사업이 그 근거를 둔 사랑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노동의 근본적인 원리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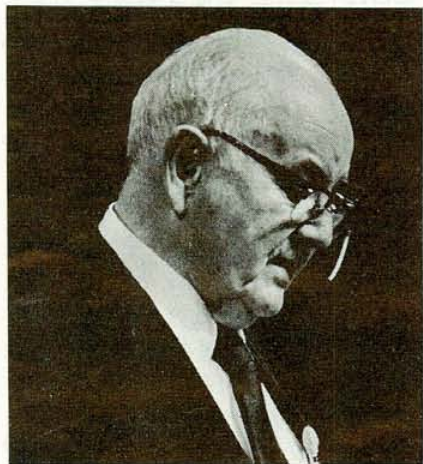
우리는 “게으름의 저주가 없어지고 실업 수당의 악이 근절되며 독립, 근면, 검소 및 자기 존중의 태도가 다시 우리 가운데 확립될” 때까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울 것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여러분께 드리는 간중이요, 나는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립니다. 아멘. *

가족 예비 프로그램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식량 생산, 식량 비축, 식량 이외의 품목 비축에 대한 예언자의 경고



형 제 자매 여러분, 상호부조회 회장이신 바바라 스미스 자매와 다른 총관리 역원의 훌륭한 말씀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구세주께서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되풀이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머리 속에서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눅 6:46)

오늘날 교회에는 교회가 요구하고 제언하는 바를 행치 않고, 그러한 권고에 대해 끊임없이 논박만을 일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나는 교회 내의

와드나 지부의 수가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수만큼이나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세계에 있는 모든 감독과 지부장이, 물론 법적으로 식량 비축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도 있겠으나,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오늘 아침에 전해 드린 말씀대로 식량을 비축해 두고, 경전을 인용하여 3, 4백명 또는 5백명이나 되는 와드나 지부 회원에게도 주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도록 권하여 실천케 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를 행치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많은 것을 저축하고 모으는데 믿지 않는 이웃이 와서 그것을 훔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그 말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음 두 성구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하나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 이외에 다른 책임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750개의 스테이크에는 각각 수백, 때로는 수천에 이르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수의 인원은 우리가 이 일이 행하여질 때까지 추진해 나간다면 그 일을 성취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 줍니다.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일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듣습니다만, 때때로 주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결코 잊어 버리거나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될 중요한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점점 부유해져서 은행에 저축해 놓은 예금이 늘어날 때, 안정감을 느낄 때, 가끔 우리는 총관리 역원이 제언한 물자를 비축해 둘 필요가 없음을 느낍니다. 생필품은 쌓여서 변질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비축 프로그램을 다시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변할 수도 있으며, 일년 동안 쓸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필품을 저축해 두는 것은 우리나라 다른 사람에게 매우 요긴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파업으로 농성을 벌이고,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 일주일에 3일씩 일하던 때의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조그만 상점의 창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크게 써여 있었습니다. “촛불과 건전지와 의지력으로 일주일에 6일간 개업함” 의지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저축과 잉여물 보관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사람이든 성도들은 자기 나라의 법률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지지하여야 합니다. (신앙개조, 제2조 참조) 그러나 저축이나 저장이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는 관리 역원과 주님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 교회와 사회의 기본 단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모든 곳에 있는 말일성도에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새로 힘을 기울여 가정을 강화하고 아름답게 꾸밀 것을 권고합니다. 즉 식량을 생산하고 보존하고 비축하며 식량이 아닌 물품도 생산하고 비축하며 집과 주변을 수리하고 깨끗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모임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심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로버트 엘 심슨 장로, 십이사도 보조

심에서 경작할 것을 권유합니다. 딸기, 포도, 과일 나무 등을 그 지역의 기후에 따라 적합한 것을 택하여 가꾸십시오. 마당에는 야채를 재배하여 먹도록 하십시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조금만 모판을 만들어 채소를 약간 가꿀 수 있습니다. 식품을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정원은 경작하기 위해서도 가꾸지만 아름답고 멋있게 가꾸도록 하십시오. 자녀가 있으면 그들에게도 책임을 주어 참여시키십시오.

롭니 부대관장님이 방금 하신 말씀은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녀에게는 노동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가 흥미를 갖는 것만을 찾으려 해서는 안됩니다. 그대신에 그들이 집중하여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 가치있는 일을 찾아야겠습니다.

가정 비축과 저장에 관한 기술을 향상시키십시오. 우리는 이전에 교회에서 늘 권고해 온 1년치의 생필품을 계속 비축할 것을 거듭 권고합니다. 페더스토운 감독은 그 필수품을 매우 적

절히 요약해 주셨습니다.

가능한 지역에서는 식량 이외의 생필품을 생산하도록 하십시오. 바느질 기술을 배워 가족을 위해 옷을 짓고 바느질을 하십시오. 모든 소녀는 타자하는 것을 배워 취직만을 하려 합니다. 그들은 바느질을 배우거나 채소를 가꾸고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을 아끼고, 헌것을 새것으로 만들어 다시 사용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매님들도 형제님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수공 기술을 익혀 필요한 것을 손수 만들거나 짓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가족에게 1년치의 생필품을 비축해 둘 것을 권고합니다. 그것은 누차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도 거듭 해서 되풀이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심령을 기울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행동하려 하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치 아니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집과 마당과 농장과 사무실을 잘 수리하고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울타리를 고치십시오. 필요한 곳에는 페인트를 칠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십시오. 마당과 밭을 잘 쓸고 정돈하십시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집에서는 질서와 아름다움과 행복이 넘치게 하십시오. 잘 계획하고, 계획한 것을 질서 있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십시오.

빛을 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에 대해 많이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모든 말씀은 빛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후불 상품 교환권을 이용하면 모든 것을 월부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역 전문가로부터 식량이나 식량 이외의 품목을 비축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얻도록 하십시오. 비축에 대해 추가로 더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신권 지도자와 상호부조회 역원이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가정 생산 및 비축” 담당자에게 편지를 보내어 필요한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ome production and Storag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우리는 모든 말일성도 가족이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도록 권고합니다. 국민과 국가의 위대한 힘은 가정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면에서 가정을 강화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도록 합시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살후 3: 8, 10-12)



스터어링 더블류 실 장로(우), 십이사도 보조와 친구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만물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딤후 5:8)

나는 총관리 역원들이 영감을 받으시어 신권 복지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문제에 성도들로 하여금 거듭 주의할 기율이도록 강조해 주신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롬니 부대관장님이 이 중요한 주님의 사업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하시고, 지도자로 일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신권 복지 프로그램과 그 운영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방법은 회원이 노동과 복음에 대해 스스로 간증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노동이 생산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더욱 게으름을 강조하고, 노동을 피하도록 조장시켜 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에 있는지 그 나라의 법률이 허락하는 데

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은 물론 모든 회원에게 금식의 법을 지키도록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개인적인 어떤 목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선교 사업에서 우리의 걸음의 폭을 넓히고,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는 나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속히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하기 위해 금식하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일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말에 쓰는 도구(가족으로 만든 것)를 비누로 닦고, 또 오래 보존하기 위해 기름을 발라 두는 것을 배운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울타리, 물탱크, 마차 차고, 곡식 창고, 마차 그리고 나중에는 집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 손에 물집이 생긴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싫어하지는 않았습니 다. 나는 뜨개질을 하고, 집을 늘 새롭고 깨끗하게 가꾸는 소녀를 칭찬하고 싶었습니

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 입을 옷을 만들고, 바느질을 잘하고, 요리를 잘하고, 집을 청결하게 가꾸는 젊은 여성을 볼 때 기뻐했습니다.

요즈음의 경향을 보면 우리가 청소년을 즐겁게 해 주려고 급급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들이 흥미를 갖는 일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우리에게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노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 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많이 폐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동의 원리를 폐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체 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 기관으로부터 로켓 제작에 이르기까지 실로 노동이란 인간의 존재 조건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노동이 여가를 희생하더라도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목적있는 활동이라는 말을 들어 왔습니다.

나는 상점, 은행, 사무실 등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불평을 토하고, 일하는 것을 싫어하고, 보수에 비해 많은 일을 할까해서 인색하게 처신을 하는 사람을 볼 때 늘 슬픔을 느낍니다. 나는 그들의 근무 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이를 규제하는 규칙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조상들이 겪은 것처럼 불가피한 시련과 위기가 닥칠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끝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스미스 자매님과 관리 감독단과 롬니 부대관장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매우 감사히 생각하며, 이러한 모든 원리가 실천을 요구하는 복음의 원리이며, 무엇을 배우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주님의 모든 계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대관장단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
제 1 보좌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매리온 지 훈스 부대관장
제 2 보좌



에즈라 태프트 벤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보



엘마 소니



스터얼링 더블류 킴



헨리 디 테일러



엘빈 알 다이어



프랭클린 디 리차즈



디어도어 엠 버튼



존 에이치 반덴버그



로버트 엘 심슨



오 러슬리 스토운



제임즈 이 파우스트



제이 토마스 파이만스



닐 에이 맥스웰

칠십인 제일 평의회



에스 딜워스 열



에이 디어도어 터틀



폴 에이치 던



하트만 맥터 이세



잘터 에이 디데이



로렌 시 던



렉스 디 퍼네가



진 알 쿡



엠 러셀 벨라드 이세

십이사도 평의회



마크 이 피터슨



엘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글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보이드 케이 파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교회 축복사



엘드리드 지 스미스



나드 피 브룩뱅크



제임스 에이 켈리모어



매리온 디 헝스



조셉 앤더슨



윌리엄 에이치 베넷



류 그랜트 뎡거터



로버트 디 헤일즈



에드니 와이 고마쓰



조셉 비 워스틴

칠십인 제일 정원회



리얼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 리



칼로스 이 애시



에이치 그로버그



제이콥 디오거

관리 감독단



에이치 버그 피터슨
제 1 보좌



빅터 엘 브라운
관리 감독



본 제이 페더스토운
제 2 보좌

표준 경전의 일부로 채택되어 값진 진주에 첨가된 시현에 관한 제시

해의 왕국에 관한 시현

1836년 1월 21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신전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본 시현. 이 날은 그 당시 계시로 밝혀진 바 있는 엔다우먼트에 관한 의식을 집행하던 날이었다. (교회 정사 참조, 2: 380-81)

여러 하늘이 우리 위에 열렸으며, 나는 하나님의 해의 왕국과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내가 옥체를 갖고 있었는지 혹은 그렇지 않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들어 갈 굉장히 아름다운 문을 보았는데 그 문은 마치 월형으로 타오르는 불꽃 같았으며, 아버지와 아들이 앉은 하나님의 찬란한 보좌도 보았습니다. 나는 금으로 포장된 해의 왕국의 아름다운

거리를 보았습니다. 나는 우리의 시조 아담과 아브라함, 나의 부모님, 오래 전에 죽은 나의 형 알빈을 보았습니다. 나는 알빈이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집합시키는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났고, 죄 사함을 위한 침례를 받지 않았음을 알았던지라 어떻게 하여 그가 해의 왕국을 상속받았는지 기이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로서 지상에 더 머물러 있었을진대 복음을 받아들였을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해의 왕국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지금부터 복음을 모르고 죽게 될 자로서 복음이 전해졌다면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받아들였을 자들도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될지니 이는 나 주가 모든 인간을 그들의 업적과 그들의 마음의 소망에 따라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또한 나는 책임을 질 연령에 이르기 전에 죽은 모든 어린 아이가 하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받음을 보았습니다.

4월 3일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대관장단 제1보좌인 앤 엘돈 태너 부대관장은 다음 성명서를 낭독했다.

1976년 3월 25일,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개최된 대관장단 및 십이사도 평의회 모임에서 다음의 두 가지 제시를 값진 진주에 첨가하기로 승인하였습니다.

“첫째는 1836년 1월 21일, 오하이오주 커틀랜드 신전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본 해의 왕국에 관한 시현으로 복음을 모르고 죽은 자들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는 1918년 10월 3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본 시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세계를 방문하신 것과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교리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조치를 지지하고 승인하며, 이 두 가지 제시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표준 경전의 일부로서 채택하는지를 결의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 제의는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다.

해의 왕국에 관한 시현을 받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

1918년 10월 3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조셉 에프 스미스 대판장이 본 시현. 이 시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세계를 방문하신 것과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복음 교리 제2권, 472-476페이지 참조)

1918년 10월 3일, 나는 내 방에 앉아 경전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위대한 속죄의 희생, 하나님 아버지와 구속주로 이 세상에 온 아들이 보여 준 위대하고 놀랄 만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속죄를 통하여 복음의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복음이 전파된 본토, 갈라디아, 가바도기아, 기타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던 초기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펴고 베드로 전서 3장과 4장을 읽었는데 이전의 어느 때 보다도 다음 구절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육에 있는 영들 전파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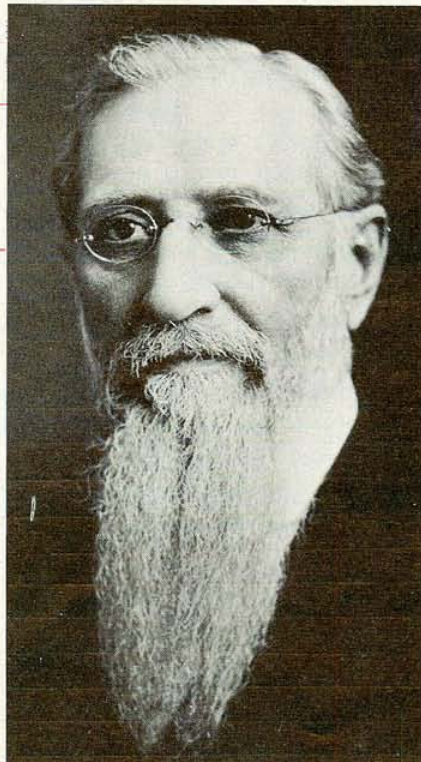
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여덟 명이라”(벧전

4:1)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
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

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
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벧전 4:6)

내가 경전에 기록된 이같은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이해의 눈이 열렸고, 주님의 영이 내게 임했으며, 나는 크고 작은 죽은 자의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예수에 대한 간증에 충실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한 희생의 모형에 따라 제물(희생)을 바쳤으며, 구속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환란을 겪었

1918년 죽은 자의 구속에 관한 시현을 본
조셉 에프 스미스 대판장



던 수많은 의로운 자의 영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통하여 영화로운 부활을 바라는 소망을 굳게 간직하고 현세를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의 구원의 날이 임박하였으므로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한데 모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의 세계에 오시어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 나오는 그들의 구속을 선언하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잠들고 있는 육신의 뼈와 근육과 살이 완전한 모양으로 회복되고, 영과 육이 결코 분리되지 않게 결합되어 충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나오는 그들의 구원의 때를 기뻐하며 기다리고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충실하였던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영원한 복음, 부활에 관한 교리와 타락에서 구원받는 인류의 구속에 관한 교리, 그리고 회개의 조건하에 개인의 죄에서 풀려 나오는 구속에 관한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한 자들의 영에게는 가지 않으셨으며, 육체로 있을 동안 자신의 몸을 더럽혔던 불의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영에게 그의 음성을 높여 말씀하지 않으셨고, 더우기 고대 예언자들의 간증과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배반자들의 영도 그의 임재하심을 보지 못했고, 그의 얼굴을 쳐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영이 거하는 곳에는 어둠만이 있었으나 의로운 자들의 영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으며, 성도들은 그들의 구속을 기뻐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과 지옥의 사슬로부터 구해 낸 그들의 구속주와 구원자로서 인정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빛났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생기는 광채가 그들에게 임하니 그들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약 3년간 유대인과 이스라엘 집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온 힘을 다해 영원한 복음을 가르치시고 회개하도록 의

치셨는데 그의 위대한 권세와 권능으로써 행한 큰 일과 기적과 진리에 대한 선언이 있었으나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었고 그의 임재하심을 기뻐하였고 그의 손으로 구원을 받았던 자들이 소수에 지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던지라 이상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배운 그의 성역의 기간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때까지의 짧은 기간뿐이었습니다. 나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전에 노아의 남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베드로의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그토록 짧은 기간 동안 그곳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가능할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이해력이 새로와져서 나는 하나님이 악한 자들과 진리를 거부하고 순종치 아니한 자들을 가르치려 그들에게 몸소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러나 그는 의로운 자들로써 그의 군대를 조직시키고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은 사자들을 임명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진실로 모든 인간의 영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도록 위임하셨던 것입니다. 이같이 복음은 죽은 자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선택된 사자들은 나아가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날을 알리고 속박되어 있던 갇힌 자들,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죄를 짓고 죽었거나 예언자들을 배척하며 범법하고 죽은 모든 자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죄를 버리는 회개, 안수례에 의한 성신의 은사 그리고 그들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음의 모든 다른 원리를 배웠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죽은 자들 중의 충실한 자에게는 물론 불의한 자에게도 구속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같이 우리의 구

속주께서는 영의 세계에 머무르면서 시간을 내시어 육체로 있을 동안 그를 증거했던 예언자들의 충실한 영을 가르치시고 준비시켜 그들로 하여금 구속주께서 배반과 범법 때문에 몸소 찾아 갈 수 없었던 모든 죽은 자에게 구속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구속주의 종들의 성역을 통하여 죽은 자들도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많은 의로운 자의 회중에 모인 위대하고 강한 자들 가운데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요 만인의 아버지인 시조 아담이 있었으며, 우리 인류의 영예스러운 어머니인 이브도 여러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 왔던 많은 충실한 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첫 순교자인 아벨도 그곳에 있었으며, 그의 동생이며 그의 아버지인 아담을 꼭 닮고 힘센 자였던 셋도 있었습니다. 홍수에 관해 경고하였던 노아, 위대한 제사장이었던 셈, 충실한 자들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위대한 입법자였던 모세, 구속주께서 상한 심령을 가진 자들을 한테 결속시키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속박된 자들에게 옥의 문을 열어 주도록 기쁨부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예언한 이사야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외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육체를 입고 산 자로 다시 나타나게 될 마른 뼈들이 있는 큰 계곡을 시헐에서 보았던 에스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하나님의 왕국이 말일에 세워지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예언했던 다니엘, 변형의 산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일라이어스, 엘리야(모로나이도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그에 관해 이야기한 바 있음)의 오심에 관해 증거하고 그가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리라고 말했던 예언자 말라기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주님이 와서 저주로 온 땅을 쳐서 온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지 않게 하도록 죽은 자의 구속과 자녀들을 부모에게 매이게 하는 인봉을 위해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신전에서 행해질 위대한 사업을 예언하고, 자녀들의 마음에 그들의 아버지(조상)에게 주어진 약속을 심어 주어

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예언자와 이외에 많은 사람과 니파이 백성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증거했던 예언자들까지도 수많은 회중과 함께 하여 그들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그들의 영이 오랫동안 육신을 떠나 있음을 하나의 속박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부활할 권세를 주시어 그의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 가서 불사불멸과 영생을 얻은 뒤에 주님의 약속대로 그들의 일을 계속하고 주님을 사랑한 그들을 위해 예비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 나의 부친인 하이람 스미스, 브리감 영,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럼, 이외에 신전을 건립하여 죽은 자의 구속을 위한 의식을 집행하며 말일의 위대한 사업이 기초를 놓는 책임을 맡았던 훌륭한 영들도 역시 영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초기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자로서 선택되었던 고귀하고 위대한 영들과 함께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많은 다른 자들과 함께 영의 세계에서 첫 교훈을 받았으며,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주님의 정한 때가 이르면 나타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경륜의 시대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충실한 장로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통하여 회개와 구속의 복음을 죽은 자의 영의 세계에서 어둠 가운데 죄로 속박되어 있는 영들에게 계속 전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집행되는 의식에 따름으로써 구속받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의 범법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깨끗해진 후에 그들의 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구원의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이같이 죽은 자의 구속이 이 내게 나타내졌습니다. 증거하며,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의 축복을 통하여 관한 기록이 참된 것임을 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태양이 정지한 전쟁

이 호 남

서울 스테이크부장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랑할 때 모세의 수행인이었고 용장이었습니다. 그는 눈의 아들이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세로부터 아말렉을 쫓아내라는 명령을 받아 훌륭히 싸워 이겼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으며(출 24 : 13) 가나안에 들여보낸 12명의 정탐군의 한 명으로 갈렙과 같이 진격할 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변형된 모세의 후계자로 성임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쳤습니다. 그는 여리고를 함락한 후 아이를 함락하여 가나안 땅의 중앙지역을 집중 강타하여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가나안 정복에서 놀랄만한 사실은 기브온을 공격한 연합군 격파입니다.

예루살렘의 서북쪽 약 16km지점에 있는 기브온은 가장 큰 성의 하나였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의 함락에 놀란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분개한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의 왕들은 연합하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언하여 '당신들의 종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여 주소서' 라고 청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와 힘을 얻어 이들을 섬멸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고하여 태양이 기브온 땅 위에 머물게 하여 낮을 길게 하므로 이 전쟁에 대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강한 믿음과 신앙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감히 누가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을 정지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한 요구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한 큰 요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신앙과 솔직한 요구에 우리의 가슴을 약동케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담대하고도 겸손한 자, 시련과 장애를 돌파할 만한 용기의 소유자가 요구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구원을 향해 돌진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일의 회복된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이 늘 같이 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